

부스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4호 | 2025년 하반기

권두언

송정우 _ 씨앗을 심는 사람들

특집 | 해운대교회 제88주년 기념 기독교문학제

부산크리스천문학 백일장

- 운문부 · 산문부 입상작
- 심사평 박정선 | 특별한 감동을 만나다
- 교회인터뷰

작품평

- 시 평 변중환 | 이 아침의 축복을 위하여!
- 아동문학평 남순 | 비유와 패러다임

올해의 작가

감윤옥 | 기도 외 4편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저녁 노을이 백미러에 보내온 엽서

김은희 첫 시집

- 시인, 수필가, 심리상담 전문가
- 고신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박사 졸업
- 청소년 상담센터,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마음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역임
- 종합문예지 《문심》에 시(2022)와 수필(2024)로 등단
- 제멋문학회, 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중원문학 수필 부문 대상(2020)
《문심》 시 부문 작품상(2023 가을호)

maeum5454@naver.com



김은희 시인의 언어는 독자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며,
있고 있던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가만히 위로 한다.
첫 시집은 작가에게 특별하다.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이자,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는 용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집이 김은희 시인의 문학 여정에 큰 빛이 되고,
독자들에게는 소중한 위안이 되리라 확신 한다.
저녁노을이 보내온 한 장의 편지처럼, 이 시집이 많은이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기를 바란다

- 차달숙 (시인, 수필가, 부산문학인협회 명예회장)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4호 | 2025년 하반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나무들

조이스 킬머

나는 생각한다, 나무처럼 사랑스런 시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대지의 단물 흐르는 젖가슴에
굽주린 입술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앞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엔 머리칼에다
방울새의 보금자리를 치는 나무

가슴에 눈이 쌓이고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느님뿐.



- 조이스 킬머(Alfred Joyce Kilmer : 1886-1918)는 미국 출신으로 저널리스트, 평론가, 시인으로 활동했다. 세계 1차 대전 중 32세에 전사, 작품집은 『사랑의 여름』, 『나무와 다른 시들』, 『발달과정의 문학』, 『나무들』 등을 남겼다.



사진 권갑숙



시 **조현숙**

- 2017년 《시선》 등단
- 부산 크리스천 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문인협회 편집위원, 새부산시인협회, 부산여류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문학상 우수상, 《문학도시》작품상, 《부산시단》작가상 등
- 시집 『미로역에서』, 『상처가 상처에게』

겨울꽃

조 현 숙

어둠이 내리면
여린 불빛 더 환해지듯
겨울이 오면
텅 빈 별관에서
당신의 음성 더 잘 들립니다

당신 말씀 한마디에
어둠 속 뿌리에도 피가 돌고
얼었던 가지에도
등불처럼 꽃이 피어납니다

주님,
내 속에 당신 안 계시면 저는
무엇으로 이 겨울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캄캄한 허공 중에
뜨거운 꽃 한 송이 매달겠습니까

올해의 작가 _ 김윤옥



- 기독교문예 《2009년》 시등단
- 중·고등학교 교사역임
- 수영로교회 은퇴전도사
- 부산여류시인협회부회장, 부산시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이사, 유튜브<인생의 길동무> 운영
- 저서 : 『그 숲에 가면1』 『그 숲에 가면2』

김윤옥 전도사님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고 그 후에는 신학 수업을 하시고 부산의 수영로교회 전도사로 봉직한 바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 동안 시도 쓰고 산문도 발표하셨지만 특히 ‘인생의 길동무’ 라는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여 마음의 양식이 되는 기독교 혹은 신앙서적을 소개하거나 나그네 인생길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써 오신 분입니다.

- 이상규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

모너머 고개를 넘어 부산장에 가다

공기화 다섯 번째 수필집

부산 못골에서 출생하여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로 시와 수필을 적으면서 부산 남구의 향토사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부터 부산기독교문학회 칼럼과 수필을 쓰다가 2001년에 <문학21> 수필 부문에, 2016년에 <문학도시> 시 부문에 신인상을 받아 글을 쓰고 있다.

현재 부산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한국장로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수필집 『푸른 언덕이 있는 남촌』,

『뒹모습을 그리다』, 『날빛마저 먼저 오라』,

『가야의 옛터에서 부산을 노래하다』,

『모너머 고개를 넘어 부산장에 가다』

시집 『흔들리며 산다』,

『달항아리에 그린 사계』가 있다.



중학교 때 사용했던 노트는 표지마다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양초나 등잔이나 등을 비치할 수 없었던 가난한 소년이 반딧불이의 불빛으로 공부했다는 형설 지공이라는 고사성어에서 비롯된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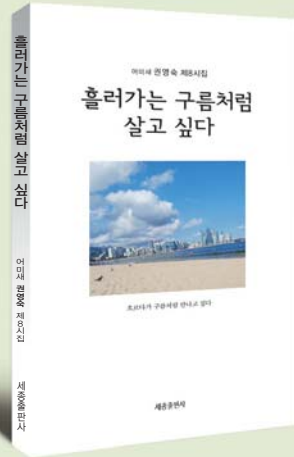
요즘에는 형설지공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 버렸다. 주위에 밝은 빛을 내며 나는 반딧불이도 없거니와 그 불빛 아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 반딧불이를 쫓다 중에서

흘러가는 구름처럼 살고 싶다

권영숙 제8시집

- 부산크리스천문학 백일장 신인상 당선
-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문화중심 작가회 이사
- 부산남구문인협회, 오륙도문인협회 이사
- 부산예술인협회 삼양회 감사
- 부산문예시대 작가상, 부산문인협회 작품상
- 시집 『어미새』 『꽃처럼 눈 뜨는 아침』
『풀꽃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나뭇잎 시처럼 떨어진다』
『새들도 그리워서 산을 넘는다』
『창가에 핀꽃』 『샘물같은 시가 흐른다』
- 스토리 텔링집 『꽃은 한을 먹고 핀다』
- 장편소설 『양들의 분노』



권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누가 뭐라해도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 이 엄숙한 불변의 진리 앞에 / 나는 왜 눈물이 나는 걸까,”라는 진술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심오한 사유에 빠져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에 대한 감사는 물론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은혜롭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폭이 그만큼 확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범주를 벗어나 타자의 아픔에 대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다.

즉 강자에게 지배당하는 약자에 대한 변호이다.

- 박정선(문학평론가) 해설 中

꽃잎에 쓰는 편지

신현숙 시집

- 경남 거창 출생
-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치유사역과 문학석사
- 2005년 《한국크리스천문학》 신인상
- 2009년 《고려문학》 신인상
- 2021년 《창조문예》 추천 완료 등단
- 창조문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부산시인협회 회원
- 부산사직동교회 은퇴권사
- 시집 『상처는 향기가 난다』



아름다운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삶의 노래
저는 신현숙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고 쉽게 몰입되며 따뜻한 감동으로 마음에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함을
보석같은 시어로 담아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거친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 낸 가슴 벅찬 승리의 찬가를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시인의 가슴에 요동치는 사랑의 열매라 믿습니다.

- 정 훈(문학 평론가) 추천의 글 중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제43호 출판기념회(6. 26.)



부산크리스천문학 행사

기독문학제(9. 13.)



부산크리스천문학 행사

시화전(7. 5. ~ 30. 동백섬)



시 콘서트(8. 2. 프라머스랜드)

부산크리스천문학 행사

가을문학기행(11. 4.)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4호 | 2025년 하반기

권두언

송정우 | 씨앗을 심는 사람들 17

특집 - 해운대교회 제88주년 기념 기독교문학제

부산크리스천문학 백일장 22

• 운문부 · 산문부 입상작 22

• 심사평 박정선 | 특별한 감동을 만나다 31

• 교회인터뷰 38

작품평 부산크리스천문학 2025년 상반기 43호에서

• 시 평 변종환 | 이 아침의 축복을 위하여! 50

• 아동문학평 남 순 | 비유와 패러다임 61

올해의 작가

감남윤옥 | 기도 외 4편 72

작품평

시

강위석 | 동백섬 98

곽병길 | 바다의 시계 외 1편 99

권영숙(어미새) | 그리운 별 사랑 외 1편 103

김경희 | 내게 달을 주소서 외 1편 107

김동우 | 비모란 외 1편 111

김숙희 | 나뭇잎에 쓰다 외 1편 115

김혜영 | 춤추는 목각 인형 외 1편 118

류정희 | 교도소에서 1 외 1편 120

박인자 | 마음밭에 자라는 생각들 외 1편 122

배혜숙 |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외 1편 126

손정란 | 떨기나무 외 1편 129

송순임 | 버스킹 부부 외 1편 132

송정우 | 모래톱 끝에서 외 1편 135

발행인 : 송정우 / 주간 : 박정선 / 편집장 : 양윤희 / 편집위원 :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순임,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신 선 11월의 끝 외 1편	137
신현숙 낙엽은 말없이 흩어지고 외 1편	140
양왕용 영동을 지날 때마다 외 1편	143
양윤희 소금꽃 향기 외 1편	147
이가연 발을 닦으며 외 1편	150
이귀선 도미 손질 외 1편	153
이선화 12월 맞이하며 외 1편	157
이승훈 굴뚝과 담쟁이 외 1편	159
정사라 숨길 수 없는 빛 외 1편	162
정신자 바람이고 싶다	164
정연원 잘 산다는 것 외 1편	165
조현숙 문 앞에서 외 1편	169
최귀례 오류도 외 1편	174
최만공 주기도 외 1편	177

시 조

김민주 상흔	180
모정희 압록강, 그 밤 외 1편	182
윤현수 추수 감사 외 1편	184
허성욱 나그네 소견 외 1편	186

수 필

공기화 어떤 왕초의 피서	190
구애순 동병상련	195
권갑숙 퍼스트클래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200
김복임 피난준비	206
김은희 나의 기도실	209
김해용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	213
노장현 삶을 찾는 기쁨	218
명인숙 등불을 더 밝게 켜두고 싶다	223
박경영 함께 한 39년 금혼식 넘어 또 함께	227
변순희 꽃	232
성윤자 마지막 해수욕	237
윤평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241
이준우 연어의 탈을 쓴 가물치	246

전진경 오직 감사	250
조광순 이삭줍기	255
최방식 저승꽃 지우기	259
한인환 상도商道	264

아동문학

동 시

이들자 산딸나무 외 1편	272
-----------------	-----

동 화

남 순 분청피리	274
안미영 말라꼬 할머니	282
오윤형 일빠 김한	291
임지연 누리와 채소 할매	302
정현옥 하얀 찌빵	304

소 설

강신구 진우도	312
안유환 숨바꼭질	335

부 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5)	360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361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381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384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5년 임원조직	392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393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주소록	394
2025년 회원 게시판 동정	401

씨앗을 심는 사람들



송정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해가 기운다. 달허가는 문의 틈새로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을 본다. 그 강을 함께 건너 준 고마운 이들이 있다. 신앙이라는 좁은 길을, 문학이라는 힘든 길을 함께 걸어온 이들이 있다. 그 동행은 멀리 가게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격려와 위로를 받고, 영감을 나누는 발걸음이었다.

일년 전 여름, 문학세미나를 열어 ‘근대 부산 문학예술에 영향을 끼친 선각자와 작가의 시대적 역할’을 조명하였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외부 참석자가 말했다. “이 세미나는 학회의 학술세미나보다도 더 진지하고 수준이 높았다.”고 함께 힘을 합해 역동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할 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가을의 기독교문학축제에서는 백일장과 함께 시낭송과 기독교 문학에 대한 주제발표, 그리고 회원들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 피어나는 수필가의 글 속에서 문학의 감동과 믿음의 향기가 배어 나왔다. 자신의 신앙과 문학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한 젊은 시인에게서 우리 협회의 밝은 성장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형식과 자만의 껍질과 겉치레의 무장을 풀고 마음 문을 열자 틈새 사이로 가치있는 무언가가 흘러 들어왔다. 그것을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공동체의 공감이라고 부르고 싶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돌아보면 이룬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다. 분기로 발간하고 싶었던 작품집은 여전히 반 연간지에 머물렀다. 연거푸 작품집 발간지원을 받지 못해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출판을 했다. 다만, 문학세미나와 기독교문학축제를 문화재단의 지원과 교회의 후원으로 열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대구기독교문인협회와 교류를 갖고 기독교백일장을 부활한 것도 뜻깊은 일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한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 그러나 농부는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하나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계획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니다. 뿌린 씨앗

은 지금 어디선가 땅속에서 움을 틔운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씨앗은 침묵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문학과 신앙은 닮았다. 문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유와 감상을 언어로 직조한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 그분의 섭리를 믿고 삶으로 증거한다. 기독교문학은 신앙과 문학이 날줄과 씨줄로 교차하며 한 폭의 아름다운 직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 직물의 이름은 ‘사랑과 희망, 구원의 테피스트리’이다.

새해에도 우리는 꿈을 꾸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에 선 자, 가장 작은 자, 잃어버린 자(The Last, The Least, The Lost)와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공동체를 꿈꾼다. 더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더 알찬 모임과 행사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갈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다. 한 편의 시를 쓸 때, 한 편의 소설을 다듬을 때, 우리는 창조주의 창조 행위에 동참한다.

우리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세상이 바뀐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길은 여전히 좁고 험하다. 영상매체가 범람하는 시대에 문자예술인 문학은 시대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는 점점 변두리로 밀려난다. 기독교 문학은 그 두 변두

리의 언저리에 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나온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도 성 밖 골고다 비탈길 지나 갈보리 언덕이었다.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문화도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 시대가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눈물도, 좌절도, 미완의 꿈들도 모두 씨앗이다. 그 씨앗들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계속 뿌린다. 해는 저문다. 새로운 해가 밝아온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로,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의 용기로.

우리가 쓰는 한 줄의 문장이, 한 편의 시가,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고 고뇌로 엮어내는 우리의 언어 사슬이 구원의 밭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문화이 구원의 메타포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특집

해운대교회 제88주년 기념 기독교문학제

부산크리스천문학 백일장

- 운문부 · 산문부 입상작
- 심사평 박정선 | 특별한 감동을 만나다
- 교회인터뷰

최우수

해운대

최우수 | 초등부 신예음

해운대 바닷가에 가 보니,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고,
갈매기들은 끼룩끼룩 울고,
바다는 반짝반짝 거린다.

하늘은 짹짹하고,
구름은 웃으며
우리에게 인사한다.

나는 이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감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고등부 주은서

나는 너무 비겁하고 나약해서
계속 미워하고 의심할지도 몰라
어쩌면 모른 채 할지도 몰라
그럼에도 내가 기쁠 때
가장 먼저 뛰어와서 축하해주고
내가 슬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위로해 주는
너를 알아
너는 너무 대단하고 올곧아서
계속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겠지
나 대신 피를 흘리겠지
그럼에도 내가 의심할 때
항상 거기서 기다려주고
내가 죽으면
거기서 날 향해 손을 흔들어줄
너를 알아

종탑

일반부 주성민 집사

바닷바람 스며드는 해리단길,

분주함 속에
낮선 이와 함께 걷다보면
지나온 발자욱 돌아볼 겨를 초자 없습니다.

높이 세워진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낮선 종탑.

파도의 수는 셀 수 없고,
바람이 전하는 곳 어딘지 모르지만
그 소리 들으려 이곳에 왔나 봅니다.

스마트폰 뒤져가며 지나는 낮선 이들과,
고단한 삶에 땅만 바라보며 걷고 있는 어깨,
가게 앞 길게 늘어서서
불러 줄 번호표만 붙잡고 있는 이들.
저 종탑이 보일까요?

해리단길 골목마다 불빛이 켜지고
서로의 눈빛 속에 따뜻함이 번져갈 때 즈음
손을 내밀면 잡아 주고,

눈물을 흘리면 함께 울어 주고,
기쁜 소식에 더 크게 웃어 주는,
그런 소리가 그리웁니다.

태초부터 바다는 출렁이고
동백섬 섬그늘 속 보이는 수많은 별빛처럼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되어
종소리는 우리네 골목을 채울지도 모릅니다.

피곤한 몸 커피숍 쇼파에 풀썩 앉아
멍하니 찻잔을 바라봅니다.

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 길을 밝히게 하소서.
내 마음 변해가는 파도처럼 나약해져 갈 때 감싸여 주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이가
저 종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되어
이곳에서 쉬어가게 하소서.

내 두려움 한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일반부 원하숙 집사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마저 등 돌린 듯한 밤,
나의 울음은
아무 데도 닿지 않는 것만 같았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그때
그분이 오셨다.
폭풍 속을 걸어
내 두려움 한가운데 서 계셨다.
“내나라, 두려워 말라.”
그 한 마디에
메마른 눈가에
호수같은 평안이 스며들었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분은 내 손을 잡았고
그 온기가 내 안에 머물렀다.
나는 알았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은 언제나
나를 향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최우수

교회에 다니는 사람..

- 성인이 된 아들에게

일반부 김희량 집사

이제 막 대학생이 된 큰아들은 요즘 이런 말을 자주한다.

“엄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행 중 무리하게 내 앞을 끼어든 차를 향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로 소리를 치고 화를 낼 때,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서비스가 엉망일 때 나는 직원을 불러 최대한 딱딱한 말투로 항의한다.

그럼 아이는 ‘엄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라고 한다.

나는 그게 또 억울하고 서운해서 변명한다.

‘아들아. 기독교인이 호구는 아니잖아. 나의 권리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잘 방어했다고 으쓱거리는 내게 아이는

‘엄마 한번 짬은 참아도 되잖아요, 조금은 더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랬다. 나는 교회에서처럼 좀 더 참을 수도, 친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나는 번번히 교인이 아닌 듯 살아간다. 이 번에도 나는 아이를 통해 또 배운다.

대학교 입학식 후 기숙사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길에 학교 근처 좋은 교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와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아이는 CCC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여 캠퍼스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소그룹 모임과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금요일에는 부산에 내려와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첫 차로 학교에 간다.

‘설마 이제 그만 오겠지’ 했는데 아이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내려온 지금까지 참 꾸준하다.

신입생 MT, 과 모임, 농구 동아리 모임, 기숙사 모임 등 수많은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 권하는 술을 아이는 교회 다닌다며 거절하였다.

침엔 얼마나 가겠냐는 주위의 시선도 있었는데 아이는 소신을 지켜나갔고 지금은 그의 신앙을 인정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기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결단한 일, 그 결단을 지키려 노력

한 경험은 아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될 고비마다 피할 바위가 되고 이겨낼 무기가 되어 줄 것이다.

같은 부모, 환경에서 자라도 형제의 기질은 참 다르다. 연년생 중 동생인 둘째 아들은 무슨 일이든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깔끔한 녀석이다. 해서 때론 좀 어렵다.

고3이 되면서 더욱 예민해져서 큰 아이에 이어 18 개월째 우리 집은 고3 갑질로 집안이 살얼음판이다.

얼마 전 둘째 아이가 '엄마 전 형처럼 매일 전화못해요. 대신 주 2회는 안부 전화드릴게요. 매주 부산에 못 내려와요. 한달에 한번은 오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전 술은 마실 거예요. 대신 주일은 반드시 지킬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얘기하여 추후 불필요한 엄마의 잔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지능적인 녀석이다. 그래도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는 녀석이니 그 말의 무게를 존중해 주려 한다.

고3인 자신과 중학생 동생의 용돈이 같은데도 운동하느라 고생한다며 자기 용돈의 절반을 늘 나누어 준다. 모았다가 수능 치고 쓰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라고 말하는 정 많은 아이이다.

아무리 늦은 시간 들어와도 “엄마 식사 하셨어요?” 물어봐 주는 다정한 아이이다.

퇴근한 아빠에게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위로해 주는 따뜻한 아이이다.

아이들은 내 바램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그리고 어느덧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
쳤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다오.
그 평범함에는 주의 따뜻함이 녹아있고, 주의 뜨거운 열정이 심
겨 있으며, 주의 정의가 살아 있다.
가끔 실패할 때도, 막막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도 특별할 거 없는 이 평범함이 너희를 더 깊은 주의
길로 인도 할 거야.
우린 그런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너희의 선한 싸움
을 응원하고 지지 할게.

이제 나는 마지막 남은 숙제에 진념해 본다. 완전히 결이 남다른
막내딸과 지독히 싸우기도 하고 다투겠지만 그 과정속에서 우린
분명 단단해 질 거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따라가는 조금도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교회 다니
는 사람이 되자.

특별한 감동을 만나다

심사평 | 박정선(문학평론가)

이번 백일장은 일반 백일장과 의미부터 다르다. 특별히 해운대학교 설립 제88주년을 맞아 그 기념으로 해운대학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작품을 심사했다. 심사기준은 교회 백일장이라 하더라도 글쓰기의 기본적인 태도와 문학적 상상력과 맞춤법, 그리고 주제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품은 운문(시)과 산문(수필) 2개 장르였고 최우수, 우수 장르로 순위를 정했다. 작품의 경향은 해운대학교 설립 88주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특히 산문 분야에서 해당 교회에 대한 간증성 수필이 다수였고 꾸밈이 없는 순수한 고백적 진솔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 산문과 운문 분야에서 기성작가를 뛰어넘을 만한 작품이 더러 보여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시에 있어서 일반부 최우수 작품은 기성 시인을 능가하는 수작이었다. 예심을 거쳐 최종심에 오른 작품 가운데 지면상 초등부를 시작으로 각 부분의 최우수와 우수 작품만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초등부 운문 최우수 작 『해운대』는 해운대 바닷가의 풍경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은 동심의 순수함을 그대로 보여준 탓이다. “해운대 바닷가에 가보니 // 사람들은 하하 호호 웃고 / 갈매기들은 끼룩끼룩 울고 / 바다는 반짝반짝 거린다 // 하늘은 짹짹하고 / 구름은 웃으며 우리에게 인사한다 // 나는 이 모습들을 보며 //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 감사하게 된다”는 진술은 티없이 맑은 하늘처럼 어린아이와 하나님이 만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작품이지만 영국 시인 블레이크의 “모래 한 알에서 세계를 보고 들꽃 하나에서 천국을 보네”라는 시를 떠올리게 한다.

우수작 ① 『말랑말랑 예수님』과 ② 『해운대』 역시 뛰어난 작품이다. ①은 ‘말랑말랑한 예수님’이라는 제목부터 눈에 띄었다. 이 작품은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주제의 통일성에서 조금 산만해지고 말았다. ②는 해운대에 있는 교회에 오는 목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른 사람들은 놀기 위해, 먹기 위해, 해운대에 오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신나게 찬양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고 말한다. 다소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순수한 동심이 잘 나타나 있고 뚜렷한 주제의 통일성이 돋보인 작품이다.

고등부 운문 최우수 작품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는 1인칭 화

자가 ‘너’라는 대상을 예수로 치환하여 묘사한 작품이다. 너는 곧 친구인데 나는 나약하고 비겁하고 미워하고 의심하는 존재이지만 너는 내가 기쁠 때 가장 먼저 축하 해주고, 슬플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준다. 또한 너는 내가 의심할 때도 “항상 거기서 기다려 줄”뿐만 아니라 “계속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겠지 / 나 대신 피를 흘리겠지”라고 말한다. 나의 끝없는 부족함과 잘못과 부정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고 피 흘려 주는 친구는 곧 예수라는 것을 패러독스(모순) 적으로 보여주는 솜씨가 놀랍다.

우수 작품 『해운대』는 파도와 예수를 직유화 또는 은유화 하면서 감각적 이미지를 잘 살린 작품이다. 파도는 시각적으로도 바다에서 생동하는 가장 활발한 현상이지만 몸으로 느끼는 촉각적으로도 깨어나게 하는 움직임의 느끼게 한다. 그것을 작자는 예수를 파도로 은유하여 파도를 통해 예수를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일반부 운문 최우수 작품 『종탑』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완벽한 수작이다. 옛날 교회에서 울렸던 종소리의 아련하고 깊은 울림을 소환하고 있는 이 작품은 한편의 기도문이면서 문학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먼저 ‘종탑’이라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화자는 해운대 해리단길을 걸으며 “높이 세워진 건물들 사이로 / 보이는 낮선 종탑”을 바라보며 사유한다. “가게 앞 길게 늘어서서 / 불러 줄 번호표만 붙잡고 있는 이들, / 저 종탑이 보일까요?” 그렇다. 관광특구 해운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맛과 놀이를 위해 모이는

곳인데 가게 앞(맛집으로 보임)에 번호표를 들고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과연 그 종탑을 바라볼까, 종탑은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떠올리게 하는데, 사실 이 제목은 영국의 17세기 시인이며 신부였던 ‘존 던’의 기도문(시)에서 따온 것이다. 존 던의 시에 나오는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기에”라는 구절과 줄지어 서 있는 사람과 이 작품과 의미가 통한다고 할 것이다.

종은 새로움, 깨어남을 상징한다. 따라서 화자는 종탑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면 잡아주고 / 눈물을 흘리면 함께 울어주고 / 기쁜 소식에 더 크게 웃어 주는 / 그런 소리가 그림습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종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 내면의 자기반성적 사유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종의 울림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상징된 것이다. 또한 종은 ‘시작과 마침’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알린다는 것의 의미를 이 작품은 깊이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수작 『종탑』의 울림은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은유한 것으로 “이 길을 걷는 모든 이가 / 저 종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되어 / 이곳에서 쉬어가게 하소서”라는 기원은 마치 예수님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깊은 울음을 준다.

우수작 『대속의 바다』 또한 의미 있는 작품이다. 대속(代贖)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지거나 대신 속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희생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 작자는 그것을 가라앉는 것과 떠오르는 것으로 대비하여 예수를 부각시킨다. 즉 “내가 다시 일어남은 / 그

분이 가리았으셨기 때문이요”라고 고백한다.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간이 누리는 혜택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상징적 측면에서 돋보인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문부의 수필을 보자, 수필의 최우수 작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인이 된 아들에게』는 우선 간결한 문장과 탄탄한 문장 호흡 등 전체적으로 글쓰기의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작자는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존재한다는 철학적 사유를 보여준다. 또한 이 글에서 주목할 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다. 제목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성찰, 즉 크리스천의 태도와 실천을 함의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을 한다. 교회 안에서의 교인과 교회 밖의 교인은 다를 수도 있을까? 아니, 다를 수밖에 없을까? 이 작품은 그것을 묻고 있다.

주행 중 무리하게 내 앞을 끼어든 차를 향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로 소리를 치고 화를 낼 때,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서비스가 엉망일 때 나는 직원을 눌러 최대한 딱딱한 말투로 항의한다. 그럼 아이는 ‘엄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그게 또 억울하고 서운해서 변명한다. **“아들아, 기독교인이 호구는 아니잖아.** (강조 인용자) 나의 권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잘 방어했다고 으쓱거리는 나에게 아들은 ‘엄마 한 번쯤은 참아도 되잖아요. 조금은 더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랬다. 나는 교회에서처럼 좀 더 참을 수도, 친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나는 번번이 교인이 아닌 듯

살아간다. —본문 중에서—

교인 누구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교인적일 수 있다. 그런데 밖이 문제다, “호구가 아니잖아”라는 말은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곧 교인의 일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거창하지 않다. 작자는 엄마에게 “그래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라고 하는 아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다오. 그 평범함에는 주의 따뜻함이 녹아 있고 주의 뜨거운 열정이 실려 있으며 주의 정의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이 평범함이 너희를 더 깊은 주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해 준다. 평범은 내면의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엄마는 아들에게 그런 당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수작 「해운대교회를 기억하며」와 「까치밥」도 뛰어난 글이다. 앞의 작품은 해운대교회에 오게 된 경위와 해운대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받은 감동을 묘사한 글이다. 후자의 글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해운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회고담으로 누구에게나 공감이가는 글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속 생각을 타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된다. 글쓰기는 기도에 다름 아니다. 기도할 때 오로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글을 쓰는 태도는 가장 진지해

지게 마련이다. 인간은 몸과 정신(영혼)으로 살아간다. 몸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먹은 것을 또한 배설해야 한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양식을 먹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것을 배설해야 한다. 이 배설행위를 카타르시스 즉 정화라고 말한다. 따라서 글쓰기는 정신의 정화이며 배설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자기의 정신세계를 스스로 치유하는 자가치유의 행위인 것이다.

이번에 응모한 작품은 이런 모든 것을 말해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어느 심사보다도 보람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해운대교회 제88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성도들에게 감축드리며 뜻깊은 행사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해마다 교회 생일날 백일장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백일장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한다.

심사위원장 | 박정선(문학평론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고문)

심사위원 | 명인숙(수필가 겸 시인, 그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편집위원)

조현숙(시인,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편집위원)

교회주소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로 27-1 (48088)

전화 : 051-747-0091

- 일 시 : 2025년 10월 24일 오후 3시~5시
- 장 소 : 해운대교회 하늘정원(카페)
- 참석자 : 최병일 담임목사, 양윤형 편집장, 감윤옥 사무국장,
모정희 재무국장
- 정 리 : 양윤형 편집장



해운대교회 전경 사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학적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번 해운대교회에서 열린 기독교문학제는 이러한 목적 실현의 실천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문학제와 함께 개최한 기독교백일장을 통해 그동안 멈춰졌던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의 전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난히 덥고 지리했던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의미있는 백일장과 문학제를 우리 협회와 협력하여 성황리에 개최한 해운대교회의 역사와 사역, 그리고 복음 실천 활동에 대해 나누기 위해 해운대 해리단길을 찾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해운대교회는 100년 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한 선교사를 기념하여 1937년에 세운 선교사 기념예배당입니다. 그 분은 1912년 호주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 한국에 와서 25년을 한결같이 부산·경남 지역을 위해 사역한 예원배(A. C. Wright) 선교사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는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예원배 목사를 기리기 위해 해운대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기로 1936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구재화 조사(해운대교회 초대사역자)가 이 일을 맡아 1년 후 1937년 현재의 교회 자리에 예원배선교사기념예배당이 설립되었습니다.

교회 설립후 1년이 지난 1938년 6월 해운대교회에서 모인 경남

노회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가결함으로써 이후 가해진 교회에 대한 일제의 핍박과 더불어 해운대교회를 역사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해운대교회 인터뷰

아침에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인터뷰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치고, 가을의 고즈넉한 정취가 해리단길을 물들이고 있었다. 기독교 문학제가 해운대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도들의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쳐진 후, 복음의 문화와 이에 따른 영적 부흥이 더욱 출렁임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특히 송정우 회장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이기에 더욱 궁금증이 일었다. 싱싱한 굴과 커피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는 목사님의 환한 미소가 긴장한 마음을 한결 풀어주었고, 편안한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졌다.



해운대교회 최병일 목사님

선교의 전초기지, 해운대교회의 설립 정신

편집장: 해운대교회는 1937년에 설립된 부산 지역 역사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해운대교회의 설립 정신과 함께 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교회역사관에서

최병일 목사: 해운대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처음 뿌려진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 예원배 목사(Rev. A. C. Wright)님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로, 그분이 남긴 선교의 열정과 순수한 복음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바로 “어떤 시대에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신사참배 거부의 역사

편집장: 1938년, 해운대교회가 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한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한국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니다.

최병일 목사: 그렇습니다. 당시 일제의 압박 아래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례로 포장됐지만, 신앙 양심을 가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해운대교회는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의는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일깨워 줍니다. 해운대교회의 신앙 DNA는 바로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목회자로, 최병일 목사의 부임과 교회 변화

편집장: 목사님께서 2003년 부임하신 이후,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일 목사: 사실 저는 대학가요제 초창기 수상자입니다. 그렇게 세상적 일로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련과 훈련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로 부임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교회는 전통적으로 저녁예배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예배와 훈련이 분리된 구조로는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예배를 오후 3시 예배로 바꾸고, 예배 이후에 소그룹 훈련과 교제의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졌다면, 이제는 ‘말씀 - 교제 - 성숙’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소그룹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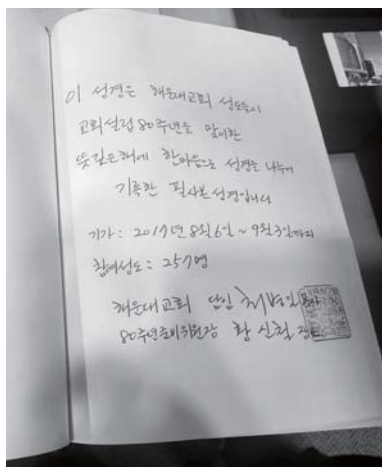
편집장: 현재 해운대교회에는 다양한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병일 목사: 맞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성경공부와 노방전도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QT반, 성경읽기반, 암송반, 제자훈련반, 오카리나반 등 8개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앙 훈련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예배 중심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복음이 지역사회 사랑과 섬김의 사역으로

편집장: 지역사회 섬김도 눈에 띄는데요, 장학사업과 사랑의 쌀 나누기, 무료급식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일 목사: 그건 해운대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6·25 피란 시절에도 성도들이 움막을 지어 피란민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필사본

해마다 봄·가을에는 장학현금을 모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성탄절에는 ‘사랑의 쌀 나누기’로 어려운 이웃을 섬깁니다.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복음이 지역의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100주년을 향한 신앙의 리모델링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

편집장: 교회가 곧 10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준비는 어떤 방향입니까?

최병일 목사: 지금은 ‘100년을 향한 신앙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과 주차장 확충 공사도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터전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해운대교회는 “항구의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 즉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선교와 젊은 세대 양육에 힘쓰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제가 조기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을 청빙하여 해운대교회가 젊은 피로 부흥하여 21세기 새로운 비전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복음의 종소리, 해운대를 깨우다

편집장: 정말 은혜롭고 획기적인 결단이십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종이 보이던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일 목사: 그 종은 해운대교회가 설립된 1937년에 대구남성주물공업사에서 주문 제작되었으며, 시계가 귀하던 시절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 타종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해운대를 최초로 깨우는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종탑

입니다. 지금은 타종을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요. 돌아보면 정말 아름다운 타종의 시간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는 예원배 선교사 기념관 안의 교회 역사관을 함께 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계보를 잇는 예원배 선교사 기념관

최병일 목사: 교회 역사관에는 초창기 영남선교의 주역인 예원배 (Albert C. Wright, 1880 - 1971) 선교사의 헌신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복음과 교육, 의료 선교를 병행하였고, 그의 사역은 단순한 선교활동을 넘어 한국인의 삶 속으로 들어간 인격적 사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교회는 이러한 초기 선교의 흐름 속에서 뿌리를 두고 성장했습니다. 해운대 지역의 작은 예배처소로 시작해, 해방과 전쟁, 도시개발의 격동기를 지나며 오늘의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성전 벽돌

교회 역사관은 이 과정을 “선교사의 발자취 - 교회 설립 - 지역사회 섬김 - 세계선교 확장”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변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진 신앙의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세워진 벽돌부터 그 당시 성경까지 아주 세밀하고 정성을 다해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신 송정우 회장님의 발품 노고가 컸습니다.

현재 해운대교회는 예배와 교육, 선교, 지역봉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예월배 선교사의 헌신은 교회 역사관 안에서 단순한 인물 기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생애”의 표본으로 제시됩니다. 그가 남긴 복음의 씨앗은 오늘의 해운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열매 맺고 있으며, 교회는 이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구의 빛처럼 꺼지지 않는 신앙

편집장: 마지막으로, 해운대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최병일 목사: 우리 교회는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바다는 늘 변하지만, 바다를 품은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운대교회도 시대는 변하지만, 복음의 하늘 아래에서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구의 빛’처럼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편집장: 긴 시간 동안 진솔한 답변과 은혜로운 해운대교회 역사를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만남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모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운대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운대교회



호주장로교 소속의 예원배(A.C.Wright) 선교사가 1912년 입국하여 30여년 동안 부산 경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선교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사역을 기리기 위하여 경남노회가 총회의 인준을 받아 1937년에 세운 선교사 기념 예배당입니다.

1938년 6월 해운대교회에서 모인 경남노회가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가결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받아

100명
선교사님
후원

100개
미자립교회
지원

100개
가정 구제하는
교회

사랑으로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후원
31개국


미자립교회 지원
30교회


어려운 가정 구제
27가정


매주 실버대학 운영
4월~6월
/9월~11월


매월 마지막 금요일
무료급식


다음세대 장학금
(출생, 유아세례,
입학, 모범)


우동 부녀회와 협력
(사회봉사,
김장나누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사회봉사

작품평

부산크리스천문학 2025년 상반기 43호에서

〈시평〉

변종환 | 이 아침의 축복을 위하여

〈아동문학〉

남 순 | 비유와 패러다임

Christian Literature 2025

이 아침의 축복을 위하여!

변 중 환

“사람이건, 사물이건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중략…) 칸트가 말한 의미대로 이해의 문제이다.”라는 구절을 읽었다.(카를 브루너 지음, 라영균 옮김, 『미란 무엇인가』) 이 구절에 밑줄을 그으면서 나는 곧장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문장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되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해의 문제’라는 관점은 오랫동안 아름다움이란 파랑새를 찾아 헤맸던 날들을 돌아보게 했고, 그 파랑새라는 절대적인 대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변중환 |



-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 · 한국바다문화회 회장 · (재)부산진문화재단 이사 ·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 국제PEN부산지역위원회 고문
- 부산광역시문인협회 제16대 회장 · 부산시인협회 제10대 회장 · 한국문인협회 이사 ·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 부산예총 감사 등 역임
- 시집 『水平線 너머』(1967·親學社) 『우리 어촌계장 박씨』(2002· 다충), 『松川 뚝에서 쓴 편지』(2015· 두손کم), 『겨울 운주사에서』(2020· 두손کم), 『멀리서 오는 것들』(2023· 두손کم) 등 9권, 산문집 『釜山詩文學史』, 『餘滴』 등 4권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이란 이해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나아가 세상 모든 일들이 이해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데에 생각이 이르렀다. 아름다움을 비롯해 세상 모든 일이 마음에 달렸다는 오래된 논리를 낫설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시의 절대적 기준을 도모하는 일이 얼마나 무용한지 되묻게 되었다. 좋은 시라고 알려진 작품 가운데 스스로 빛나는 작품이 과연 얼마나 되었던가. 어떠한 후광도 없이 홀로 빛을 내는 작품보다는 권력과 권위에 기대어 반짝였던 작품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좋은 시라고 등 떠밀리듯 무대에 올랐다가 독자들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퇴장한 작품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펼쳐지는 갖가지 축제의 잔해처럼 시대의 바람에 떠밀려갔지 않은가.

참으로 고마운 인연으로 《부산 크리스천문학》 2025년 상반기 제43호에 실린 회원 시 작품에 대한 해설 원고청탁을 받았다. 같은 부산지역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온 문단의 동료에 대한 시평이라기보다는 좋은 책에 실린 훌륭한 작품들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느낌을 옮겨보기로 했다. 지면관계로 몇 작품에 한정됨을 해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비록 외래종교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한국문화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더 이상 외래종교로 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친근해졌다. 한국 현대시에서도 기독교의 강력한 영향력을 찾아 볼 수 있다. 기독교는 문화적 위화감으로 인하여 1930년대에 와서야 정지용에 의해 한국 현대시에 뒤늦게 정착되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한국현대시에 깊고 넓게 스며들어 하나의 정신 사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현대시사에서 기독교를 수용한 시인으로는 정지용, 윤동주, 박두진, 박목월, 김현승, 구상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와 한국현대시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이들 특정 시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기독교와 관련된 이들 시인의 시적 세계에 관한 연구는 미학적인 차원보다는 기독교 사상을 밝히는 데에 치우쳐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상과 미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영향권에 놓인 다양한 시인들의 시적 사유와 상상의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부산 크리스천문학》 2025년 상반기 제43호에 실린 스물여덟 분 시인의 작품 가운데 다섯 분의 작품을 살펴보자.

기독교 시(Christian poetry)는 기독교적 교훈, 주제, 그리고 기독교적 문헌을 포함하고 있는 시를 말한다. 기독교가 시에 영향을 준 것은 기독교와 관련 있는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다. 기독교 시는 직접적으로 성경과 관련되기도 하고 알레고리로 사용되기도 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노래하는 ‘신정시’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하여 예원하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하다.

바다에 파도가 친다는 것은

그 속에도 어둠이 산 채로 고통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회오리바람으로 뒤집어 엎어 버린 그 속에는

퇴적 되어온 원망이 내려가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같이 떠나네

미어지는 아픈 가슴을 가져 보았는가
속이 깊지 못해 늘 안고 살았던 근심 걱정이
친구처럼 내 가슴에서 마음껏 노는 모습을 보았는가
희망은 곱이 잘 진 지붕에서 빗물, 눈물로 다 씻겨가고
내 몸에서도 곱이 파여 피를 흘리고

이제는 아무 말 말고 기다리자
지나가는 눈물 바람이라도 잡지 마라
지쳐서 땅을 파고 올라올 힘이 없더라도
한 줄기 피어오를 잎새에 못 박지 말자

풀잎 하나 떨림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꽃을 피워 내는 하늘의 푸름이 태양을 올려
사뿐히 걸어가는 것을 보면

날아 올라라
순간순간마다 멧힌 마음
모질게 붙어있던 숨은 죄
이제는 꽃처럼 피어서 올라간 하얀 치마처럼
내 속에 숨겨둔 사랑으로
요동치는 가슴에서 끄집어내어 날아오르자
다시 뜨거워지자, 새봄을 위해

— 광병길, 『부활』 전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고, 3일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은 그

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은혜시대의 사역이 인류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게 하였다.

인용시 『부활』은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과 생명체를 시화하여 ‘부활’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날아 올라라/ 순간순간마다 뻗힌 마음/ 모질게 붙어있던 숨은 죄/
이제는 꽃처럼 피어서 올라간 하얀 치마처럼/ 내 속에 숨겨둔 사랑으로/
요동치는 가슴에서 끄집어내어 날아오르자/ 다시 뜨거워지자, 새 봄을 위해’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그리고 제가 그 의를 믿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는 하늘 같아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지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보여 주십시오 아멘”

전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 부친다
수은등 가로등 불빛에
영글지 못한 내 모습이 수전증 앓는 바람잡이가 되어
시간 속 여린 통증으로 남는다
내가 가는 길에 가득했던 텃과 구멍이
함정 그물이 어리석고 무가치한 나를 가두고
떨어져야 하는 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나

오늘도 가을 산을 향하여
향기 건져 올리니 이 아니 은혜가 아니리오
세상은 말라가고 궁한 내 오늘의 오아시스인가 그대는
어깨에 걸친 새벽에 하나님 빛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 이름 천로 역정이어

- 김경희, 『천로역정』 전문

『천로역정』은 영국의 작가 버니언(Bunyan, J.)이 지은 종교적 우의 소설이다. 어느 신자^{信者}의 신앙 과정을 고난에 가득 찬 순례 여행에 비유하여 묘사한 것으로, 제1부는 1678년에, 제2부는 1684년에 간행되었다. 신자의 인생역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작품은 한때 성서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

한 그리스도교도가 파멸의 도시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제1부는 꿈으로 나타난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 제1부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속성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수하면서도 위엄 있는 성서문체로 쓰여진 이 작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민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세상물정에 밝은 이(Wiseman), 신앙심이 깊은 이(Faithful), 전도유망한 젊은이(Hopeful), 고분고분한 이(Pliant), 고집이 센 이(Obstinate)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와 유머는 18세기의 소설을 예견하게 한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세기의 베스트셀러, 존 버니언의 소설은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천로역정의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도 가을 산을 향하여/ 순수 향기 건져 올리니 이 아니 은혜가
아니리오/ 세상은 말라가고 궁한 내 오늘의 오아시스인가 그대는/ 어
깨에 걸친 새벽에 하나님 빛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 이름 천로 역정
이여’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
다는 뜻인데 종교인들에게는 귀감이 된다. 아니, 종교인뿐만 아니
라 나라를 다스림도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믿음은 이토
록 우리에게 소중한 말이며 언행의 근본이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결국 자
기 온 생애로 그를 드러내는 천로역정. 사람은 누구나 바로 그 역
정 위에, 누군가 저지를 크나큰 실수의 시간 위에 서 있게 마련이
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긋남과 착오조차 경이롭게 사용하신다.
역사의 실수는 은혜의 무대가 되고, 존재의 허무는 영원의 통로가
된다.

그리하여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니

나직이
속삭이네

그대 살 때어
내 안에 있어

내 피 뽑아

네 혈관 속으로
흐르고 있나니

마침내
먹고 마시는
생명의 뿌리

영원한 언약
그칠 줄 모르리

- 류정희, 「성 금요일에 쓴 시」-성찬식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가리키는 절기다. 고난주간 중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른다. 성금요일은 부활절 직전 금요일로 예수님이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날이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절에 그의 부활을 기념하는 핵심적인 사건이 이 기간에 일어난다. 교회에서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다양한 예식을 행한다. 고난주간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을 넘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에 깊이 동참하는 시간이다.

성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으로 이 날의 ‘좋은’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한 희생이었음을 의미한다.

‘내 피 뽑아/ 네 혈관 속으로/ 흐르고 있나니// 마침내/ 먹고 마시는/
생명의 뿌리// 영원한 언약/ 그칠 줄 모르리’

개들은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미들은 맨땅에 떨어진 꽃잎을 훑는다

허공을 향해 까악까악 하는 까마귀
동백 꿀을 흡친 동박새가 수다를 떠다
찌지리 찌지리

큰잎 벌려 햇빛을 받는 떡갈나무 아래
땅딸나무 흘러내린 빛 방울방울 줍는다

아, 해안가 고층 숲 먹그늘에도
수면이 나누어주는 빛이 스민다

— 송정우, 『은혜』 전문

위의 인용 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신선한 공기를 비롯하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시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속사적인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길 약속해야 한다.

‘큰잎 벌려 햇빛을 받는 떡갈나무 아래/ 땅딸나무 흘러내린 빛 방울
방울 줍는다// 아, 해안가 고층 숲 먹그늘에도/ 수면이 나누어주는 빛

이 스민다'

내가 살던 옛집 앞을 지날 때
담벼락에 올라 목젓을 드러내고
잘살고 있다고 손짓하는 능소화

그래 반갑다
오가며 너를 보려고
햇살을 가르고 대문 앞에 묻어 둔 지가
몇 해더냐

이사 가는 날 칭얼칭얼
따라갈래 따라갈래 앞장서며
덩굴 넝쿨 늘어지더니
염천에 보름달 같은 얼굴을 하고 반기누나

그래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란다

— 양윤형, 『안부』 전문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기별’ ‘안부’와 같은 단어들은 각각 독특한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부’는 ‘안녕하십니까’의 줄임말로, 누군가의 건강이나 안전, 근황 등을 묻는 말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예의이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

세요?” “건강히 잘 계시죠?” 누군가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하고 묻는 마음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낸다. 제3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시인은 ‘내가 살던 옛집 앞을 지날 때/ 담벼락에 올라 목젓을 드러내고/ 잘살고 있다고 손짓하는 능소화’를 바라본다. ‘오가며 너를 보려고/ 햇살을 가르고 대문 앞에 묻어 둔 지가’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젠 천연덕스럽게 살아가는 가족 같은 그 꽃이 자랑스럽다.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것 혹은 정주하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명상하거나 바라본다는 것은 어쨌든 평범하지 않은 발상과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임에 틀림이 없다. ‘길 위에서 있음’으로서 인간은 비로소 새로운 자아의 확장과 세상 속의 자아가 겪을 숙명을 자각한다. 시인에게 현재성이란 새롭게 구축될 기억이 아니라 쌓인 과거, 기억을 재음미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이다. 새로운 것보다는 기억해야 할 것이 더 많은 나이, 그래서 새로움의 감각보다는 묵은 것 속에 담긴 ‘오래된 새로움’을 탐구하는 나이가 바로 시인이 거처하는 세대적인 현주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물들며 살아가는’ 안부가 정답고 또한 그렇다.

문우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왕성한 문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유와 패러다임

남 순

1

부산 크리스찬문학 제43호에 실린 아동문학 장르에 동시와 동화가 실렸다. 동시에 박경영의 「하늘 비행기 처음 타던 날」, 「시험은 정말정말 싫어요」와 이들자의 「동백나무 식탁」, 「초대장」 등 4편이다. 동화에 김복임의 「산을 넘어온 도롱뇽」, 남순의 「열매의 연극」, 이효정의 「가방의 무게」, 정현옥의 「두꺼비의 눈빛」 등 4편이다. 여태껏 부산 크리스찬문학에 아동문학 작품이 이처럼 많이



| 남순 |

- 2004년 《아동문예》 동화, 2013년 《문학예술》 시 등단
- 동요작사가, (현)국립부경대학교 미래교육원 <그림동화&창작동화> 전임
- 제6회 남제문학 작가상, 제21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
- 동화집 『무지개나라 화가아저씨』, 『물고기 아파트』, 『꿈꾸는 장어』
- 그림동화(공저) : 『빨강 연필』, 『네가 딱이야』, 『잡기 놀이』, 『젓가락 행진』
- 평론 『현대 동화문학 작품론』-『정성란 장편동화의 특성』

실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시를 비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를 원관념이라 하고, 원관념에 비유되는 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원관념은 나타내지 않고, 보조관념만 표면에 나타내어 유추하면 은유가 된다. 그래서 은유는 암시적이다. 독자들은 시를 읽을 때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헤아리려 한다.

비유법에서 스탠포드(W. B. Stanford)의 정의를 빼놓을 수 없다. 문장에서 하나의 낱말(X)을 특수하게 사용하는 과정과 결과를 비유라고 하고, 그 낱말(X)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A라는 대상을 뜻하지만, 특수한 문맥에 있어서 B라는 대상을 뜻하기도 한다. A와 B는 성질상 구별되는 대상이지만, 그들이 합하여 하나의 복합적인 의미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X(낱말)이다. A와 B는 X(낱말)속에서 서로 융합하면서 A요소와 B요소는 각각 개념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패러다임은 작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에 먼저 당대의 사회적·역사적·경제적·정치적인 요소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써야 한다. 바른 인식은 곧 자신의 세계관이 되어 작품에 용해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배제하고 글을 창작한다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또한 허공에 지은 집이 될 것이다. 허공에 지은 집에 사람이 살 수 없듯이 패러다임이 없는 작품은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문학성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로 잘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당대의 패러다임을 바르게 인식하여 문학성 높은 작품을 창작해야 된다.

동시는 지면 관계상 한 작가에 한 편씩만 훑아보겠다.

박경영의 『하늘 비행기 처음 타던 날』에서 시적 화자(아동)는 누나와 함께 비행기를 처음 타고 십리사탕을 입에 물고 제주도로 간다. 십리사탕이 녹지 않았는데 벌써 제주도에 닿았다. 십리사탕은 십리를 가는 동안 녹지 않는다는 옛날사탕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제주도를 호수의 청솔방울에 비유하였다. 작품 속 비유를 살펴보자.

우!~와~~~~/ 하늘 속에/ 또 하늘이 있네//
 십리사탕 알사탕은/ 입안에서 둥글둥글/ 아직도 동그란데/ 벌써 제
 주도는/ 동~동~동~동~/ 호수의 청솔방울//
 그날/ 하늘 처음 날던 날/ 누나는 과학으로 수학으로/ 친절하게 설
 명했지만//
 나의 눈 머리 마음은/ 걸리버가 되었네/ 걸리버처럼 신기하네~//

— 박경영 『하늘 비행기 처음 타던 날』 전문

위의 동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는 제주도로 가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제주도를 시적 화자는 ‘호수의 청솔방울’에 비유하였다. 이때 제주도는 원관념이고 호수의 청솔방울은 보조관념이다. 더 나아가 ‘호수’는 제주도 바다를 비유한 것이고, ‘청솔방울’이 제주도를 비유한 것이다. 또 시적 화자는 자신의 눈과 머리 마음을 ‘걸리버’에 비유하였다. 이 작품을 스탠포드의 정

의로 해석해 보면 ‘제주도’는 A이고 ‘호수 청솔방울’은 B이고, 또 눈과 머리 마음은 A이고, 걸리버는 B인 것이다. 이 동시에서 비유는 A(제주도)와 B(청솔방울)가 X(날말) 속에서 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의 『초대장』에서 시적 화자(아동)는 하나님께서 하루만 자신의 집에 오셨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있다. 작품 속 비유를 살펴보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가만히 옆에 있어야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살짝 만져봐야지/ 조용히 식사기도 들으며/ 제일 먼저 무슨 음식 드시는지/ 남기지 않고 밥은 다 드시는지 봐야지/ 아픈 아빠는 어떻게 대하는지/ 간호하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지/ 외출할 때도 따라가야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표정 짓는지/ 타고 내리는 사람들과 인사하는지도 봐야지/ 전화 받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목소리도 들어야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알아볼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하나님/ 하루만 우리 집에 오세요/ 소문내지 않을게요

— 이들과 『초대장』 전문

위의 동시에서 원관념 A는 하나님이다. 보조관념은 전체 내용에 나타난 ‘옷, 식사기도, 음식, 아픈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 간호하는 엄마에게 위로하는 말, 표정, 인사, 하나님의 말, 목소리’ 등이다.

좀 더 내면을 살펴보면, 화자의 집에는 아픈 아빠가 계신다. 집안의 어른인 가장의 아픔이 가족에게 전이되어 가족 모두의 아픔이 느껴진다. 엄마는 아빠를 간호하느라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

무 일도 못할 것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아버지를 치료하고,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아이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다. 천진난만한 아이는 소문내지 않을 테니 ‘하루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나님은 인격체(지성·의지·감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천진한 아이(시적 화자)는 자신의 집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동시에서 비유는 A(하나님)와 B(옷, 밥, 말 등)가 X(날말) 속에서 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박경영의 「하늘 비행기 처음 타던 날」과 이돌자의 「초대장」은 동시이므로 시와 다르게 작품에 동심이 내재되어 있다. 문장의 결이 곱고 비단처럼 부드럽다. 태초의 마음(동심)이 독자들에게 빛으로 스며들어 탁한 세상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3

김복임의 「산을 넘어온 도롱뇽」은 엄광산 아래 작은 웅덩이에 살던 도롱뇽들이 산을 넘어 새 터전을 일구며 살아간다. 도롱뇽들은 그 곳에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짓게 되어 떠나게 된다. 인간들의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도롱뇽들이 떠나게 된 것이다. 터전을 빼앗기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는 여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산을 넘기 위하여 아버지가 숲을 헤치고 나아간다. 산을 넘는 일은 명과 피를 남기는 험난한 일이다. 결국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아 엄광산 남쪽

으로 가게 된다. 시련이 지났는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를 따라 엄광산에 온 창대는 도롱뇽 새끼를 키우고 싶어 한다. 결국 할머니는 손자를 이기지 못하고 도롱뇽 새끼를 창대에게 주게 된다. 창대가 엄마를 보고 싶어 서울로 가고 나서야 도롱뇽은 다시 옹달샘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인식한 패러다임은 못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의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산을 넘었는데, 다시 창대의 이기심에 부딪혔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이기심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주며 살아간다. 작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세상 모든 생명들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사랑은 곧 나를 살리는 길ियो, 우리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남순의 「열매의 연극」에서는 손녀가 치매 할머니에게 연극을 보여주고 싶어 요양원으로 이끌기 위해 연극을 한다. 치매 할머니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난을 왔고, 아들마저 나라에 바친 역사적인 인물이다. 아들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다가 치매에 걸린 것이다.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매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찍 와서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 할머니의 치매는 중증 치매 환자가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착한 열매는 할머니의 고향 말을 따라하며 증조할머니의 낡은 사진을 보고 분장을 한다.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하고, 할머니의 옷을 입고, 연극을 한 것이다. 열매

가 중학교에 가면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 요양원에 계시는 지우 할머니 이야기도 해준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오면 밥을 차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매는 연극으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가기 전에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할머니는 열매의 연극으로 요양원으로 가게 된다.

이 작품의 패러다임은 역사성이다. 두 가지의 사건 중 하나는 한국전쟁이고, 하나는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아들이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특히,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릇 네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열매 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마음이 무너졌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할머니는 깜박거리는 치매에 걸려 판단능력을 잃었다. 할머니의 정신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어릴 적 고향 뒷산에서 참꽃을 따던 때를 떠올린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이며 보호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할머니의 무의식 속 유년시절은 전쟁이 없고 이별이 없는 세계였다. 역사성 짙은 패러다임을 독자가 읽어내기를 바란다.

이효정의 『가방의 무게』에서 주원의 가방은 늘 무겁다. 그 이유는 방과 후, 학원을 네 군데나 다녀야하기 때문이다. 선재는 생일에 PC방 무료쿠폰을 받았다고 주원에게 같이 놀자고 한다. 하지만 주원은 갈등을 한다. 선재가 원진이를 보고 알은 체를 하려고 할 때, 주원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선재의 팔을 붙잡았다. 주원은 PC방에서 선재에게 게임을 지고, 엄마의 화난 열

굴을 떠올랐다. 선재와 라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주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경찰이었다. 엄마는 주원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를 하였다. 경찰서에 간 주원은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보았다. 부재중 전화와 카톡이 몇 십 개 와 있었다. 엄마가 경찰서에 오고 주원은 집으로 돌아갔다. 야단을 맞으며 주원도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다. 단 한번도 자신이 좋아서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자신의 가방이 어깨에 매달린 족쇄 같다며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엄마는 주원이가 잘되기를 바래서 그랬다고 한다. 주원은 가방에 든 책들을 식탁 위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은 토요일, 엄마는 주원의 빈 가방에 김밥과 과자를 넣고 소풍을 가자고 하였다. 주원의 가방이 가벼워졌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를 꼬집고 있다. 어린이들은 학업에 시달려 가방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작가는 그것을 인식하고 작품에 녹여낸 것이다. 현재 학생들의 스케줄은 어른들보다 더 바쁘다. 학교 수업은 물론 학원 수업도 다 해내야 한다. 자식이 뒤처질까봐 엄마들은 허리띠를 졸라맨다. 자식의 앞날을 학원에 의지한 것이다. 주원은 엄마의 강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다가, PC방 사건으로 내재되어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능동적으로 변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엄마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작가는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학생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어 주원을 능동적인 학생으로 창작하였다. 이것은 주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을 바꾸고 싶은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가방이 정말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정현옥의 「두꺼비의 눈빛」은 봄맞이로 아빠와 솔이가 뒷밭을 일구게 된다. 아빠의 쇠스랑에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는 강제로 눈을 뜨게 되었다. 두꺼비는 놀라 숨어버렸다. 솔이는 두꺼비를 찾아 다닌다. 하지만 두꺼비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머리를 밀며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빠는 미안한 마음에 낙엽을 덮어주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솔이는 꿈에 두꺼비가 눈을 자꾸 비비는 모습을 보았다. 봄바람이 흙이불을 걷어낼 즈음 두꺼비가 땅에서 나왔다. 두꺼비의 눈빛이 안개처럼 뿌옇다. 아빠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 작품에서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가 잠에서 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실수로 깨게 되었다. 그 결과로 시력을 잃게 된다. 작은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두꺼비 입장에서는 삶을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 어찌 두꺼비만 그렇겠는가? 모든 일에는 시와 때가 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미리 해주는 부모들을 보게 된다. 넘어져도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학습이 되어 나중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이 동화의 두꺼비처럼 미리 손을 써 시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한 발 물러나 기다려주는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자.

그것이 어른으로서 해야 할 책무이지 않겠는가.

4

동시 두 편에서는 동심이 여실히 녹아 있었다. 동심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생긴 마음이다. 동심은 본심이고 천심이다. 본심은 거짓이 없는 진심이다. 천심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음이다. 이 마음이 잘 비유되어 있었다.

동화에서 작가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작품에 인식의 체계를 세웠다.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문학적 성 있는 작품을 빚지 못한다. 작가는 사회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적 노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작가정신을 바로 세우고 깨어 있어야 한다. 네 작품 모두 현실을 잘 반영해 주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마태복음 18장 3절)고 하였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마음이,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아동문학이 아직도 어린이나 읽는 장르로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올해의 작가

감남윤옥 | 기도 외 4편
작품평

Christian Literature 2025

기도 외 4편

감#윤 옥

여름의 긴 터널
번뇌를 머리에 이고

무지함으로
오만하거나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사람을 품으며
때문지 않는 순결의 언어로
눈송이같은 언어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입김이
손 끝에 닿을 때마다

당신의 연필이 되어
상처를 싸매는 언어로
숙성된 언어로
당신의 전령사가 되게 하소서



| 감윤옥 |

- 2009년 《기독교문예》 시 등단
- 중·고등학교 교사역임, 수영로교회 은퇴전도사
- 부산여류시인협회부회장, 부산시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사무국장
- 유튜브 〈인생의 길동무〉 운영
- 저서 『그 숲에 가면 1』 『그 숲에 가면 2』

감#윤옥의 시 『기도』는 종교적 기도문의 형식을 차용하면서 언어를 통해 존재의 정화를 추구하는 서정적 영성시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신에게 바치는 찬양이기보다는 시인 자신의 내면적 언어 윤리를 성찰하는 수행의 과정으로 읽힌다.

현대시가 종종 감각적 실험과 현실 비판에 치우치는 경향 속에서 감#윤옥은 언어의 순결함과 정신의 겸허함을 강조함으로써 ‘말의 윤리학’(ethics of language)을 제시한다.

본 비평은 『기도』를 언어와 신성 그리고 시적 윤리의 관계망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감#윤옥 시세계가 지향하는 ‘영혼의 정화와 언어의 구원’이라는 미학적 좌표를 밝히고자 한다.

시의 첫 구절 “여름의 긴 터널 / 번뇌를 머리에 이고”는 시간적 배경이면서 동시에 실존적 은유이다. ‘여름’은 인간의 욕망과 번뇌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며 ‘터널’은 그로부터의 통과와 정화를 상징한다. 화자는 열기와 어둠이 교차하는 긴 계절의 통로 속에서, 존재의 무거움을 ‘머리에 이고’ 나아가는 수행적 자아로 나타난다. 이는 곧 시의 전반부가 기도의 서두로서 ‘고통의 자각’을 전제한 영적 출발임을 보여준다.

“무지함으로 / 오만하거나 /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간구는 단순한 종교적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언어의 오만함에 대한 자각이다.

감윤옥은 언어가 타인을 상처입히고 세속적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인식한다. 따라서 시적 기도는 ‘신에게 구함’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정화하는 윤리적 실천이 된다.

“때문지 않는 순결의 언어로 / 눈송이같은 언어로 /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에서 ‘눈송이’는 청결·순백·소멸의 상징이다. 눈송이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힌다. 이는 시인이 지향하는 ‘언어의 순간적 순결’ 즉 언어가 영원함보다 진실함으로 빛나야 한다는 미학적 신념을 표현한다.

후반부 “당신의 입김이 / 손 끝에 닿을 때마다”에서 시적 화자는 신의 존재를 초월적 대상이 아닌 창조적 호흡의 원천으로 체험한다. 입김은 곧 영감이며, 손끝은 글을 쓰는 행위의 자리이다. 이 구절은 신의 영감이 시인의 창작 행위에 내재함을 보여주며 시 쓰기가 곧 기도의 또 다른 형식임을 드러낸다.

감(甘)윤옥의 『기도』는 언어를 통한 ‘창조의 재현’이며 신의 숨결이 인간의 언어로 옮겨지는 성스러운 순간이다.

마지막 연 “당신의 연필이 되어 / 상처를 싸매는 언어로 / 숙성된 언어로 / 당신의 전령사가 되게 하소서”는 시 전체의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여기서 ‘연필’은 창조의 도구이자 신의 뜻을 기록하는 매개체이며 시인은 자신을 ‘당신의 전령사’로 규정함으로써 언어의 봉사자가 된다.

‘숙성된 언어’는 시간의 퇴적과 고통의 경험을 내면화한 말이다. 감윤옥은 즉흥적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는 성숙한 언어의 윤리를 강조한다. 이는 현대 시인이 감당해

야 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 자각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감윤옥 시세계의 핵심을 압축한 작품으로 신앙의 언어를 넘어 시의 윤리적 본질을 탐색한다. 시적 화자는 신에게 구원받기보다 스스로의 언어를 정화함으로써 신성에 접근한다. 따라서 이 시의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언어의 구원론적 자기수행’이다.

감윤옥은 “눈송이같은 언어”, “숙성된 언어”라는 두 상징을 통해 시의 출발과 귀결을 제시한다. 전자는 순결과 진실의 시작을, 후자는 숙성된 성찰과 치유의 완결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인은 언어를 신앙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상처를 싸매는 윤리적 실천의 장으로 확장한다.

결국 『기도』는 현대 영성시가 가질 수 있는 한 모범으로서 인간 내면의 번뇌를 언어의 정화 과정을 통해 승화시킨 작품이다. 또한 감윤옥의 『기도』는 신에게 바치는 찬송이자 언어에게 바치는 서약이며 그 속에서 시는 다시금 ‘말의 순결을 통한 인간 회복’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되찾고 있다.

새벽닭 울자

검은 밤
무심한 듯
결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
새벽닭 울자
모래를 씹으며
황망히 도망가다
젖은 담벼락에
바람처럼 기대어
한 줌의 눈물을 만지작거리며

절망의 끝으로 걸어간다.

새벽닭 울자

-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여명

감^ㅈ윤옥의 시 세계에는 또한 언제나 ‘빛과 어둠’의 경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의 변주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윤리적 지층과 맞닿아 있다. 시 『새벽닭 울자』는 그 경계의 순간을 통해 인간이 자기 존재의 근원과 마주서는 시간을 정교하게 포착한다. 시의 첫머리 “검은 밤 / 무심한 듯 / 결불 곁에 앉아 있는 / 베드로”는 독자를 곧장 정적의 공간으로 이끈다. ‘검은 밤’은 신으로부터의 단절 혹은 믿음이 흔들리는 인간의 무의식적 영역을 상징한다. ‘결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는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가까이 두고 있지만 그 빛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있는 존재이다.

이 첫 장면에서 시인은 베드로를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하는 보편적 인물로 재해석한다. 감윤옥은 성서의 장면을 단순히 인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신앙의 세계를 일상의 정서로 옮겨와 인간의 ‘무심함’ 속에 잠든 도덕적 불안과 자각의 순간을 응시한다. 결불의 온기와 밤의 냉기가 교차하는 그 순간 시의 주제적 긴장이 발생한다.

“새벽닭 울자 / 모래를 씹으며 / 황망히 도망가다” 이 구절은 시 전체의 축을 이루는 장면이다.

여기서 새벽닭은 시간의 이정표이자 죄의식의 각성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다. 새벽닭이 운다는 것은 ‘부인^{否認}의 시간’이 끝났음을 그리고 ‘자기 인식의 시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모래를 씹는다’는 표현은 감윤옥 시의 탁월한 시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모래는 땅의 잔해이며 생명을 지탱하지 못하는 물질이다. 그것을 씹는 행위는 죄의식이 인간의 몸으로 침투하는 감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베드로는 말로 부정한 죄를 이제 육체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언어는 상징의 차원을 넘어 감각의 윤리로 작동한다. 죄는 개념이 아니라 혀와 목을 메이게 하는 촉각으로 다가온다. 시인은 이처럼 고통의 내면화를 통해 신앙적 서사를 인간의 실존적 체험으로 전환시킨다.

베드로가 ‘황망히 도망가다’라는 표현 속에 담긴 시간의 급박함은 단지 사건의 서두름이 아니라 양심이 자신을 추적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그는 신을 떠나 도망치지만 그 도망은 결국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길이다.

시의 후반부는 감윤옥 특유의 절제된 서정이 가장 빛나는 대목이다. “젖은 담벼락에 / 바람처럼 기대어 / 한 줌의 눈물을 만지작거리며 / 절망의 끝으로 걸어간다.”

‘젖은 담벼락’은 회한과 후회의 경계이다. 벽은 닫힌 세계의 상징이지만 ‘젖은’ 상태는 그 단단한 벽이 이미 스스로의 경계를 흘러보내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절망의 표면에 미세한 구원의 틈이 생긴 것이다.

베드로는 그 벽에 ‘바람처럼 기대어’ 있다. 이 표현은 인간 존재의 덧없음과 동시에 그 덧없음 속에서만 가능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준다. ‘바람처럼’은 무게를 잃은 존재의 이미지이지만, 그 가벼움 속에 오히려 진정한 진심이 있다.

‘한 줌의 눈물’은 절망의 결정체이자 구원의 씨앗이다. 시인은 그 눈물을 ‘흘린다’가 아니라 ‘만지작거린다’고 표현한다. 이 섬세한 동사는 후회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기억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내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어둠의 끝에서 새벽의 문턱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이 지점에서 감윤옥의 시는 신앙의 교리에서 벗어나 인간 실존의 보편적 윤리로 나아간다. 죄의식은 단죄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며 눈물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다.

또한 감윤옥의 시는 화려한 수사나 신비주의적 이미지를 지양한다. 대신 간결한 어휘 속에서 깊은 의미의 층위를 이끌어낸다.

『새벽닭 울자』에서도 마찬가지다. 행간에는 여백이 많고 언어는 절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여백 속에는 고백과 침묵의 공존이라는 묵직한 울림이 깃들어 있다.

그의 시는 신앙의 찬미보다 ‘회심(回心)의 정서’에 가까우며 구원보다 ‘자각의 시간’에 무게를 둔다. 시인은 인간의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연민의 원천으로 바라본다. 이 점에서 감윤옥의 시는 종교시를 넘어 실

존적 서정시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시적 세계는 시대적 윤리와도 맞닿아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배신’과 ‘망각’이 너무 쉽게 반복되는 시대이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심한 우리에게 감윤옥의 베드로는 거울과 같다. 새벽 닭의 울음은 그 옛 성서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울리는 경종이다.

『새벽닭 울자』는 짧은 시이지만 그 안에 인간 존재의 전 생애적 여정이 응축되어 있다.

배신에서 각성으로 절망에서 눈물로 그리고 다시 구원의 문턱으로 시는 한 인간이 어둠을 통과해 새벽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변화를 그린다.

감윤옥은 이 여정을 서사로 풀지 않는다. 그는 단 몇 줄의 시어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진동과 영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포착한다. 그리하여 『새벽닭 울자』는 종교적 체험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의 시로 읽힌다.

새벽닭은 울음을 멈추었을지라도 그 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다. 그것은 단죄의 울음이 아니라 회복의 울음과 사랑의 가능성을 다시 불러오는 소리다.

어부바

등에 업힌 저녁 햇살이
눈꺼풀을 감싸던 날들

“어부바”
두 다리를 매달고
엄마의 숨결에 기대어 잠을 잤다

“어부바”
두 발이 땅을 떠나고
세상의 산맥이
등 뒤로 이사 갔다

땀 냄새나는 여름
감기 기운 돋던 겨울
엄마는 묻지도 않고
“어부바”

혀끝에 젖은 언어 하나
뜨거운 소금물처럼
목을 훑는다

어머니의 등, 언어의 고향

- 감(甘)윤옥의 「어부바」를 중심으로

감^ㅈ윤옥의 시 「어부바」는 한 인간의 유년을 넘어, 언어가 태어나는 자리로 독자를 이끈다.

짧은 구어 하나 “어부바”가 이 시의 심장이다. 이 단어는 표준어 ‘업다’의 변형이자 구어의 생생한 육성을 품은 민중의 말이다. 그러나 시 속에서 그것은 단순한 어휘적 변주를 넘어 존재론적 언어의 원형 곧 로고스 이전의 생명 언어로 기능한다.

이 시 “어부바”를 통해 잊혀진 체온의 기억과 어머니의 숨결에 스며 있던 세계의 질서를 되살린다. 그의 언어는 회상에 머물지 않고 기억의 가장 깊은 심층으로 잠입한다. 그것은 시간의 회귀가 아니라 존재의 귀향 즉 인간이 언어와 몸과 세계가 하나였던 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 시를 읽는 일은 곧 말의 온도를 다시 느끼는 일이다. “어부바”는 시적 리듬의 시작이자 끝이며 모성의 품을 상징하는 소리의 원형이다. 그 한마디 속에서 인간은 언어의 최초 경험 즉 부름, 응답, 그리고 관계를 배운다.

시의 첫머리 “등에 업힌 저녁 햇살이 / 눈꺼풀을 감싸던 날들”은 감각적이면서도 상징적이다. ‘등’이라는 신체는 단순한 육체적 표면이 아니라 기억과 세계의 교차면이다. 인간은 세상을 등 뒤로 두

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신을 완성해간다. 그때의 ‘등’은 단순히 무게를 지탱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계를 등에 지는 존재의 은유적 장場이다.

“세상의 산맥이 / 등 뒤로 이사 갔다”는 구절은 단지 회상적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 구조가 지면 중심의 세계에서 모성 중심의 세계로 전이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산맥’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구조를 의미하고 그 산맥이 ‘등 뒤로’ 이동하는 장면은 세계의 중력이 뒤집히는 시적 사건이다.

아이의 세계는 이제 어머니의 숨결로 축소되며 그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의 품속에서 존재함’을 자각한다.

감윤옥의 시학에서 ‘등’은 공간적 이미지가 아니라 관계의 공간 즉 ‘사이의 자리’이다. 그것은 나와 세계 언어와 침묵, 기억과 망각이 교차하는 경계의 신체다.

“땀 냄새나는 여름 / 감기 기운 돌던 겨울 / 엄마는 묻지도 않고 / ‘어부바’ 이 부분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을 그린다. 여름과 겨울의 대칭적 반복 속에서 모성은 계절의 윤회와 같은 생명적 리듬으로 존재한다.

‘묻지도 않고’라는 표현은 무조건적 사랑의 침묵을 상징한다. 그것은 논리 이전의 윤리이며 조건 없는 수용의 윤리다. 엄마의 침묵은 언어가 되기 이전의 언어 곧 존재를 말 없이 인정하는 언어이다. 이 대목의 감각적 질감 즉 땀 냄새와 감기 기운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신성하다. 시인은 모성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그는 그 냄새와 열기의 구체성을 통해 모성이 신성해지는 것은 초월이 아니

라 현실의 밀착성때문임을 보여준다. 감윤옥의 시적 세계에서 ‘모성’은 이상이 아니라 ‘감각의 진실’이다.

마지막 연 “혀끝에 젖은 언어 하나 / 뜨거운 소금물처럼 / 목을 훑는다”는 시의 정점을 이룬다. ‘혀끝에 젖은 언어’는 ‘어부바’라는 모국어의 잔향이자 모성의 체온이 언어로 변환된 흔적이다. 이 언어는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감각으로 남아 있는 기억이다.

“뜨거운 소금물처럼”이라는 비유는 이 언어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상처의 기억임을 드러낸다. 그것은 짠맛과 열기를 동시에 품은 통각의 언어이다. 따라서 화자의 목을 훑는 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상실을 체험하는 언어적 통증의 의식이다.

이 구절은 언어철학적으로도 흥미롭다. 인간에게 언어는 추상적 기호가 아니라 몸의 기관인 혀와 목 그리고 숨을 통해서만 발현된다. 감윤옥은 그 물질적 차원을 복원함으로써 언어를 신체적 기억의 현상학으로 재구성한다.

즉, ‘말한다’는 것은 ‘몸이 기억한다’는 뜻이다.

요약하자면 감윤옥의 『어부바』는 단순한 유년의 회상이 아니라 언어의 기원과 모성의 원형을 탐구하는 시적 철학이다. ‘어부바’는 구어의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그 울림은 신화적 차원에 닿는다. 그 한마디로 화자는 자신을 지탱하던 세계의 질서를 복원하며 잃어버린 시간의 문을 연다.

여기서 모성은 종교적 구원이 아니라 언어적 구원이다.

‘어부바’라는 소리를 되뇌는 행위는, 언어가 다시 생명을 회복

하는 의례이며 기억이 감각으로 되살아나는 주술이다.

시의 종착점은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그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적 향수이다. 그것은 단지 감상적 회귀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자기 언어의 근원을 탐색하는 형이상학적 귀향이다.

즉 감윤옥의 시는 “모성의 기억을 통한 언어의 부활”이라는 주제 의식 위에서 있다. 그의 시학은 회상의 서정이 아니라 되살림의 시학이다. 시인은 언어를 통해 모성을 되살리고, 모성을 통해 언어의 온도를 회복한다. 그리하여 『어부바』는 한 개인의 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첫 언어의 기억 즉 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집합적 서정으로 확장된다.

감윤옥의 『어부바』는 한국어의 심층적 정서 구조를 가장 따뜻하고 깊이 있게 드러낸 작품이다.

그는 일상어 속의 신비 구어 속의 철학을 끄집어내어 언어의 감각적 생명성과 존재의 윤리적 근원을 동시에 형상화했다. ‘어부바’라는 한 단어는 이 시에서 언어와 기억과 모성과 구원의 상징으로 변주된다. 그 언어는 울림이자 숨결이며 말이 인간의 마음을 덮는 방식에 대한 시인의 철학적 사유로 읽힌다.

감윤옥의 시는 이처럼 구체적이면서도 근원적이다. 그는 언어의 살결로 인간의 원형적 체온을 복원하고 그 체온으로 독자의 마음을 데운다. 『어부바』는 결국 모국어의 품속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에 대한 시적 응답이며, 동시에 한국 현대시가 잃지 말아야 할 ‘언어의 숨결’을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 시편이다.

지문처럼

어머니 젖 냄새는
말이 되어 입에 고였다.

어머니 무릎 아래
나는 말보다 울음이 먼저다
그 울음이 말이 되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눈물 속에서 피는 문장

기도보다 먼저 배운 말
잠든 나를 깨워
별빛으로 가슴을 덮는다

모국어는
바람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
심장을 흔들며 지내왔다.

모국어는
나를 만든 피다.

내 지문처럼

감_甘윤옥의 시세계는 언어 이전의 세계 말이 태어나기 이전의 인간적 진동을 탐문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의 시는 종종 ‘존재의 언어학’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언어가 인간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근원적으로 묻는다. 그 가운데 『지문처럼』은 시인의 언어론이 가장 응축된 작품으로 언어의 기원을 모태_{母胎}와 모국_{母國}의 이미지 속에서 사유한다.

시인은 ‘말’을 사유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는 어머니의 젖 냄새처럼 인간 존재에 감각적으로 스며든 첫 기억이다. 그것은 의식 이전 말 이전 심지어 생명 이전의 생리적 체험으로서의 언어다. 시인은 이 언어의 체험을 피, 심장, 눈물, 별빛같은 생명의 상징들과 결합시켜 언어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변주한다.

결국 『지문처럼』은 언어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지칭하는 부호가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를 각인하는 지문임을 증명하는 시적 논문이다.

“어머니 젖 냄새는 / 말이 되어 입에 고였다.” 이 시구는 언어의 탄생을 감각의 기억으로 환원시킨다. 인간이 세상과 처음 맺는 관계는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후각과 미각의 언어 즉 어머니의 젖 냄새다. 젖 냄새는 생존의 본능과 애착의 감정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최초의 신호다. 여기서 ‘말이 되어 입에 고였다’는 구절은 언어가 외부로부터 주입된 지식이 아니라 감각의 내적 발효 과정임을 드

러낸다.

“나는 말보다 울음이 먼저다 / 그 울음이 말이 되었다.” 시인은 언어의 시원을 ‘울음’에서 찾는다. 인간의 첫 발화는 논리적 문장이 아니라 생명의 생리적 반응이다. 울음은 곧 존재의 최초의 진동 즉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생리적 신호다. 이 울음이 ‘말이 되었다’는 구절은 언어의 발생을 감정의 전이轉移로 설명하는 시적 언어철학이라 할 만하다. 울음은 인간의 내면에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 감정의 음성 말은 그것이 문법화된 사유의 음성이다.

이러한 언어의 생리적 기원에 대한 인식은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명제를 감각적으로 전유한 것으로 읽힌다. 감#윤옥에게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자 동시에 어머니의 품 곧 모태 그 자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 눈물 속에서 피는 문장.” 이 대목은 언어의 자생적 발생을 강조한다. 인간은 말을 배우기 이전부터 이미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체험의 언어와 감정의 기억 속에서 자라난다.

‘눈물 속에서 피는 문장’이라는 시구는 언어를 정서의 식물학적인 유로 전환시킨다. 눈물은 고통의 액체이자 기억의 체액이며 그 안에서 피어난 문장은 인간 존재의 정직한 발화다.

이때 언어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정서의 생리학적인 구조로 이해된다. 시인은 언어의 발생 과정을 생물학적 순환처럼 묘사한다. 눈물로부터 문장이 자라나고 그 문장은 다시 기도로 이어진다.

“기도보다 먼저 배운 말”은 종교적 언설보다 앞서서 존재의 본

능적 언어를 의미한다. 기도는 배운 언어지만 울음은 본능의 언어다. 시인은 이 순서를 전도시킴으로써 언어의 신성은 배움이 아니라 감정의 순수성에서 비롯된다는 신앙적 시학을 제시한다.

그다음 “잠든 나를 깨워 / 별빛으로 가슴을 덮는다.”는 구절은 모국어의 단순한 소리의 질서가 아니라 영혼을 덮는 정신적 빛임을 상징한다. 별빛은 우주의 리듬 인간 존재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시각적 언어다. 이때 모국어는 개인을 깨우는 빛이자 집단적 기억을 품은 문화적 별자리로 기능한다.

시의 후반부에서 언어는 더욱 생리적 차원으로 내려간다. “모국어는/바람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심장을 흔들며 지내왔다.” 이 대목에서 모국어는 외부의 바람보다 앞서 존재의 내부에 스며드는 생명의 리듬으로 표현된다. 바람은 외부 세계의 시간성을 상징하지만 모국어는 내면의 시간 즉 기억과 정체성의 시간을 상징한다. ‘심장을 흔든다’는 말은 언어가 감정의 표피가 아니라 존재의 근육을 진동시키는 생명력임을 드러낸다. 언어는 단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심장의 박동으로 존재한다.

“모국어는 / 나를 만든 피다.” 이 절구는 언어의 생리적 은유가 절정에 달하는 구절이다. 피는 생명의 원천이며 순환을 통해 생명을 지속시킨다. 시인은 이 피의 순환에 언어를 겹쳐놓는다. 언어는 인간의 몸속을 순환하며 나를 구성하고 그 순환이 멈출 때 존재 또한 죽는다. 즉 모국어는 단지 말의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 있게 하는 존재의 혈류다.

시의 마지막 구절 “내 지문처럼”은 시 전체의 은유를 결정짓는

결말이다. 지문은 인간을 식별하는 유일무이한 흔적이며 결코 타인과 동일할 수 없는 정체성의 표식이다. 시인은 모국어^{母國語}를 그 지문에 비유함으로써 언어가 단지 사회적 기호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증명하는 고유한 표식임을 천명한다.

이는 언어의 윤리와도 맞닿는다. 모국어^{母國語}가 피와 같고 지문과 같은 것이라면 그 언어를 훼손하거나 타락시키는 일은 곧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감^甘윤옥의 언어시학은 단순한 언어 찬미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윤리적 경건함을 요청하는 문명비평적 선언으로도 읽힌다. 그에게 언어는 공동체의 피이며 그 피를 잃는 순간 인간은 정체성을 잃는다.

결론적으로 감^甘윤옥의 「지문처럼」은 인간의 언어를 생리적으로 감각적이고 영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시적 철학이다. 언어는 머릿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비롯된 감각의 기억이자 몸의 리듬이다.

시인은 언어를 통해 존재의 근원을 더듬으며 ‘모국어’라는 말 속에 모태^{母胎}와 모국^{母國}, 그리고 모성^{母性}의 이미지를 교직시킨다. 이 삼중의 ‘母’는 인간 존재의 가장 내밀한 근원을 상징한다.

그리하여 「지문처럼」은 언어의 시학이자 동시에 존재의 인류학이다. 언어는 태생적이며 유전적이며 감각적으로 각인된다. 시인은 그것을 ‘지문’이라 부른다. 지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이듯 모국어 또한 각자의 내면에 새겨진 존재의 유전자다.

감^甘윤옥의 시는 언어를 다시 ‘살아 있는 것’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의 시어는 문법 이전의 리듬과 사고 이전의 울음과 이성 이전의 향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언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지문을 바라보듯 모국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읽게 된다.

민들레, 바라의 아이

저 들길 모퉁이
누가 버리고 간 노란 웃음 하나
민들레라 불리는 그 아이는
뿌리째 뽑히는 날에도
바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짓밟힌 자리마다
다시 고개드는 고요한 힘

꽃이라 하기엔 너무 쓸쓸하고
잡초라 하기엔 너무 슬펐다
그러나 봄날마다
그 노란 입술은 어김없이 피었다

바람이 와서 씨를 데려가도
민들레는 말이 없다

아마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노래일지도 모른다

감_ㅈ윤옥의 시 세계는 언어의 절제 속에서 존재의 깊이를 탐문하는 서정의 미학으로 특징지어진다. 그의 시편들은 자연의 미시적 생명체를 주된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안에 내재한 생명성과 중요한 윤리를 드러낸다. 본고가 다루는 『민들레, 바라의 아이』는 이러한 시적 경향의 결정체로서 미약한 존재의 침묵 속에 잠재한 생명 의지와 윤리적 자각을 탐구한 작품이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들풀의 생태를 노래하는 단정한 서정시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존재론적 성찰과 윤리적 사유가 교차한다. 시인은 민들레를 통해 ‘존재함’의 의미를 묻고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태도를 되묻는다. “바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반복적 서술은 고통의 수용을 통한 존재의 평정_{平靜}을 상징하며 이는 감윤옥 시 세계의 핵심적 윤리관을 함축한다.

그래서 본고는 『민들레, 바라의 아이』를 중심으로 감윤옥 시의 침묵의 시학과 존재의 윤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인이 지향하는 생태학적 시세계관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 사유를 넘어선 생명의 철학으로 확장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시의 서두 “저 들길 모퉁이 / 누가 버리고 간 노란 웃음 하나”는 버려진 생명에 대한 발견의 순간을 형상화한다. ‘버리고 간’이라는 구절은 인간 사회의 무관심과 배제를 함축하며 ‘노란 웃음’은 그 무관심 속에서도 지속되는 생명력의 은유이다.

이때 ‘웃음’은 단순한 표정의 표현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존재의 언어적 발화로 읽힌다.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론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존재의 밝힘(Lichtung)으로서의 언어 행위에 가깝다. 시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로 존재를 명명한다. 즉 감윤옥의 ‘노란 웃음’은 언어 이전의 언어 즉 세계의 원초적 언어를 시적으로 구현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민들레라 불리는 그 아이’라는 인칭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시인은 인간이 대상화한 사물을 다시 ‘아이’로 호명함으로써 인간과 비인간의 위계적 관계를 해체한다. 이는 생태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비인간 존재와의 수평적 윤리를 실천하는 시적 언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뿌리째 뽑히는 날에도 / 바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구절은 이 시의 윤리적 정점을 이룬다. 여기서 ‘바람’은 외부의 폭력 곧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시인은 그 폭력 앞에서 원망이나 저항을 택하지 않고 조용한 수용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 수용의 태도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평정과 조화를 향한 의지이다. 즉 감윤옥의 시적 주체는 세계와의 갈등을 ‘화해의 운동’으로 변환시키며 이로써 비폭력적 생존의 미학을 구축한다. 이는 불교적 무상^{無常}의 인식 혹은 노자의 무위^{無爲} 사상과도 통하는 동양적 윤리의 현대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짓밟힌 자리마다 / 다시 고개드는 고요한 힘”은 이 윤리를 구체화한다. ‘고요한 힘’은 역설의 언어로 침묵과 생명력이라는 두 상반된 속성이 결합된 개념이다. 감시인의 언어는 이처럼 격렬

함이 아닌 고요를 통한 존재의 생성을 드러내며 이는 서구의 ‘저항적 낭만주의’가 아니라 동양적 생태윤리의 한 양상으로 읽힌다.

“꽃이라 하기엔 너무 쓸쓸하고 / 잡초라 하기엔 너무 슬펐다”는 구절은 감윤옥 시의 언어가 지닌 경계적 특성을 압축한다. 민들레는 인간의 언어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존재이다. ‘꽃’과 ‘잡초’라는 상반된 개념의 틈새에서, 시인은 존재의 애상(哀傷)을 발견한다.

이는 레비나스(E. Levinas)가 말한 ‘타자의 얼굴’과 유사한 존재 인식이다. 민들레는 인간이 분류한 가치의 체계 안에서는 정의될 수 없는 ‘타자’이다. 그 타자의 슬픔을 응시하는 행위 자체가 시적 윤리의 실천이다. 이에 감윤옥의 시는 인간의 중심적 언어로 세상을 규정하기보다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의 여백을 드러냄으로써 존재의 다양성과 불가해성을 긍정한다.

“그러나 봄날마다 / 그 노란 입술은 어김없이 피었다”는 결구는 이 경계적 존재의 반복적 회생을 노래한다. ‘피었다’는 말은 단순한 생물학적 개화가 아니라 존재의 순환적 완성을 의미한다. 감윤옥의 시적 시간은 직선적 진보의 시간성이 아니라 순환적 시간관(時間觀)으로 작동한다. 이는 인간의 역사적 시간 대신 자연의 순환 리듬 속에서 존재를 위치시키는 생태서정시학의 방식이다.

시의 종결부 “바람이 와서 씨를 데려가도 / 민들레는 말이 없다”는 구절은 감윤옥 시의 미학을 응축한 표현이다. ‘말이 없다’는 것은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완전한 충만을 의미한다. 즉 침묵은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의 실현이다.

이 침묵은 언어를 초월한 언어이며 소리 너머의 음악이다. 시인

은 이 침묵의 상태를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노래”로 명명한다. 이는 언어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존재의 음향학을 드러내는 역설적 장치다.

감시인에게 있어 진정한 노래는 발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진동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그의 시는 소리보다 ‘울림’의 미학에 가깝고 그 울림은 인간과 자연 존재와 비존재가 맞닿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민들레, 바라의 아이』는 미시적 존재의 형상을 통해 세계의 본질적 윤리를 성찰한 작품이다. 시인은 민들레라는 가장 낮은 생명을 통해 존재의 평등성과 순환의 철학을 제시하며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생명의 언어를 노래한다.

감윤옥의 시학은 화려한 서정이나 감정의 폭발보다 내면의 침묵과 고요의 리듬에 집중한다. 그의 시적 태도는 인간 중심의 언어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존재 전체의 호흡을 감지하려는 윤리적 실천이다. 결국 “바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한 구절은 세계와 화해하는 존재의 태도이자 생명과 언어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시인의 의식적 선택이다. 그리하여 감윤옥의 시는 ‘침묵의 시학’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 침묵은 소멸의 침묵이 아니라 존재의 윤리로서의 침묵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노래로 들려온다.

심사평 | 이상성

-
- 시인, 문학평론가, 대학교수, 부울신문 발행인, 전)문학도시, 부산시민 편집장
 - 시집 『포구통신』, 평론집 외 논문 다수 등

시

- 강위석 | 동백섬
곽병길 | 바다의 시계 외 1편
권영숙(아미새) | 그리운 별 사랑 외 1편
김경희 | 내게 달을 주소서 외 1편
김동우 | 비모란 외 1편
김숙희 | 나뭇잎에 쓰다 외 1편
김혜영 | 춤추는 목각 인형 외 1편
류정희 | 교도소에서 1 외 1편
박인자 | 마음밭에 자라는 생각들 외 1편
배혜숙 |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외 1편
손정란 | 떨기나무 외 1편
송순임 | 버스킹 부부 외 1편
송정우 | 모래톱 끝에서 외 1편
신 선 | 11월의 끝 외 1편
신현숙 | 낙엽은 말없이 흩어지고 외 1편
양왕용 | 영동을 지날 때마다 외 1편
양윤형 | 소금꽃 향기 외 1편
이가연 | 발을 닦으며 외 1편
이귀선 | 도미 손질 외 1편
이선화 | 12월 맞이하며 외 1편
이승훈 | 굴뚝과 담쟁이 외 1편
정사라 | 숨길 수 없는 빛 외 1편
정신자 | 바람이고 싶다
정연원 | 잘 산다는 것 외 1편
조현숙 | 문 앞에서 외 1편
최귀례 | 오류도 외 1편
최만공 | 주기도 외 1편

동백섬

강 위 석

바다에 살던 섬을
누누천년
밀물과 해풍이 밀고 또 떠밀어
해운대에 지느러미부터 붙였다
개암나무 감나무 접붙인 듯한 한 몸
더 이상 섬이 아니다
갯비린내 말리던 늙은 어선
이물과 고물간의 적막도 수평선을 넘어갔다
해수욕장 생모래 저들끼리 살부비는 귓속말
동백이 울울해야 된다고
이안류(離岸流)보다 먼저 다리미산에 흘러든다
황옥공주 전설이 철석이는 인어상 뒤에
부산갈매기 목청 푸르다
산다화 붉은 숲
달이 없어도 밝다



| 강위석 |

- 월간모던포엠 시 등단
- 새부산시인협회이사, 부산문인협회회원, 사) 부산시협회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청마문학회회원, 남부문학회회원
- 제7회 청마문학제 심사장, 부산시단 17호 작가상, 월간 문학도시 2019 작품상, 부산시단 26호 작품상, 제36회 시의날 부산문인협회장상, 부산시단 35호 작가상.
- 시집 『나는 강가로 나선다』 『길을 버리며』 『산속의 어부』

바다의 시계 외 1편

곽 병 길

몇 번이나 쳐들어와
맥주 한잔하고 돌아간다.
내 마당에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온갖 썩은 냄새를 놓아두고 간다.

그때가 몇 시일까.
잊어버린 생각들이 눌러앉은
바닥의 잡초 사이에서
우리의 헤어짐을 기다리던 웃음소리.

늘 깨어 있던 고동 소리,
시계는 늘 앞으로 밀려오고
굴곡을 앞세워
바다는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



| 곽병길 |

- 2014년 《수필과 비평》 수필 등단, 2015년 《문학도시》 시 등단
- 부산광역시문인협회 회원, 부산 (사) 시인협회 회원
- 부산 수필 문인협회 회원, 수필과 비평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가지 않아도 될 바다의 시계,
기어이 밀려오는 저 높이에서
미워할 수 없는 것들이
근심을 펴뜨리고 있다.

임마누엘

혼자가 아니다.
살아남기 힘들 때면
늘 혼자라 생각했다.

밤은 늘 곁에 있었고
그 밤은 스스로 길어졌다.

벽을 두드리다 지친 기도는 하늘이 되고,
호흡을 잃은 낡은 날이
두려움으로 웅크린 곳,

방 끝에 앉은 누군가의 손짓 사이에서
대답하지 않는 사랑을 찾는다.

그 목소리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식은 손끝 위로 새벽이 번지고,

한 줄기 빛이
책상 위 낡은 책을 덮는다.
그제야 안다.

외로움은 떠남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또 다른 이름임을.

그리운 별 사랑 외 1편

권영숙(어미새)

아무리 사랑해도 만날 수가 없다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강이 되어 흐른다

가슴에 기억들이 실 꾸러미를 풀듯이
밤새워 풀고 있다
잠은 어디로 가고

밤새워 쏟아지는 별의 사랑이 그리워진다
주님! 나에게 날개를 주신다면
훨훨 날아올라
하늘나라 천사들을 만나서
그리운 별 하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 권영숙 |



경북 안동에서 출생. 부산크리스천문학 백일장 詩(가을 유리창)장원. 신인상 당선.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부산문학중심 작가회 이사, 부산남구문인협회, 오륙도문인협회 이사, 부산예술인협회 삼양회 감사, 부산문예시대 작가상, 부산문인협회 작품상, 시집 『어미새』 『꽃처럼 눈 뜨는 아침』 『풀꽃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나뭇잎 시처럼 떨어진다』 『새들도 그리워서 산을 넘는다』 『창가에 핀꽃』 『생물같은 시가 흐른다』, 스토리 텔링집 『꽃은 한을 먹고 핀다』, 장편소설 『양들의 분노』

유난히 내 가슴에 반짝이는 별 하나
어쩔 지금 천사들과 함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일에 늘 함께했던(아이) 별 하나
해외 선교로 국내 선교 활동 열심히 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었던 (희야를 많이 사랑해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한 때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다
기도만 하면 병도 낫게 하고
방언을 한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중얼거림으로 들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에
참으로 황당했다

그런 설교가 싫었다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수 십 년이 지나고 기도 중에 방언이 터졌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 후부터
믿지 않았던 방언을 믿게 되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이 일 점 일 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기도란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참으로 믿는다
즐겁고 기쁠 때 보다 슬프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가듯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

내게 달을 주소서 외 1편

김 경 희

봄은 아쉬움 속에서 비를 몰고 떠난다
실가지마다 창조적 불길을 켜며
하나님 주인으로 간증스럽게 오던 봄날
저만큼 에덴 동산
복사꽃 피운 계곡으로
서툰 걸음 다독여 내 안을 채우며
모란이 피는 정원으로 나를 이끈다

엄청스런 지난해 아픔의 고통 속에서 기도를 올린다
삭풍 부는 겨울 한가운데
의지없는 자신만이 성경책 속 숨은 적막으로
회오리 바람 맞으면서 오랫동안 노래한다

아버지여
소쩍새 오는 이 봄밤에도
강건히 지켜나갈 힘 주옵소서



| 김경희 |

- 2008년 《새시대문학》 시 수필 등단
- 음악박사
- 명예 문학박사
- 문인협회 대상수상
- 전국 해양문화제 우수상 수상

속살거리는 청유자 닮은 불을 가진 손녀 수빈이 가슴에 안으니
그 옛날 잠든 어머니 머리에 내린 봄바람은
다락방 문틀을 흔들며 달속을 헤집고 아픈 하루를 건넌다

풍성한 생명 빛을 보라

우리는 안다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물이 어떻게 지구 위에 존재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창작물인 가을 속으로 들어가본다

빨강 노랑 갈색으로 저마다 색을 내는

애기 같은 깨끗함을 갈아입은 산들

그 속에는 음악이 흐르고

그림이 그려져있다.

꽃 피고 지는 바람 일렁임에도

계절은 흔들린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계절 속에서 숨을 쉬며 만난다

30일 여정을 마다하고

하나님은 시나이 반도를 한참이나 돌아

서리 깊은 기러기 죽지 위로 핏물을 보였으나

긴 여정 애움길 돌아온 40여 년 시간

“만나”의 양식을 거절하고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한 부르짖음 위에

메추라기 고기는 그믐밤에도 춤추면서 내 입에 내린다

훗날

목마름을 알고 배고픔 뒤에 얻은 진리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멋진 양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푸른 숨결 풀어놓은
저 높은 가을하늘 위에 풍성하게 빛날
긴 고통 속에서 얻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비모란 외 1편

- 사랑의 이식성에 대하여

김 동 우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너는 방문을 꽁 닫고 들어가 버렸지
나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돌아서서 조금 늦은 저녁을 준비했어
관계가 틀어져도
허기는 채워줘야 하니까
밥그릇 위에 몸을 포갠 다른 밥그릇에다
밥주걱으로 가득 밥을 담았지

식탁 위에 찌개가 조금씩 식어가듯
너의 화도 식어가기를 기다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비모란의 가시를 닦았어
혼자서는 제 몸을 세울 수 없어
다른 몸 위에 제 몸을 얹고
색을 피우는 비모란처럼
사춘기에 피운 꽃은 너무 화려하기에
함부로 꺾을 생각이 들지 않았어



| 김동우 |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2020년 《신세계문학》등단
- 시집 『너테를 위해』
- 현 부산동중학교 국어교사

너는 오래된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식탁에 밥을 차리는 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네가 몸을 기대기 전까지
나도 없었던 거니까
겨우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일이지만
그건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지

나는 모르는 척 티비를 보고
너는 미안하지 않은 척
다 식은 찌개에 밥을 쓱쓱 비벼 먹고
머뭇머뭇 머쓱하게 네 방으로 들어갔지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먼 어느 우주에서 우연히 별똥별처럼 떨어진
너는 어찌다가 내게 접붙은 걸까

제 판엔 꼴에 가시랍시고
톡톡 내뺨는 말은 아직 솜털 같아
비모란의 가시를 닦으면서
나는 몇 번이나 손가락을 쿡쿡 찌리지

병상 편지

허리에서 옷자란 뼈가 자꾸 신경 쓰여
이번 명절은 여기서 보내려다
창밖에 갈대가 나보다 오래 서 있는 계절
실은 뼈도 없는 저 허술한 몸뚱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상하면서도
기어이 꺾이지 않는 까닭을 알고 싶어서란다

늡으면 뼈부터 상한다던데
어째서인지 인대가 자라서 뼈가 되었다더구나
네가 들으면 놀라고 걱정하겠지만
아등바등 살아온 긴 세월
삶의 무게를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게서 무언가가 나고 자란다는 기적

그러니 너를 수고해 낳았다 해서
수고해 길렀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미안함이 인대처럼 길게 자라
허리 신경을 꺾꺾 누른다
시린 발끝을 꺾꺾 주무른다
긴 세월 두 발은 어떻게 나를 세웠던 걸까

창밖의 갈대가 아직 서 있는 계절
나는 병실에 누워서야 알았다
뿌리 내린 갈대들이
핏줄처럼 서로의 몸을 얽으며
흙의 숨결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에 네가 잘 지내는 모든 날이 내겐 명절이니
너는 너를 닮은 뼈들을 잘 보살피거라

나뭇잎에 쓰다 외 1편

김 숙 희

산책길에 아직 물들지 못한
은행나무 잎 하나가
내 앞에 선다

초록물이 깊어 무거운 잎
손바닥에 올리고 살핀다
실핏줄이 실하다

장수를 들고 나를 본다
장례 알림이 올 적마다
구순을 넘기고도 건행하다던

나뭇잎 첫 줄에 그리운 이름
썼다가 지우고 또 쓴다 촘촘히
벌레가 손대지 못하는 은행나무 잎



| 김숙희 |

- 시인 수필가 (문예사조2013시등단) (부산크리스천문협2020수필등단)
- 대전지방법원근무 동화구연가
- 부산문인협 새시협 외성문학 사하문협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오래된 사랑읽기』, 『푸른처방전』

그대 없는 주소에
뜨거운 심장 숨비소리로
눈물 쏟아 소나기로 보낸다

단맛을 알다

단맛 앞에 어머니가 지켜섰다
단맛을 잃어버린 유년
동생에게만 과자를 주었다

사십줄에 들어 허리를 휘게
발목을 잡던 네 개 책가방은
익모초 쓴맛으로 채웠다

사각모가 하나 둘 거실벽을 장식하더니
어느새 결혼사진으로 바뀌고
둘이 셋이 된 가족사진이 걸린다

날마다 꿀맛이 눈에 담기고
입에는 꿀벌이 집을 짓고
귀에는 ‘엄마소는 얼룩소’가

주름진 나이테에 푸른색을 휘감는다

춤추는 목각 인형 외 1편

김혜영

한여름 밤

아름다운 자태로

달빛 속 감강수월래 하는

숲 속 요정등

무언의 춤추는 목각 인형

작은 거인의 어깨를 들썩이는

너털웃음

흥겹다.



| 김혜영 |

- <문예시대> 시 등단(2011)
- 부산크리스천 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남구 문인협회 부회장
- 가림문학회 이사
- 수상 : 남구문인협회 오륙도 문학본상 수상(2024)
- 시집 : 『춤추는 목각인형』 외6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노래

주여!

참으로 지난 여름은 무덥고
길었습니다

가뭄과 거친 비바람에
노심초사하던
고단한 농부의 마음밭에 촉촉이 내린
축복의 단비

여름과 가을이 만나
주황빛 혈류를 타고 불타는
성전 앞 들국화

빈 껍데기
가라지를 털어내고
천국 창고에 알곡을 채우는
기쁨의 추수감사절

값없이 주는 은혜에 고개를 숙입니다.

교도소에서 1 외 1편

류 정 희

교도소 자축행사 있던 날
푸른 죄수복 입은
그들 앞에 서서 시 낭송하는
나는
나도 저들처럼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표정없이 멍한 그들 앞에서
나의 시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을까

그들과 마주 보며
빵을 나누어 먹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 류정희 |

- 경남 거제 출생
- 91년 월간문학 신인상
- 시선집 『당신은 지금도 오고 있다』 외 다수
- 현 한국시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상임고문
- 부산 사직동교회 출석

교도소에서 2

교도소 자축 행사 있던 날
죄수들 앞에 서서 나는
머나먼 바벰바 자작시를 낭송하였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마을 사람들 회관에 모여
그를 불러 낸다
그에게 한 마디씩 칭찬을 한다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우리집 돼지가 떠내려갈 때
너가 건져 주었어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그가 참회의 눈물 흘릴 때
칭찬 쉬지 않고 기다리며
한 사람씩 그를 안아 준다

멀고도 가까운 우리들의 바벰바
(가르치지 않고 보여 주는 나라)

그곳에 가서 아이 낳고 싶다
모두들 박수소리 높았다

마음밭에 자라는 생각들 외 1편

박인자

내 작은 마음밭
어떤 씨앗을 심을까
예쁜 꽃씨를 심을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심을까
매일의 풍성한 식탁을 위해 채소를

매일 돌보지 않으면
잡초에 점령당하는 작은 마음 밭
날마다 마음 밭에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
잡초는 뽑아내고 비옥한 땅이 되도록
적당한 물과 햇빛과 바람으로

내 마음 밭을 가꾸는 일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특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멋진 일
내가 가꾸어야 할 나의 마음 밭
사랑하는 아이야 너도 할 수 있어



| 박인자 |

- 《시와수필》 (2013 가을호 수필 등단)
- 《문학도시》 (2023 2월호 시 등단)
- 시집 『내 마음의 창』 (2021)
- 부산문인협회, 신서정문학회, 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너의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 심어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
오늘 내가 못다 이룬 꿈은 내일 또 다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루어 가리라
더 아름다운 마음 밭을 위하여

생각이 깊어지는 가을 밤

가을이 익어가고
스산한 바람 품속을 파고들어
잃어버린 그리움 하나 떠 올리다
무심코 자신을 돌아본다

나 있는 곳 어디쯤 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아픈 세월이 꿈같이 느껴져
두 눈에 이슬이 맺힌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을까
마음이 아파 절망하던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준 손길
여기까지 온 것도 나를 돕는 손

나는 늘 나혼자라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이제는 모든 것 그 손에 맡겨
내 마음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 들리고
가슴 속에서 길을 잃은 그리움 하나
가을 솔바람 끝에 걸어두고
이제는 조용히 두 손을 모은다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외 1편

배혜숙

그와의 만남은
오랜 추억 속으로 돌아가
감동과, 환희와, 젊음을 되찾은 듯
홀로 웃고 눈물 흘리는 순간이었다.

아!
그의 노래 속에
나의 젊음이 있었고
나의 사랑이 있었고
나의 낭만이 있었네

한때는 노랫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바람처럼 퍼져 나간 그의 노랫말은
삶의 메마름에 단비가 되어 주었고



| 배혜숙 |

- 목사 (부산 희망의 교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 울고있음은 (규장), 꽃처럼 불처럼 (규장), 사랑하는 이여 그대앞에 (규장)

위로와,
공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속에 살아있었다.

그의
세월을 잊어버린 듯한 열정의 모습
겸손한 언어와 자세
수줍은 듯 지어보이는 미소
세월을 이겨 낸 듯한 장년의 의연함으로
이 순간을 영원히 의 감동은
음악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가왕이여!
우리들의 소중한 이데아이며,
영원한 오빠.
영원한 히어로로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기를 ...

꽃을 그리며

꽃을 그리며
꽃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피곤했던 일상이
잠시
꽃향기 속에 머물면
꽃처럼 예뻐져서
황홀한 마음 되어 피어납니다.

소중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비를 그리며
꽃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감추어졌던 작은 행복들이
잠시
꽃향기 속에 묻히면
나비같이 춤을 추며
아름다운 영혼으로 소생됩니다.

고마운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떨기나무 외 1편

손정란

몽개 구름 너머 어딘가에 몸 두시고
나의 일어섬과 잠들을 아시며
누구보다 날 잘 이끄시는 당신이여

청남 빛 밟으며 다가온 숨결
만질 순 없지만 내 곁에 있는 당신
달빛 고운 거울 속 나는 울고 있어요

그대를 닮고 싶지만 유약한 나는
꺼어진 날개 그늘에 숨죠
가슴으로 우는 나에게 몰래 다가와
여린 심장에 굽히지 않는 불씨를 주신 당신

당신 위해서라면 모든 어두움 떨쳐버리고
떨기나무 불꽃 되어 먹구름을 사르렵니다



| 손정란 |

- 시인, 수필가
- 부산크리스천 문협 이사, 새부산시인협회 이사, 부산문학인협회 이사,
- 그림나무시문학 부회장, 부산문협 회원, 노마드 문학동인
- 시집 『어딘가에 물어 암호를 푼다』 『꿀값』

종천

살면서 이 땅에 감람나무 심었지
식솔이란 울타리 안에서 자식 키우며
노동으로 생긴 굶은 주름과 흘린 땀이 있어
수확하는 기쁨의 열매도 있었지

푸른 오르막 끝에 잿빛 내리막이 있어
헤치고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쌓아 올린 탑은 모래성이었지
몸을 나뭇잎으로 가려본들 벌거벗은 뼈
눈은 아름다운 것만 선별했지

있고 후회 하는 삶이 어딘들 없으랴
내세울 것 없는 빈 육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되니 부끄럽기만 하네
잠시 머물 정거장을 백년 살 것이라 여김을

길은 끝나고 뼈의 옷을 벗는다
영과 육은 나누어 질 것이고
하늘 본향 아버지 집으로
부르심에 따라 떠나야 한다

그래도 내 기뻐해야 할 소망이 여기 있다네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그 집에서
아무 공로 없어도, 의의 면류관 받아쓰고
그가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리니

버스킹 부부 외 1편

송 순 임

바다엔 소리가 산다.
모래알보다 더 자잘한 음표들이
그의 목소리를 통과해
바다로 퍼진다.

소리들을 모으려
목청을 더욱 조우고
목젖과 목줄기를 타고
파도를 타고
마이크 줄이 이리저리 출렁인다.

내쉬고 들이키는 곡조마다
노래는 나의 힘
하나 둘 모였다 흩어지는
발자국 들을 내려다보며
오래전 파문은
꿈같은 꿈을 후벼판다.



| 송순임 |

서울 마포출생 아동문학, 시인,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정보방송학 전공), 1997년 〈시와 시론〉 등단, 시집 『능소화가 피는 골목』, 동시집 『봄비와 은행 나무』, 칼럼집 『터놓고 하는 세상야기』,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한국회원, 한국 아동문학회이사, 부산문인협회이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이사, 전. 부산여류문인 협회회장, 부산남구문인협회회장, 제2회 문학도시작가상.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하느적 하느적
그의 아내가 춤을 춘다.
그의 곁에서 함께
꿈을 읊조린다.

추분

기어코 그는 온다.
오래오래 생각하고
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만나리.
꼭 만나리.
눈길 발길 닿는 곳 마다
그와의 추억이 서려 있음에
내 마음이 그와 이어지는
실 같았던 인연이었음에
타래실 끝나는 어드메쯤
그가 서 있으리.
기다림이 끝내 그 곳에 있으리.

모래톱 끝에서 외 1편

송 정 우

단단한 모래 위에 섰다
두 발은 뿌리처럼 박혔다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며
마지막 숨결로 발밑에 파고든다

먼바다가 머물다 가는 자리
허공의 기둥에서 기우뚱하다

파도는 거짓말쟁이
빼앗으면서 주고, 무너뜨리며 세운다

물살이 경계선을 넘나들 때
대지는 낮아지면서 견고해졌다

단단함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가며 채워가는 것이다



| 송정우 |

〈문학도시〉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재정위원, 부산문인협회 이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전기 『청보리 언덕에 핀 데이지』, 산문집 『길에 창을 내다』(2020 ARCO문학나눔도서 선정), 시집 『계절풍이 분다』외, 국영문시 화집 『꽃피운 한 걸음』, eBook: 『시간과 공간의 변주』 등

까마귀전^傳

어버이에게 은혜를 갚는 새
심지도 앓고 거두지도 앓아도
소중히 기르신다네

대홍수 후 물이 건혀
깜깜했던 창문 열고 먼저 날라가
땅이 마르기까지 먼 곳을 왕래했다네

선지자 곤궁에 빠져
시냇물에 목을 축이고 있을 때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날랐다네

기근에 시달리며 부르짖을 때
그 마음 보시고
생명의 양식 마련해 주셨다네*

* 누가 12:24, 창세기 8:7, 왕상 17:6, 욥기 38:41

11월의 끝 외 1편

신 선

입동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마을이 일어선다
저무는 것들은 저무는 대로
다시 불을 켜
그늘 드리운 먼 길을 태운다

동지설달의 어깨가 기울면
젖은 세레나데 한 소절 여울을 감아올리고
안개 자욱한 풍경의 뒷덜미에 우수가 스며든다

마른 잎 떠나보낸 나뭇가지들은
젓빛 하늘에 발목을 담그고
가파른 언덕은 내리막길이다

햇무리는 더 이상 오래 머물지 않는다
봉인된 온기를 쏟아낸 후



| 신 선 |

- 1993년 <시와의식> 등단
- 『봄의 현상학』 외 다수
- <부산시협본상> 수상 외 다수

테라스마다 이중 창문을 들러다 보다가
순식간 잠적한다

어둠에 물든 별들은 정오의 바다로 내달려
비정한 달이 섬약한 지구를 물고 간다

나목裸木을 흔드는 그대의 아린 눈빛
그림자는 더 눈부신 성벽을 올려 세운다

일어서서 가야 할 마지막 안간힘이 스러지고
그대 원형의 고요가 땅을 갈아엎는다

나의 밤의 이력서

기나긴 밤이 눈시울을 덮는다
검은 하늘은 초승달을 껴안고
어둠으로 어깨를 누른다
불안한 눈빛들은 분침을 굴리고
발효된 암흑은 밤에게 길을 묻는다
대체 불가능한 언덕이 일어서는 동안
숲속에 둘러싸인 나뭇잎들은 전신을 떠다
허공을 딛는 곳마다 발목이 빠져들자
잔별들은 강물에 시린 눈을 씻는다

냉혹한 바람은 잠을 자지 않는다
나목의 손등이 점점 부어오르고
파랗게 응고된 손은 지워지지 않는다

낮은 지붕 아래서 꿈꾸는 분꽃 씨앗들
까만 눈알을 굴리며 휘어진 다리를 뺏는다
기억을 키운 마을 밖에는
진눈개비가 내리고
은은히 퍼지는 캐럴송을 들으며
절망을 키운 밤이 익어간다

한 해를 소묘한 달력은 허기를 게워내고
얼어붙은 지상을 향해 팔을 흔든다

낙엽은 말없이 흩어지고 외 1편

신 현 숙

싸늘한 계곡에
낙엽 한 잎 떠내려간다
나부끼는 험한 길에
한마디 비명 없이
낮아지는 길을 간다

마른 엽서처럼 굴러다니는 그대는
발길에 차여서 천덕꾸러기 되기도 하고
철새처럼 날아가 흩이 되기도 하지

저녁 하늘에 물든 노을
하루해가 어둠 속에 사라져도
끝난 게 끝난 것 아니듯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거야



| 신현숙 |

- <창조문예> 등단
- 창조문예협회 회원, 부산시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 문인협회 회원
- 사직동교회 은퇴권사
- 시집 『상처는 향기가 난다』 『꽃잎에 쓰는 편지』
꽃잎에 쓰는 편지는 곧 출간 될 예정입니다

수없이 멍들어 가슴 아파도
너는 거름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불이 되고
찬란한 봄을 약속하는 거야
희망찬 내일 바라보며

빈 의자

그대 머물다가는 자리
많은 사람 스쳐 가는데
인동초 향기처럼 은은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무게를 지고 있어도
무겁지 않아
시간 가는 줄 모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 오가든지
입 다물고 있을게요
그대는 숲처럼 평안을 주는 자라
아련히 떠오르는 당신 오션지에
나는 쉼표이면 그만입니다

영동을 지날 때마다 외 1편

- 최연홍(1941-2021) 시인을 추모하며

양 왕 용

경부선 영동역 지날 때마다 생각나던
최연홍 시인을
페이스 북 친구로 만나
한국문협 해외한인문학 워싱턴 심포지엄 가져
그와 첫 인연을 맺었네.
최 시인의 초급 장교 시절
대구에서 김춘수 시인과 함께 했던 다방에서는
그냥 스치기만 한 그 인연.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나고 만다는
인생의 진리는
우리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하였네.
함께 워싱턴과 제퍼슨이
미국 독립을 의논하던 카페에도 가고
제퍼슨 생가와
에드가 엘런 포우의 기숙사 방도
찾아가 보았네.

| 양왕용 |



1943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도 출신. 진주고,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 대학 원 국문과 졸업(문학박사). 1966년 김춘수 시인 3회 천료(월간 시문학)로 데뷔. 시집 『천사의 도시, 그리고 눈의 나라』외 8 권, 연구논저 및 비평서 『정지용시연구』, 『한국현대시와 디아스포라』 『김춘수평전』외 8 권. 시문학상 본상, 부산시 문화상(문학부문), 한국크리스천문학상(시 부문), 부산시인협회상 본상,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교류 대상 등 수상. 부산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등 역임.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재>복음장학회 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 명예이사장, 동북아기독교 작가회의 한국 측 회장

운동주 시인의 생가로부터
목숨 거둔 후쿠오카 감옥까지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순례길에도
함께 하면서
운동주 시인 후배인 최 시인의 운동주 사랑
간절히 느꼈네.
그가 6.25 전쟁 피난 시절 머물던
부산에서는
서대신동 지하철역 옆 머물던 집과
그와 그의 동생이 발가벗고 놀던
송도 해수욕장도 함께 찾아보고
우리는 서로 형제 하기로 하였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형제의 연을 거두시고
황급히 최 시인을 먼저 데려가셨네.
형님! 천국에서 영생복락하소서.

학처럼 기품 있게, 백합처럼 향기롭게

- 이영신(1930-2025) 장로님을 추모하며

충청북도 천등산 박달재 아랫동네에서
일제 강점기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19세 어린 나이로 예비목회자와 결혼하시어
사모의 길로 들어서신 그대,
박달식 목사님과 함께
어상천으로, 추산으로 서대전으로
지금음 세종시가 된 연기군 대평리교회로
공주시 정안면 장원교회로
그러나 38세의 젊은 나이에
성전 건축 중 박 목사님 먼저 천국 보내시고
3남 2녀의 가장이 되시면서
이 세상 인고의 세월 시작하시다.
학처럼 가냘프지만 기품 있는 모습으로
50세에 공주제일교회 권사로
56세에는 드디어 서울 성광교회 장로로
어디 그 뿐이랴!
제주도 회복교회 전도사로 파송되기도 하시고
성막위원장으로 추대되고는
68세에는 전국여장로회 회장으로
백합의 향기 품기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온 천하에 복음 전하시다.

만년에는 백운교회로 파송되어
끝까지 은퇴장로로 고향 사람 눈물 닦아주시다가
이 세상 나그네길 95년 청산하시고
드디어 천국으로 돌아가시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자, 손녀들
어떻게 사는가 염려 거두시고
천국에서 먼저 가신 박 목사님 만나
영생복락 누리소서! 영생복락 누리소서!

소금꽃 향기 외 1편

양윤형

바다엔 염부(鹽夫)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그녀는 상처가 많아
그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염부는 바다의 몸을 열고
바람과 태양,
수천 개의 달과 수천 개의 별을 담아
염부의 눈물이 경(經)이 될 때까지
오직 그녀를 만나겠다는 염원으로
염원으로,
바다를 밀고 또 민다
애착이 신념이 되어버린 염부의 눈썹에
하얗게 피어나는 그리움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이 바다라는 것을
잊어갈 때쯤
드디어 만날 수 있다



| 양윤형 |

- 2001년 《한국시》 등단
- 시집 『숲으로 가는 길』 외 4권
- 야생초 연구가, 산야초 효소원 운영
- 2017년 문화예술부문 부산시장상
- 2017년 영호남 문학작품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장

그녀는 하얀 보석을 반짝이며 얼굴을 드러낸다
염부의 미소 속에 스며드는
바다의 눈물이
바다의 아픔이
세상의 식탁 위로 하얀 꽃이 되어 내릴 때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사뿐거리는
소금꽃 향기

알래스카의 물소리

인간의 생존이 지핀 불에
빙벽이 무너지고 극해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

빙하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과
얼음알갱이 연방 무너지는 소리 속에서
어깨를 으쓱거리고 걷는 펭귄의
유유자적함과 늪름함

고단한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수시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얼음 위를
묵묵히 걷는
펭귄의 모습을 떠올린다

푸른 고래의 이야기이거나
백야나 신비의 오로라가 출렁이는 밤의 이야기 속
유빙을 타고 흐르는
막막한 화두 하나 거머쥐고
놓았다 폼다 해보지만
만년설의 삭음이 토해내는 물 소리

찬란하고 무한한 빙하의 세계를 염원한다

발을 닦으며* 외 1편

이 가 연

내 발이
짜짜인 줄 모르고
신발만 닦하다

한세월 다 보냈네

그 세월 한 가운데
절름거리며 걸었던

내 모난 발

신발 벗기어
두 손으로 닦아 주네

* 2025 서울詩 지하철 공모전 당선작



| 이가연 |

- 경북 경산 출생, 2024년 월간 《문학도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어머니의 통장

어머니의 장롱 깊숙이
내 이름으로 된 적금통장,
모서리가 닳아버린 모정을
싹둑싹둑 잘라버렸다

내 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조각을
잡으려, 잡으려
손을 휘젓는 어머니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어머니
하늘 한 번 보श्य
하늘이 보여요
꽃 피고 새 우는 하늘이에요

손톱 조각같이 남은 생이라도
고개 들어
하늘 한 번 바라보श्य

나는 혼잣말을 하며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땅을 치며
목 놓아 우는 어머니를
애써 외면하면서

도미 손질 외 1편

이 귀 선

생선을 많이 산 날
유독 인물이 좋은 도미
단단히 비늘로 무장 해 있다
나는 꼬리를 잡고 비늘을 벗긴다

나를 동그란 눈으로 올려다 본다
바다 속을 누비던 씩씩한 녀석
광채나는 비늘은 철갑을 두른 듯 두껍기도 하다
아가미는 굳게 닫혀 좀체 열리지 않는다

며칠 전, 오랜시간 기도해 오던 친구를 만나
용기내어 차근히 하나님을 전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의 심령은
무장하여 벗겨지지 않는 이 도미의 비늘같았다

도미는 나의 수차례 애쓴 수고 덕에
분홍 속살을 마침내 드러내었다



| 이귀선 |

- 부산문학 시부문 등단
- 시집 『나를 연주하는 이』
- 부산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

걸으론 그렇게 두껍게 막고 차단해도
강한 주인의 손길은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 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철저히 불교 철학에 심취한 그 친구
씹쓸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한 기도를 이어 간다면

언젠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소나무 껍질같이 두껍고 두꺼운
그의 겉사람이 벗겨져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올 줄 믿는다

도미는 소금에 절여져
노릇 노릇하게 잘 구워져
아주 특별한 메뉴로
식탁을 근사하게 장식할 것이다

물감 냄새나는 아내

꼬박 밤을 새우고
내 곁에 눕는 아내
유화물감 냄새가 난다

몇 시간 동안 한 곳을 응시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아내
참 별난 취미를 가졌다

붙은 눈을 비벼 떴고
날 따라 새벽 기도 오는 아내
기도해야하는 건 언제나 자신의 몫
그림 못지 않게 중요한게 기도시간인가 보다

교회 사역하느라 못 그린 그림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그려 댄다
집에 자꾸 쌓이는 캔버스들
하나 하나에 아내의 열정이 들어 있다

중년도 늦은 나이
흘러간 시간을 붙들고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찾는 아내

아마 내가 천국가고 없어도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사랑하는 그림이 있으니 말이다

12월 맞이하며 외 1편

이 선 화

벌써 여기까지
걸어온 발걸음 돌아보니
사계절 다리를 건너온 나무들도
맨 몸으로 외로이 서 있다

매일 매일
뛰면서 다닐 때는
오늘 가면 내일도 네 것이기에
마음껏 누리며 천년 만년 나의 것

멈추지 않은 시계 바늘
어느새 12월 끝자락에
나를 옮겨 두니
놀란 가슴에 달려올 본다

날 수를 계수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뛰어 온 세월
밝은 태양은 새해에도
우리 길을 밝혀 주겠지요



| 이 선 화 |

- 경남 사천 삼천포 출생, 시낭송가
- 가림문화회, 부산문인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영도문인회 회원
- 한국가림문학상 수상
- 시집 『인생은 바다』

한 그루 나무 열매

한 그루 나무는
사계절 다리를 건너면서
세상 물결 파도에 쓰러지며
넘어 지며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살아야지
깜깜한 터널 속에서
생명은 자라고
눈물로 부르짖고 토하는 사연들

어느 날
밝은 태양이 떠오르며
걸어온 길목을 환하게 밝혀 주니
혼자가 아닌 그 분이 업고 왔습니다.

한 그루 나무는
무성한 잎새에 예쁜 열매들이
12명이 주렁주렁 열려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굴뚝과 담쟁이 외 1편

이 승 훈

사람이라는 벽에 막혀
담벼락만 전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벽이 허물어진 집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삭막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저 높다란 굴뚝을 뚫고 빛을 보기로

기어오르는 것은 참 힘들었다
미끄럽고 축축한 터널을 지나야 했고
시꺼먼 재를 뒤집어써야 했다

춥고 배고픈 겨울이 지나 결국 하늘을 보았다



| 이승훈 |

- 경남 함안 출생
- 부산가야교회 안수집사
- 前 법무부 교정공무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신인상 수상(2020년)

봄비 오는 곳은 날
주인이 돌아올 바다를 향해
파릇파릇한 손가락을 흔들고 있었다

어미소의 울음소리

밤새 어미소는
팔려간 새끼 찾아
검은 눈물을 흘리며
쇠 대문을 향해 슬피 울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벤세메스의 두 어미소도
그렇게 울고 갔으리라

풀떼기 씹으면서 땅을 갈고
한 데서 잠을 자며 수레를 끌고
새끼 낳아 등록금 대어주던 머슴

어느 장날 아침
흰머리 아버지
늙은 소를 끌고 집을 나서는데
걸음걸이가 느그적 거리고
지 새끼 팔 때처럼
음모오~ 울고 갈 때
아버지도 어미소도
눈 밑이 축축이 젖어 있었다

숨길 수 없는 빛 외 1편

정사라

어둠이 깊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감추려 해도 숨김없이 드러나는
빛으로 숨어드는 민낯

보여주기 두려워도
드러나는 실체를 숨길 수 없는
오롯한 나만의 해수海水

심연深淵이 떨릴 때
숨바꼭질은 끝나고
수면은 문처럼 열린다.

빛 그 한가운데로
감싸안음 속에서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



| 정사라 |

- 2018 《문학도시》 시부문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사위예술인협회 회원
- 부산시낭송협회 회원

고장 난 이불장

어제 밤 그렇게 싸우고도
마음과 몸을 합쳐야 할 때가 이때다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사람이 열고 밀고 닫고를 한 사람인 양 해야한다.

땀다고 결눈질이라도 할라치면
같은 일을 반복 해야한다.

어느 순간
내 맘같이 딱 맞춰졌을 때
하이파이브로
다시금 하나가 된다.

바람이고 싶다

정 신 자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바람
그런 파란 바람이고 싶다

푸른 들판을 끝없는 바다 위를
별거벗은 맨발로 사뿐 거닐고 싶다
흰 구름의 등도 밀어주고
심심한 물과
땀뿜기도 타면서 함께 노래하며
그런 파란 바람이고 싶다

바람이고 싶다
파란 바람이고 싶다
어떤 무게도 어떤 모양도 없는
그런 파란 바람이고 싶다

너의 가슴에
한 송이 꽃을 피우는 바람이고 싶다



| 정신자 |

- 2007년 <새시대문학> 등단
- 시집 『갠지스에선 아무도 울어선 안된다』 『그냥가자』 『세월이 물이다』
- 한국꽃 문학상, 부산여성문학상, 오륙도 문학 대상, 수상

잘 산다는 것 외 1편

글향 정연원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청사포 카페에서
푸른 바다 운슬을 보며
커피잔 너머로 던지는
지인의 슈류탄 질문

괴롭고 힘들어도
자신의 선택지 붙들고
쫓쫓이 버티는 것

지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꿈 향해 전진하는 것



| 정연원 |

- 『문학도시』(2016) 시 등단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상담 석사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천문인협회 회원
- (사)자살예방전국학교연합회 부산시 부회장(생명존중 전문강사)

외로운 자신
스스로 응원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결눈질 아니 하고
자신의 방향과 속도로
달려가는 것
운명의 길이 끝날 때까지

전유성 묘비명

지구에 불시착해
재밋게 남다르게
살다간 아이디어맨

심야극장과 심야볼링장도
그의 머리에서 탄생

초라한 시골 간판 없는
국수집에 ‘면사무소’라는
멋진 이름도 선물

남 따라 살기는
너무 쉬워도
남다르게 살기는
정말 어려운 법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보시하고
세상을 물구나무 선 채
살다간 개그 천재

지구를 떠나며 묘비명으로
의미심장한 웃음
툭 던지고 가네

‘웃지마! 너도 곧 와’

문 앞에서 외 1편

조 현 숙

구포국수 식당이 문을 닫았다

큰 길가 모퉁이 요지에
국수 한 그릇 이천 오백 원 받아 장사가 될까
걱정스런 시선이 무색하게
몇 년 동안 자리를 잘 지키더니
불 꺼진 가게 문에 폐점 안내문이 붙었다

밖으로 쫓겨나 쌓아놓은 짐기들
엎어진 의자들 틈새로
부상병 같은 신음이 새어 나온다

한때 저것들은
한 끼 국수에도 배부른 사람처럼
흐뭇한 시선으로
찬바람이 쓸고 가는 거리를 내다보았을 것이다



| 조현숙 |

《시선》 등단(2017). 부산문인협회 편집위원, 새부산시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부산여류문인협회 부회장. 제31회 부산문학상(2024), 《문학도시》 작품상(2022)수상 외 다수. 시집 『미로역에서』 『상처가 상처에게』

문이 열릴 때마다
가난이 찬 공기처럼 우르르 들어와도
이내 김 오르는 멸치 국물로
마음을 데우곤 했겠지

고명 없는 국수처럼 희멀건 하루를
정성껏 우려내던 그는
어디로 갔을까

가늘게 이어오던
국숫발 같은 날이 끊어진 걸까

문 하나로 나뉘는
안과 밖의 온도

닫힌 문 앞에 누운 낡은 의자처럼
구멍 난 꿈들이 노숙하는 차가운 거리에서

기다린다
빼꺼이는 문을 열면

가난한 바람도 안으로 들여주던
그의 목소리를

국물을 듬뿍 부어주며
또 오십시오 인사하던 그 사내를

그림자의 재발견

- 시편 139:9~10

이젠 놓아주세요

밤새 뒤척이던 창문이
부스스 깨어나면
꿈속까지 따라온 감시의 눈길에
간절히 빌었던 기억

희부연한 햇살로 어둠을 잘라내며
하루의 처음과 끝이 맞닿을 때까지
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철조망에 걸렸다

넘어질 때마다
어둠 속 눈빛은 가시처럼 자라고
찢린 자리에 붕대를 감아도
지혈은 되지 않았다

불을 켜면 드러나는 옷의 얼룩들
찢어진 살갓에 새겨진 죄의 목록
거기까지 쫓아온 그림자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으며 울었다

눈물 후에야
비로소 열려오는 새벽 빛
끝내 놓지 않는 일이 사랑인 줄
그제서야 알았다

오륙도 외 1편

최귀례

운무에 갇힌 덩그런 바윗돌이
다섯 개
아니
여섯 개라고 하는 오륙도 섬이다

누가 그려 놓았을까

빈 바다에
물방울 하나 똑똑 흘러 놓았을 뿐
천지사방이 여백이다

바닷속 비경이 시선을 끌어당긴다
새파랗게 물결치는 망망대해의 거치는 공간이다
가마우지들의 암벽
방패섬. 솔섬. 등대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들의 공연은
날이 갈수록 길어진다



| 최귀례 |

- 2003년 <문예한국> 등단 2021년 <창조문예> 추천 등단
- (사)부산시협 부이사장, 한국기독교문협 이사
- 부산크리스천문협 고문, 해운대문협 고문
- 시집 『폴 세잔느의 여행』 외 4권

거센 풍파와 굴곡진 삶을 널어놓은
바다 갤러리

오륙도 섬은 명작이다

광야의 소리

차창 밖의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까칠했어

익숙하지 않은 낯선 발음들이 빈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기적을 밟으며

길게 뻗은 철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어

처음과 끝의 굉음이 시발점이었어

황량한 벌판을 뒤흔드는 한 마리의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광야를 포효했어

거대한 몸집의 쇳소리가 빨려 들어가는 일몰 때

나는 형용할 수 없는 태초의 시간에 머물렀어

밤낮 광활한 들판을 달리다가 멈춘

코발트 빛 하늘에 뜬 선명한 무지개는

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소리 나지 않는 선물이었어

차창가에 붙어 외치는 승객들의 환호 소리

칸 칸마다 그득그득 감사로 채워졌어

낭랑한 웃음소리가 빈 들판에 메아리치며 종착역에 도착했어

엄청난 짐들이 긴 줄을 서는 동안 나는

알흔 섬 부르한 바위 끝에 서서

역센 비바람에 반항하는 거센 파도 소리를 품었어

주기도 외 1편

최 만 공

이렇게 기도하라
파란 하늘 해맑은 바람 일렁이는
초록 언덕에서 일러주신
천국 열쇠 기도

그 옛날부터
산 위와 사막의 메마른 수도원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부터

아름다워 목이 메이는 음률
우리가 드려야 할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기도
짚막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선물



| 최만공 |

- 부산크리스찬 문인협회 이사
- 청옥문인협회 이사
- 부산문인협회 회원
- 청옥문협 등단(2016)
- 시집 『신비한 성좌』 『들꽃처럼 뭇별처럼』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니

이른 새벽
창 밖의 고요한 어둠 바라보며
무릎 꿇습니다

낮의 밝음 속에서
돌로 떡을 만들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까
천하의 영광에 취해볼까

지난 밤에 그 깊이깊은 어둠이
시험에 허덕인 미숙한 삶을 다독여 주신
치유의 손길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지난 날의 은총
오늘과 다가올 날을 위해
말씀의 밥 먹고 그 물 한 모금 마십니다

시조

김민주 | 상흔

모정희 | 압록강, 그 밤 외 1편

윤현수 | 추수 감사 외 1편

허성욱 | 나그네 소견 외 1편

상흔*

김민주

성냥을 끄는다
상흔을 지핀다.

흔절한 통곡소리
치마폭에 묻어 두고

별경계 달아오르는 한줄기 불길 속으로.

육(肉)이 남긴 한줌 재
허무 되어 날아갈 제

동강난 혈육의 정
서릿발로 돌아 있어

비틀린 연기 따라가
하늘 찾는 내 영혼.



| 김민주 |

- 1999년 경남문학 시 부분, 시조문학 시조등단
- 작품집: 그리움은 바다가 된 다. 그 사랑은 걸작 품 외
- 현: 무지개 연구소 운영 (상담, 치유, 교육)경영학 박사&칼라테라피

태어나 산다는 것 죽음 향해 가는 것을
태워야 할 생의 무게 타고 말 육의 껍질
흰 재로 삭은 내력 속에 지퍼 문 불씨 하나.

* 경남신문 신춘문에 본선 작품 - 재편집

압록강, 그 밤 외 1편

모 정 희

소리 없는 강물이 가슴을 베어내며
저만치 까치밥 흐물흐물 떨어지고
강 저편 숨어 흔들던 엄마손 희미하다

별빛은 부서져서 발밑에 숨어들고
물살은 얼어붙어 온몸을 휘감으면
한 번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 숨는다

바람에 몸을 맡겨 어둠을 넘어 타고
남으로 남으로만 침묵으로 울부짖는
엎어져 던져버리는 생명줄만 잡는다



| 모정희 |

- 2011년 《시조시학》 여름 신인상 시조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재무
- 유월인교회 전도사 · 부산구치소 교정위원(교육)
- 저서 『노을강 붉은 매화향』 외 2권

우리는 하나

별빛이 흩어진 날 얼어붙은 강바다만
바람손목 부여잡고 낮선 새벽 길 떠난다
흙냄새 오래된 기도 홀로 타는 등불만

북녘의 바람소리 심장을 두드리고
단힌 창 울먹이는 새들의 찬양소리
눈물은 보이지 않는 강 하루가 무겁다

하늘바람 따라가면 어느새 고향집에
처마끝 고드름에 손편지가 얼룩덜룩
강물이 하나되는 날 우리라고 부른다

디카시조

추수 감사 외 1편

多才 윤현수

피약별 맹 더위를
감사히 머리 이고
하나님 축복 속에
영글린 땀방울이
자연의 오묘한 순리
거짓 없는 세상사

간절함 기도제목
수고의 보답열매
실바람 벌 나비랑
화관무花冠舞 춤사위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부국대한富國大韓 세계에



열심을 다한 농부의 행복을



| 윤현수 |

- 아오 다재多才
- 광안생명교회 은퇴장로, 현재 (주)영남교통 전무이사
- 2018년 11월 계간(청옥문학) 시,시조 등단
- 청옥문학협회 시조분과 회장, 석교시조문학 이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저서 : 시조집 『마음에 담은 세월』, 석교시조22인 선집 외 다수
- 수상 : 2021년 석교시조 우수상 수상

바벨탑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교만

한없이 높아지니
하늘에 다다랐네

겸손은
믿음의 선물
낮은 자세 사랑을

나그네 소견 외 1편

허성욱

자타 긍정 생활 자세
참으로 귀한 태도

내가 그리 소중하면
남도 그리 소중한 법

귀하고 소중한 인생
아름답게 가꿔야지

승자 각본 생활 자세
책 안에서 유유자적

현장에서 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참으로 만나지 못하는
오작교가 아리구나.



| 허성욱 |

1984년 시조문학 천료, 시조집 "월포리 사설" 외 3권, 산문집 "하나님의 종력장" 외, 성지교회 교사 청년(녹조근정훈장), 크리스천문학상(2021), 거제교회 기관목사, 허성욱심리상담클리닉 원장

가로수

남산정역 4번 출구
광덕 물산 앞길에서

잘리고 비틀리고
휘어진 식물들이

가을을
건너가려고
옷들을 벗고 있다.

오후 세 시 가을 하늘
태양은 구름 뒤에 숨고

건널목 신호등이
내외를 하는 거리

장로님
날 부르시는 목소리
적막을 깨우신다.

《부산 크리스천문학》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 원 모 집

크리스천 문인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로 오세요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학과 지성을 추구합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문학정신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마다 문학이며 신앙 세계는 곧 문학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문학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님을 기다립니다. 기성 문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작가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연락 주실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이 메 일** _ 2050jsp@hanmail.net
- **연 락 처** _ 주간 : 010-2561-1221 / 편집장 : 010-3851-4428

- **신인상 원고 모집**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에서 신인을 선발하는 작품을 공모합니다.
당선된 분은 작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회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응모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장르를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시조 - 각 5편씩
 - 동화 - 1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동시 - 5편
 - 소설 - 1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수필 - 2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평론 - 1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원고 보낼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주 간 이메일** _ 2050jsp@hanmail.net / **연락처** _ 010-2561-1221
 - **편집장 이메일** _ yunhyung7@hanmail.net / **연락처** _ 010-3851-4428

수필

- 공기화 | 어떤 왕초의 피서
구애순 | 동병상련
권갑숙 | 퍼스트클래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김복임 | 피난준비
김은희 | 나의 기도실
김해용 |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
노장현 | 삶을 찾는 기쁨
명인숙 | 등불을 더 밝게 켜두고 싶다
박경영 | 함께한 39년 금혼식 넘어 또 함께
변순희 | 꽃
성윤자 | 마지막 해수욕
윤평원 |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준우 | 연어의 탈을 쓴 가물치
전진경 | 오직 감사
조광순 | 이삭줍기
최방식 | 저승꽃 지우기
한인환 | 상도商道

어떤 왕초의 피서

공기화

허리 수술 전날 종일 수많은 검사를 받았다. 심지어 나신^{裸身}이 되어 받는 검사도 있었다. 이튿날, 경동맥 CT를 찍고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의가 주사하고서 이름, 생년월일 등 질문한 후에 발을 움직여 보라고 하는데 다리가 콘크리트에 뿌리박힌 통나무처럼 도통 움직여지지 않았다. 정오가 좀 넘어 시작했던 수술이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병실에서 눈을 떠보니 어두컴컴한 초저녁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고등학교 동기이자 병원장인 김형동 박사가 병실에 찾아왔다. “몸 좀 어때, 괜찮냐? 수술은 잘 되었다. 점차



| 공기화 |

땅끝교회, 은퇴장로, 월간문학21에서 수필 신인상(2001), 문학도시에서 시 신인상(2016),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고문), 부산문인협회, 한국장로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회원, 수필집 『뒷모습을 그리다』 외, 시집 『흔들리며 산다』 외

나아질 거다.”라는 말을 들으니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가 나간 후 한 시간 후에 주치의가 와서 “몸 좀 어떻습니까?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높은 사람을 뭐 그리 많이 알아요?”라며 웃으며 말했다. 성소의원 병원장인 박희두 장로에게 내가 수술받는다 고 했더니 이 병원의 이사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누운 병실은 4인 실이지만 꽤 넓었다. 병실을 휘돌아 보니 까칠하면서 눈매가 날카로운 40대, 수다스럽지만 다정한 50대와 세상을 거칠게 살았으나 선한 눈매를 가진 60대가 보였다. 병실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식사하라고 하였다. 아침 식사 때에 나의 맞은편 60대 환자가 말을 걸어왔다. “형님 컨디션 좀 어떻습니까?”라며 말하였다. 이 “형님” 소리는 이상했으나 밀양 수산 출신인 그가 나를 많이 챙겨 주었다.

그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스무 마지기 논농사를 지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였단다. 지금은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허풍인지 모르나 중학교 때부터 싸워서 저본 일이 없다는 것을 보아 주먹도 세고 세상일에 달관한 듯 말도 청산유수로 하기에 나는 그에게 ‘이 박사’라고 불렀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 “형님, 아직 걷는 것도 불편하신데 식판은 제가 가져다 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서 내 식판을 거두어 수거대에 가져다 놓았다. 아침뿐만 아니라 삼시세끼 식사 후에 식기를 대신 처리해 주니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침 식후에 커피 두 잔을 타더니 한 잔을 가져와서 “형님 모닝커피입니다.”라고 말하며 나에게 건넸다. 졸지에 그의 헌신(?)에 의하여 병실에서 왕초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아마 병실에서 내가 제일 연장자여서 그런가 하였다. 병실 동료들도 그와 같이 허리 수술한 나에 대한 배려가 컸다. 간혹 잇기 쉬운 복대를 얹고 일어서거나 화장실에 갈 때면 복대를 하라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 박사는 병원에서 하루에 13,000보 이상 걷는다고 했다. 아침 식후 세수하고서 병실을 나서면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어김없이 나타났다. 시간이 되어 아주머니들이 식판을 나눠주는 데도 그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병실의 환자 중에 “이 씨가 병실에서 식사를 안 할 것 같네요.”라고 말하자, 내가 “두고 봐라, 마실 나간 강아지도 밥때가 되면 집에 돌아온다니까..”라고 말한 지 2분도 되지 않아 그가 병실로 돌아왔다. 좌우시간 그는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사람이어서 병실에 활기가 넘치게 했다.

한날 손목에 붕대를 칭칭 감은 조폭같이 생긴 젊은이가 들어왔다. 우람한 덩치에 팔에 문신까지 했으니 영락없는 조폭 같았으나 눈은 선하게 생겼다. 이 박사는 그에게 “어이 조카,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노?”라고 묻자, 그는 “택배 일하다 왔습니다. 팔은 싸우다 다친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이 박사는 젊은이가 병실에 들어오자 ‘조카’라는 호칭으로 기선 제압부터 하여 병실의 위계질서를 잡았다.

병실 생활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 밤에 신경 쓰였던 코골이 소리도 노래 같이 들려 내 코골이로 반주 맞추며 지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인가? 환경에 적응하려고 몸이 익히나 보다. 이 박사의 사물함은 방물장사 아줌마보다 물건이 더 많았다. 내 손톱이 길어져 그에게 손톱깎기를 찾으니 그는 즉각 사물함에서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병원에서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치의의 회진 시간, 샤워실 이용 방법, 머리 감겨주는 시간뿐만 아니라 병원 1층부터 걷는 코오스, 병원 밖에 나가는 개구멍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복 숨기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심지어 오후에 그와 함께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때가 있었다. 환자 생활을 몇 차례나 하여 병원 내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다. 물리치료사들은 그가 나타나면 반기기까지 하였다. 그곳에 환자가 많을 때는 나를 새치기하게 하였다. 그는 이 병원의 기인이었음이 분명하였다. 그는 내가 퇴원하기 사흘 전에 퇴원하였다. 그는 나에게 “형님 제게 전화 자주 해주 이소.”라고 말하고 떠나갔다. 그가 없는 병실은 조용하여 재미가 없었다.

이 박사가 퇴원하기 전에 조폭같이 생긴 30대에게 “어이 조카야, 교수님 잘 보살펴 드려라.”라며 나의 돌봄을 그에게 인수인계하고는 퇴원했다. 이 박사 대신 그가 나를 보살펴 주었는데 느리고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설픈 조직을 관리하려고 해도 물자 보급이 잘되어야 한다. 먼 회객들이 와서 남긴 빵, 과자, 김밥, 음료수와 같은 전리품(?)을 조직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그러저럭 병실에서 왕초가 되어 잘

지낼 만하게 되니, 병원장이 나에게 “몸 좀 어때? 좀 걸을 만하냐?”라며 묻기에 “응”이라고 대답했더니 광복절을 앞두고 특사(?)로 퇴원하였다.

윤 팔월이 있는 올해의 여름은 무척 덥고 길었다. 기온은 시원하게 관리되어있는 병원에 있으니 밖에 얼굴에 땀이 흘러 소금이 되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7월 말부터 늦은 장맛비가 내리기도 해도 우산 없이 지냈다. 곳은비가 종일 내렸던 예년의 장마와 달리 스콜과 같이 잠시 소나기가 퍼붓다가 금방 그치고는 여름 햇빛이 따갑게 비쳤다. 가끔 새벽 비가 내렸다. 창가에 침대가 있었던 나는 낙수 소리를 세다가 새벽잠을 설치며 뒤척댔다. 올여름처럼 더운 때에 수술하여 고생 많다고 말하는 면회객에게 “아니야, 한창 더운 때에 병원에서 피서 잘하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웃었다.

피서와서 가장 힘든 것은 주일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지만, 옥상에서 핸드폰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 한 달 동안 시원하게 잘 지냈다. 병실에서 왕초가 되어 불편한 것 없이 지냈으니 여름 피서가 이만하면 호화스럽지 아니한가?

동병상련

구 애 순

새벽 운동으로 봉황동 유적공원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렀다. 돌아보니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다. 서로 누구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들어서 한순간에 “아~ 구연동화!” 하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나는 한때 복지관에서 구연동화를 공부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중단했었다. 오랜 사귄은 아니어도 즐거운 시간을 공유했기에 그 여인을 만난 것이 반가웠다. 남자 같은 이름을 가진 ‘시덕’씨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는 훈훈한 성품이다. 그 후 우리는 약속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그곳에서 만났다.



| 구애순 |

- 수필가 초록이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 수필 계간지 『여기』 2010년 여름호 등단
- 수필집 『아버지와 바람나무』(2011), 『풀마을 잔영』(2021), 『풀마을 소녀』(2022)
- 부산문학인협회 회원, 김해문학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학인협회 회원
- 부산시 문학상 수필 부문 우수상 수상(2012)

소나무와 편백과 은행나무 등이 적당히 비켜 서 있는 산책로는 온종일 그늘이라 무척 시원하다.

시덕 씨가 먼저 맨발로 부드러운 마사토 길을 걷다가 건강에 좋다고 나에게 권유하여 함께 맨발로 걸었다. 시원한 그늘 길을 아낙네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걸으며 세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모르는 사람과도 어느덧 친한 사이가 되어서 산책길 친구가 된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간지럽고 시원한 느낌이 색다르다. 걸기를 마치고 가져간 물병의 물로 발을 씻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나지막한 구릉(丘陵) 주위의 공원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잔디밭과 벤치도 많으나 여자들은 언제나 산책길 옆의 나무 밑에서 논다. 장난기 많은 아낙이 선머슴처럼 자신의 키만큼 높은 이름 모를 나뭇가지에 팔다리를 걸치고 호랑나비 번데기같이 매달려서 소리친다.

“나무에 아줌마 열렸다!”

그 소리에 모두 웃음꽃을 피운다. 다른 아낙들도 나름대로 나무에 매달려서 팔심을 기르는가 하면 맨손체조 등 가벼운 운동도 한다.

운동을 마치면 바위에 걸터앉아서 담소를 나눈다. 애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웃음 치료 선생이 아줌마들과 합류했다. 벤치로 옮겨 앉아서 웃음치료사의 코치로 웃고 노래 부르고 한참을 떠들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바쁜 아낙과 웃음 선생이 돌아간 숲속에는 한가한 중늙은이들만 남았다. 한 아낙이 아무개가 연전에 위암 수술

을 받고 나서 지난여름을 이 공원에서 소일하더니 요즘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옆의 여인이 놀라서 소리쳤다.

“어머 정말이에요. 나도 그래야겠네.”

4개월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송 여인은 미풍에도 날아갈 것처럼 가녀린 몸매다. 그는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암이 재발하여 다시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라고 했다. 환자 같지 않게 예쁘고 젊어 보이지만 위암의 고통을 되새기며 재발을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러던 송 여인이 어느 날부터 새벽 산책을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쩐지 마음이 쓰였다. 겨우 네댓 번 만남 사이로 알뜰살뜰 정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암이 재발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불편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을 뿌리쳤으나 코스모스 꽃잎같이 가녀린 송 여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시덕 씨와 둘만 남았다. 우리는 둘 다 남편을 대장암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다. 바위에 걸터앉아서 부채질하던 그가 내 손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당신, 남자 반지 끼었네.” 내 손에는 남편의 반지가 끼워져 있다.

대장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주말농장을 팔려고 서둘렀다. 우리 밭과 이웃한 부자에게 싸게 팔겠다는 말 한마디로 흥정이 성사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았다. 병에 지친 남편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을.

농장 계약금 받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돌아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이었다.

농촌 태생인 우리 부부는 노후에 시골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려는 꿈이 있었다. 어찌어찌 시골에다 집 딸린 작은 농장을 샀다. 주말마다 가서 이것저것 채소를 심어 가꾸었다. 이제 나이도 적당히 들었고 꿈을 실현할 날이 가까웠는데, 불치병 때문에 땅과 희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남편은 억울했을 것이다. 나는 슬픔에 빠진 남편에게 금목걸이와 반지를 사서 선물했다.

장신구 착용을 귀찮아하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굵직한 순금 목걸이를 좋아했다. 남편은 어떤 일인지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오래 지니지 못했다. 중년에 큰돈 주고 마련한 한 냥짜리 금목걸이는 목욕탕에서 잃어버렸고, 그 뒤에 마련한 한 냥이 넘는 십팔금 목걸이를 또 어디선가 흘리고 왔다. 그 후로는 쪽 가짜 목걸이를 걸고 다녔다.

이번에도 남편은 선물 받은 목걸이와 반지를 몸에 지니지 못했다. CT 촬영할 때나 큰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간호사가 잔소리했다.

“목걸이 빼세요. 반지 빼세요.”

남편은 간호사의 주문이 귀찮다고 자신의 약손가락에 낀 반지를 내 중지에 끼워주었다. 당신이 끼고 있으니 보기 좋다면서 목걸이도 풀어서 내 목에 걸어주었다. 그날부터 남편의 반지와 목걸이는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

주말농장 처분한 돈으로 텃밭 딸린 주택을 샀다. 남편이 얼마나

오래 살는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시골농장 대신 텃밭을 가꾸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서 새로 산 집에서 하루도 함께 살지 못하고 잔금 치른 지 나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 둘이 함께 살려고 마련한 집에 덩그러니 혼자 사는 것이 헛헛했다.

산책을 마치고 시덕 씨와 함께 우리 집에 왔다. 마당의 작은 텃밭에 고구마 잎이 너울너울 풍성하다. 지난해까지 주말농장에서 남편과 가꾸던 고구마의 후손이다. 둘이서 밭에 들어가서 고구마 줄기를 따다 부드럽고 연하여 잘못 건드리면 넝쿨이 푹푹 끊어졌다. 한 아름씩 딴 고구마 줄기의 잎을 따내고 줄기만 큰 봉지에 한 가득 담았다.

“당신 남편 덕분에 내가 무공해 채소 먹게 되었네.”

시덕 씨가 기뻐했다. 그때 문득, 위암 재발을 걱정하던 송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덕 씨에게 부탁했다.

“혹시라도 송 여인을 만나면 우리 집에 와서 고구마 줄기 따가 라고 전해 주세요.”

“나만 예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사람 좋은 시덕 씨는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때때로 코스모스같이 여린 송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내일 아침에는 그녀를 만날 수 있으려나...

오늘 밤이 빨리 가고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퍼스트클래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권갑숙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뒹굴거렸다. 언젠가 둘째가 소개해 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들고,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 주방, 침실까지 집 안 곳곳으로 꺾적을 그리며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린 자유가 선물 같았다. 이번 추석 연휴가 무려 7일,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면 10일이니 정말 황금 같은 연휴다. 여행을 가기에 완벽한 휴일이라 시댁만 갔다 오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두 번이나 긴 여행을 다녀와서 자제해보기로 했다. 대신 숙제로 미뤄뒀던 집안정리를 하자고 다짐했지만, 결국 또 게으름에 패하고 말았다.



| 권갑숙 |

- 2011년 부산크리스천문학 수필로 등단
- 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 수필집 <로렘나무를 꿈꾸며>

이 책은 자기계발서지만 한 편의 소설처럼 술술 읽혔다. 16년 동안 국제선 퍼스트클래스 객실을 담당했던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 승객들을 밀착 관찰하며 공통되는 성공 습관을 적은 책이다. 퍼스트클래스석은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이라고 말한다.

비행기 전체 승객의 3% 이내로 좌석이 지정되고 이코노미석의 비용에 비해 4배 이상 비싸며, 비즈니스석의 운임보다 2배나 비싸다. 그러니까 4:2:1인 셈이다. 심지어 거의 할인된 가격을 받는 이코노미석과 비교하면 20:8:1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단순히 돈으로 측정한 수치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만나기 힘든, 세상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승객들이 대부분이라고 적었다.

대화법, 메모하는 방법, 발성, 주위 사람들 대하는 태도, 걷는 자세, 독서법, 여성을 대하는 태도, 시간 관리법까지 그들만의 습관 DNA가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그중에서도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인품이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한 부자’ 모습은 그들에게서 찾기 어려웠다. 다양한 환경의 한계가 있더라도 항상 남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노력이다, 즉 상대방과의 거리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승무원에게 부탁할 때는 항상 완충 어구를 써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들의 성품은 모든 행동에서 묻어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내가 남편에게 그토록 찾고 싶었던 삶이거늘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진리로 깨닫고 산지 오래인지라 더 깊이 각인으로 남는지 모르겠다.

‘이런 품위는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걸까?’

책을 덮은 후 갑자기 엇그제 아침 사건이 대비되어 떠올랐다. 그 날은 출근길이었다. 아침 7시 30분쯤, 마당으로 내려갔더니 밤새 내 차 앞에 여러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내 차가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우리 집 마당은 대략 1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이지만, 늦은 밤까지 1층 식당 손님들이 주로 주차한다. 그러나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의 차가 항상 서너 대 정도의 주차는 예사다. 하지만 그날의 내 차는 안쪽에 있었고 차량 세 대가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한가운데 있는 양곡 배달 트럭은 아직 미완성의 발음으로

“함(할)머니! 덩(집)에 못가!”

라면서 고사리 같은 양팔로 현관을 막고 서 있는 딱 두 살짜리 우리 손주 모습 같았다. 왼쪽으로 붙든지 오른쪽으로 붙든지 하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땅의 한가운데 제 존재감을 팍 눌러놓고 있었다. 나는 좌우로 나가보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내 차 앞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히 부아가 치밀었다. 내 마당이거늘 이렇게 연락까지 해서 부

탁을 해야 한다니, 남의 마당을 쓰려면 차가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놓고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일찍 차를 빼 주든지 이걸 뭐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그런데 그 차주는 되레 귀찮은 듯 억지로 “네~”라는 대답만 하고 끊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나 싫어 곧 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어디선가로부터 뛰어오겠지. 하고 좌우 골목을 번갈아 가며 쳐다봐도 뛰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 사이 마당 가장자리 한 줄로 늘어놓은 화분에 남천과 국화잎이 메말라 누렇게 변색 된 모습이 보였다. 잠시라도 물을 줘야지 생각하고 수돗가로 가는 사이, 순식간에 차 문이 여닫히더니 행하니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처럼 도망을 가버렸다. 오늘만큼은 한 마디 일침을 줘야지 버리고 있었구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 꼴이 되고 말았다.

그 자리는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자리다. 지난밤 충전 못 한 것도 미안할 텐데 아침까지 남에게 불편을 겪게 했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라는 한마디 말은 상식 아닌가. 이처럼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그 사람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진다.

하기야 이곳 K 도시로 이사 온 이후 주차 문제는 자주 겪던 일이었다. 도시 어디든 주차난이 심각해서 우리 집처럼 빈 마당에 얼마든지 주차하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생각이라 늘 동네 차들이 우리 마당에 주차하도록 아예 울타리를 치워

버렸다. 대다수 사람은 밤새 주차하다 아침이면 거의 다 빠지고 없어졌다.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까지 앞줄을 다 막아놓은 차량은 더러더러 있었다. 그럴 때면 꼭 연락해야 빼 준다. 얼마나 번거롭고 서로가 불편한지 모른다. 그리고 보니 여태까지 단 한 사람도 죄송하단 말을 남기고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예의를 생략하는 게 미덕인지, 이 마당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지. 내가 자주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어도 주차 양해를 구하고 주차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공터에 주차하듯 당당하게 주차하고 볼일을 보러 간다. 그럴 때마다“ 이참에 다시 흰스를 쳐 버릴까보다”싶은 괜한 응심이 차오를 때가 더러 있다.

‘사람은 누구랑 이웃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날의 사건을, 열을 내며 들려준 뒤

“우리도 퍼스트클래스의 승객처럼 매너 좋은 도시로 이사를 갈까?”라며 빈말을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남편은 내 마음을 만져주기보다는 능청스럽게 이렇게 받아친다.

“먼저 퍼스트클래스 승객처럼 품위를 갖춰보는 게 어떠세요, 사모님?”

그 말에 나는 웃지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한 채 그 중간 어디쯤 해매며 입안에서 뱀도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린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결국, 나는 이코노미석 승객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피난준비

김복임

2025년 3월 21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5개 지역을 휩쓸고 있다.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산불로 보인다. 집을 잃은 강아지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사진, 주인이 떠난 집에 묶여 있다 화상을 입은 반려동물의 안쓰러운 모습이 마음이 아리다. 얼마나 급했으면 식구 같은 반려견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떠났을까!

바람이 태풍 수준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할 뿐이다. 12시간 만에 의성에서 영덕까지 날아간 불씨는 도깨비불이다. 산불은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환자와 같다는



| 김복임 |

- 《문학도시》 수필 등단, 《수필과비평》 수필 등단, 《아동문예》 동화 등단
- 2019년 부산문화재단 창작금수혜, 2019년 목련나무가 있는 집 수필 발행
- 2023년 남원시 예술지원금 수혜, 2023년 아버지의 우물 수필 발행
- 황산문예 회장, 부산크리스천문학 회원, 부산문인협회 회원, 수필과 비평 회원

생각이 든다. 치매 환자인 지인의 남편이 집을 나가 밤새 길을 잃고 산을 돌아다니다, 구조단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온 얘기를 들은 터다.

산이 좋아 부산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7년이 지났다. 삼봉산자락 해발 600m에 우리 집이 있다. 의성 산불도 진행 중인데 3월 26일 산청군 구곡산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진다. 천왕봉은 이곳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삼봉산자락으로 불이 옮겨붙는다면 바로 지척이다. 갑자기 피난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이 가까이 왔을 때 급하게 빠져나간다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할 것 같아서다. 카드, 통장, 여권, 주민등록증을 챙겨서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에 챙겼다. 짧은 날 여행 중에 사들인 여러 나라의 특색있는 목걸이와 액세서리 몇 개도 챙겼다. 더 챙길 게 없나 생각해 보니 매일 먹는 건강식품과 우선에 입을만한 옷 한 두벌 챙기려다 부질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버리고 피난을 나온 분들을 생각하니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들었다.

노심초사하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낮에 사촌오빠 밭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온 탓인지 세상모르고 자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을 깨워 함께 피난 가는 일이 가장 먼저일 것 같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롭다. 초등학교 때 학교 뒷산에 올라 아까시나무 씨앗을 따 모으던 때가 있었다. 사방사업의 하나로 헐벗은 산에 아까시나무 씨를 심는 일은 수해를 막고, 산이 황폐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아까시나무가 산림을 해친다고 박대하는 소리를 들을 때 괜히 내가 서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울컥하던 순간이 있었다. 그 서럽던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침이 되니 다행히 바람이 자고 있다. 지리산 지역에 비 소식이 있다. 별장계 불꽃이 번지고 있는 산에 세찬 빗줄기가 내리는 환상이 눈 앞에 펼쳐진다.

“방화선이 뚫렸으면 천왕봉까지 3시간이면 불길이 도착해요. 그랬다면 손도 못 쓸뻔했어요. 다행히 지리산이 무사해요. 눈물이 납니다.”

큰 불길이 잡힌 30일 남송희 산림청협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리산이 무사하다고 소식을 전했다. 진화대원들이 험준한 산세를 뚫고 사력을 다해 산불 확산을 막아낸 덕분이다.

산불 피해가 막심한 지역민들과 나무들과 산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미안하다. 갑자기 목이 마르다.

“산불에 길을 잃어도 씩으로 돌아오라”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준 문구이다.

작은 불씨가 강풍의 날개를 달고 화마로 변했다. 수많은 생명을 태우며 지나간 자리에 새순이 보인다. 설마 설마 하며 더듬거리는 눈으로 다시 살펴본 그 자리. 연둣빛 새순이 숨 쉬고 있다.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다. 새순을 살짝 입에 넣어본다. 분명 길을 잃지 않고 돌아왔다.

달착지근한 그 맛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로 돌아온 둥굴레 새순!
우리의 희망이다.

나의 기도실

김은희

오랜만에 글을 적으며 벌써 한 해가 기울었음에 놀라게 된다. 올해 초 ‘꿈 보드(dream board)’ 작업을 하면서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깨끗한 거실과 여행 사진, 운동 장면을 붙였는데 기도실에 갈 때마다 보게 된다. 존경받는 어른, 실력 있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도 시각화해서 붙여 두었다.

안방 한쪽 벽면에 책장을 1미터 정도 앞당겨 배치하면서 생긴 공간에 나의 기도실이 생겨났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십자가 모양의 은은한 나무 전등이 있



| 김은희 |

- 부산문학인협회 시부문 작품상 (2023)
- 부산문학인협회 수필부문 신인상 (2024)
- 마음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다. 간혹 그곳에 앉아 잠잠히 있노라면 내면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것 같다. 때때로 내면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
기도 한다. 나의 욕심으로 시작한 기도도 궤도를 수정하면서 하나
님 뜻 가운데로 진입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꿈 보드로 만든 내
용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오래도록 버리고 버리던 30평대 구축 아파트를 리모
텔링했다. 경비를 최소화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부분 리모델
링을 했다. Y사에서 가구 공장을 하는 동생이 수납장을 짜 넣어주
고 부엌 싱크대를 고쳐 주었다. 꿈 보드에 붙인 사진처럼 거실과
부엌, 방이 깨끗해지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다. 집에 들
어갈 때, 샤워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베란다에도 작은 테이블
과 의자를 갖다 두고 하늘 명, 구름 명, 비 명을 때리며 가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두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결실은 수필가로 등단하게 된 것이다. 수필 반
에서 만난 분들은 내가 본받고 싶은 아주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
람들이다. 수필이 좋고 수필 반의 문인들이 좋아 어울리다 보니 어
느새 수필가가 되어 있다. 서툰 글들을 적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파편들은 C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작품으로 탄생했다.
마치 폐품이 건사한 예술품으로 재탄생하는 것 같았다. 나의 단상
들은 피가 돌고 근육이 붙으면서 생명력 있는 근사한 수필 작품으
로 만들어졌다. 언젠가는 G 선생님처럼 지원받고 수필집을 발간
할 날도 있으리라.

세 번째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배드민턴

을 쳤으나 부정맥에 격한 운동이 좋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아쉬운 마음에 라인댄스 반에 들어가 춤을 배웠다. 여행 일정으로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춤을 추면서 몸의 언어가 얼마나 정직한지 알았다. 최근 심리치료의 동향은 몸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기법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테면 호흡으로 불안을 다루고 감각 알아차리기를 배우는 것이다. 오감과 감정, 욕구를 알아차리고 접촉하게 함으로써 심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생애 첫 서유럽 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12박 14일로 짜인 여행 일정이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바티칸 제국까지 8개국을 탐방했다. 마치 교과서 밖을 뛰쳐나가 걸어 다니며 세계사 공부를 한 느낌이었다. 이해되지 않던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지면서 세계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종교개혁의 발원지를 탐방하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순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이 따랐는지 깨닫게도 되었다.

다섯 번째는 개인 상담실을 확장하면서 ‘전 국민마음 투자사업’을 유치했다. 함께 일하게 된 사람도 생겨서 앞으로 연구와 실습을 더 알차게 하게 되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마다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영성과 실력을 갖추기로 결의한 사람들이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슈퍼비전하고 전문 서적을 읽는 모임이다. 전문가로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되어 기쁘다.

그 외에도 덤으로 얻은 결실들이 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연차를 다 써버려 쉴 수가 없었는데 직장에서 포상으로 휴가를

이들이나 받게 되었다. 연말에 고요한 힐링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사실 올 초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아져 다소 무기력해질 무렵 애써 ‘꿈보드(dream board)’ 작업을 했다. 어렵게 작업을 하고 난 이후 그 꿈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려는 나를 붙들어주는 경험을 했다.

내담자들을 만나면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을 하곤 한다.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린이 나치 포로수용소에서 인간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토대로 정립한 이론이 ‘의미치료’이다. 전쟁 중에 아이를 안고 피난 가는 젊은 엄마에게 ‘아이를 지키는 것’이 삶의 이유이듯 살아야 할 이유, 살아서 하고 싶은 것이 의미가 될 수 있다. 의미는 자신보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해를 지날수록 일 상에서 찾으려 한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서 하고 싶은 것을 목록화하고 꿈꾸려고 한다. 소설가 한강이 말했듯이 ‘사랑은 누군가의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는 금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언제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을까. 다시 새로운 시간 앞에서 ‘꿈보드(dream board)’를 펼친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기도의 금줄이 이웃을 거쳐 하나님 심장까지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새 힘을 달라고 다시 나의 기도실에 앉는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

김해용

유다(이스라엘)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고, A.D 70년에는 로마에 패망하면서 1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으면서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되었다. 그때부터 유대인은 유랑민이 되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다. 1차 대전이 끝나자 영국은 유엔의 인준을 받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다시피 하자 각국에서 유랑하던 유대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금 미국의 부자들 가운데 유대인이 많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무역과 다이아몬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조국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투자했다.



| 김해용 |

- 두리원 대표(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SINCE 1987년)
- 저서 : 『프로폴리스의 위력』, 『토양의 병은 육체의 병』 외 10권
- 수필가, 교회 은퇴 장로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그 당시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는 시온을 생각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시온니즘(Zionism)주의자들이 많았다. 이런 자들을 모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케 하였고, 이들이 곳곳의 땅을 매입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31%나 되었고, 매입한 토지도 전 국토의 5.6%나 되었다.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재벌들은 개인이 호식하는 것보다 민족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련에 있던 유대인이 미국으로 가면 유대인 단체에서는 경비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지와 직장까지 마련해주었다. 이러다 보니 조국에 대한 생각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높았다.

1947년에는 팔레스타인 땅의 50%나 점유하게 되었고,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에는 우리나라보다 3개월 앞서 독립을 선언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슬람국가에 큰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동맹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도리어 패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막강한 아랍동맹국이 침공했지만 패하게 된 것은 침공하다 동료 하나가 총에 맞으면 돌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 눈치만 보다 도망가기 바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을 등 살 등 모르게 싸우다 실탄이 떨어지면, 죽은 동료의 실탄을 주워가면서 싸우다 보니 아랍에 이길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007년에 실권을 잡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8일 이스라엘에 선제공격을 가하자 이스라엘은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다. 내린 지 48시간 만에 배치할 수 있는 병력이 36만 명이나 되었다. 이중 6만명은 외국에서 온 거주자였다.

이스라엘의 거주 인구는 960만 명인데 예비군 소집에 36만 명이 모였다. 이 숫자는 전 국민의 3.75%에 해당 되었다. 이것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말밖에는 달리할 수 없다.

1967년 6월 5~10일에 있었던 6일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연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팔레스타인의 영토 78% 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안지구의 영토까지 더 점유하자 처음 이스라엘이 점유하였던 5.6%보다 낮은 5%만 점유한 팔레스타인은 모든 영토를 거의 잃게 되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고, 해안 따라 길쭉한 면적은 565km²로 부산시 면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인구는 220만 명이나 밀집되어 있다. 좁은 면적에 인구는 많다 보니 절반은 실업자이고, 식량의 자급률도 65%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에 호전적인 하마스가 실권을 잡자 이스라엘은 경계가 되는 65km 거리에 14만 톤의 철근을 들어 6m높이의 담장을 세웠다. 그렇게 되자 팔레스타인은 이웃 나라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다. 동쪽은 지중해이고 남쪽만이 시나이반도와 이집트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집트는 입국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호전적인 하마스가 언제까지 이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이웃 나라

의 반유대단체들이 도와주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하마스가 먼저 선제공격을 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정보망을 갖고 있는 모사드가 이 모든 정보를 놓치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세계 모든 방송과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전쟁이 났을 때 바로 대항을 하게 되면 이웃 나라들로부터 동정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많은 동정심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는 거기에 10배 이상의 보복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알면서도 선제공격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받은 것에 몇 배나 더 강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공항에는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갖고 입국하는 유학생들로 붐볐다. 이들은 휴학계를 내고 입국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아랍계 공항에는 입국자들 보다 출국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징집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자들이었다. 이것만 보아도 전쟁의 승패는 바로 알 수 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언제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패전국이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부는 누리지 못하고 대신 가난에서 허덕이어야 했을 것이다. 북한은 추운 지역이지만 석탄 등 지하자원은 많아도 운송할 기름이 없다 보니 땀감은 나무밖에 없어 산들은 별거송이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다 보니 적은 비에도 산사태가 잦게 되고, 도랑은 길보다 높은 상태가 되니 논둑은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식량은 매년 20%나 부족 상태에 있다. 토양은 유기질 부족으로 모든 토양이 산성화된 지 오래되므로 생산량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북한은 거기에다 핵에만 치중하다 보니 모든 산업은 낙후되었고, 경제는 남한의 56대 1로 뒤떨어진 상태이다 그렇다 보니 영양부실로 신장은 남한보다 10cm나 작다. 그런데도 북한을 동경하는 자들이 남한에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경제력이 월등히 높아야 그들의 호전好戰성을 언제든 막을 수 있다.

삶을 찾는 기쁨

노 장 현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삶의 길에서 작은 기쁨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깨닫는 것이다. 작은 기쁨은 일상의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으나 잘 보지 않아서 둔감한 감성으로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런 기쁨 중 가장 으뜸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눈으로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이다. 한 그루의 나무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와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살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설 때다. 옹벽 밑. 길옆에 딱딱한 흙바닥에 뿌리를 내린. 노랗게 피어있는 민들레꽃 한 송이를 보



| 노장현 |

- 《에세이문예》 수필 등단.
- 뉴에이지문학, 효원수필문인회, 부산수필문예, 한국에세이문인협회.
- 부산문인협회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부산시단〉 신인상 등단.
- 시집 『아직 길은 손바닥에 있다』 『시월노을』

았다. 아주 작은 꽃잎은 진하게 노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작은 몸은 새벽이슬을 머금고 빛나고 있었다. 나는 가다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꽃은 아무도 모르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피어있었다. 주변의 거친 웅벽 사이에. 메마른 흙 위에서. 그 작은 생명은 그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화려한 장미나 백합과는 달랐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이었다. 내가 그동안 쓸모없는 잡초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그 작은 꽃을 품어내기 위한 토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민들레는 후대를 위해 꽃대 위에 하얗게 씨앗을 품고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서 스러지고 자그마한 잎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노란 색깔과 향기를 뿜내며 바람에 실랑거리던 민들레는 잠시나마 내게 기쁨을 주었다. 삶의 기쁨은 이와 같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발견된다. 따뜻한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 늦은 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처럼. 우리는 종종 특별한 기쁨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기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불완전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이 삶의 기쁨일 것이다.

아침마다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우며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보는 기쁨이 있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 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쁨이며 행복이다. 내가 걷는 길에 잇닿은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들녘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에서 나는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든가 빗갈 좋은 열매를 보는 것이나 잠시 눈을 감고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서로 정답게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것이 작은 기쁨이다. 나는 하루를 살면서 멀어 지는 수많은 사소한 일과 그로 인하여 얻은 작은 기쁨을 마음에 간직한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며 바라보는 것이다.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찾는 것이다.

하루를 지탱해 주는 작은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며. 삶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등불이다. 그 기쁨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을 바라볼 때. 오래된 책에서 묻어나는 종이 냄새를 맡을 때. 혹은 타인의 눈빛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때. 스스로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이 즐겁다. 때로는 아픔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의미는 더욱 깊은 기쁨을 낳는다. 마치 긴 겨울 뒤에 오는 봄꽃처럼. 이러한 기쁨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기쁨이란 소유가 아니라 발견이다. 이미 주어진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어떠한 외부의 조건보다 내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쁨이 없다면 삶은 단순한 생존일 뿐이다. 나는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생각하며 작은 것에 의미를 두고 나 스스로 미소 짓게 한다.

나는 기쁨을 시간과의 화해라고 말하고 싶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

들일 때만 피어난다. 흘러가는 강물에 저항하지 않는 몸을 맡기듯. 고요하고 단순한 기쁨을 얻는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책장을 넘길 때의 나는 바스락거림. 저녁 하늘의 붉은 노을 같은 것이다. 기쁨은 존재의 심연에서 솟아 나와 일상의 표면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그 빛을 따라 걷는다. 나를 삶과 화해하고, 살아 있음 자체가 언어들이다. 나는 오늘도 그 언어를 배우며, 내 안의 조용한 삶에 귀를 기울인다. 결국 현재의 순간 속에 발견되는 영원이며,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연대의 힘이다. 삶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한 기계적 반복이 되겠지만, 기쁨이 스며든다면 삶은 하나의 예술이 된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충만한 인간이 된다.

나는 때로는 새벽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새소리.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 그것은 사소한 순간이지만 또 무심히 생각하는 순간. 이곳에 삶의 기쁨이 있다. 나는 사물의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같은 장면도 무심히 지나치지만, 그 안에 삶의 깊이를 발견한다. 세상을 존재 가치로 긍정하는 바라봄에서 알게 된다. 나는 감각의 한순간 영원으로 확장 시키는 힘을 지닌다. 바람이 스치는 얼굴에 내가 살아 있다는 자각이 피어오를 때, 나는 존재 그 자체를 선물처럼 받아들인다. 그것은 순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내면의 운동이다. 세상과의 조화 속에 머문다. 고통과 어려움조차 삶의 전체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된다. 마치 음과 양이 어울려 원을 이루듯, 고통의 그늘을 통해 더욱 빛난다. 그것은 목적을 넘어선 존재의 춤이며, 순간마다 다시 태어나는 의식의 향기이다.

삶의 기쁨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다. 호흡하고 활동하는 단순한 사실. 가슴에 맺히는 설렘과 자유로움. 그리고 여전히 이웃과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러한 삶이 가장 투명하고도 은밀한 선물이 되겠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주위에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히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처럼. 저녁에 물드는 붉은 노을을 생각하며 그 작은 찰나들을 엮어 하나의 작품을 짜듯. 기쁨의 결을 내 손끝에 남기고. 작은 빛의 파편처럼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등불을 더 밝게 켜두고 싶다

명인숙

우연히 TV에서 <메리 킬즈 피플>이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여의사가 죽을병에 걸려 극심한 통증으로 시달리는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주사를 놓아주고 있었다. 안락사였다. 환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죽여 달라고 의사에게 돈을 주면서 매달렸다. 그것은 불법이므로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의사를 범죄자로 보고 추적하기 시작했다.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외국에서는 안락사를 이미 합법으로 허용한 나라도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들 한다. 병이 들어 육체의 통증으로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은 가혹한



| 명인숙 |

- 2014년 <문학도시> 수필등단,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감사,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 한국해양문학상 최우수상, 해운대미래교회 권사
- 수필집 『가벼움으로 가는길』, 시집 『오래된 길을 걸으며』출간

형벌에 다름 아닌 탓이다.

드라마는 나에게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 그것은 신의 섭리로서 신의 일방적인 약속이며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순종한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웰다잉(well-dying)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를 원한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구석구석마다 수많은 암초들이 있다.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생명을 갇아 먹어간다. 구약성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한탄한다. 생각해보면 70년이나 80년이 짧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다. 괴롭거나 슬플 때는 하루가 천추 같다고 한다. 반대로 즐겁고 기쁜 시간은 어느새 흘러가 버렸다고 아쉬워한다.

우리가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생로병사’이다. 그중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것은 육체의 ‘병’이다.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부지런히 먹기도 하고, 운동도 저마다 취향에 맞춰 열심히 한다. 그런데 현대의 질병은 과학의 발달만큼이나 진화해 가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마치 촘촘한 거미줄을 쳐 놓은 것 같은

위험한 세상인데 질병조차 침단을 달리니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삶으로 끝까지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생존 연한을 정해 준 것은 아닐까? 각자의 생존연한을 채워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어 ‘구사일생’이니 ‘불행 중 다행’이니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다. 각자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모르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나온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생을 놓기 싫어서 하는 말 같기도 하다. 구약성서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없이 천 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형이상학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나날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나에게서는 요원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숨 가쁘게 달려온 걸음을 조금 느리게 걸어가려고 한다. ‘숨 고르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앞만 보고

뛰어오느라 놓치거나 무심히 지나쳐 온 것들이 많다. 그것은 마치 나무를 심어 놓고도 가꾸지 않아 가지들이 함부로 뻗어있거나 상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것과 같다. 이제라도 잘라낼 것은 자르고 다듬어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하고 싶다.

우선 버릴 것들을 모아 본다. 슬픈 기억들과 어리석은 결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로 인해 겪었던 아픈 상처들을, 억울하게 욕을 먹었지만 진실한 마음을 펼쳐내지 못했던 답답한 시간들을 모두 미련 없이 버리려 한다. 그런 다음 즐겁게 지낸 시간들만 남겨 놓을 것이다. 행복했던 짧은 순간들을 꽃인 양 기억에 붙잡아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웰다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2025년 이해가 저물기 전에 할 작정이다. 세상 욕심과 쓸데없는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채울 것이다.

우연히 죽음에 관한 드라마를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으리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빛처럼 도달한 것이라고 한다. 드라마를 보다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 것은 결코 헛된 생각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올 때 환희와 희망으로 왔듯이 갈 때도 그렇게 떠날 일이다. 슬프지 않게 아름답게 존엄하게 떠나기 위해 지금부터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고 사는 것과 같다고 성서는 가르친다. 그렇다. 아름다운 최후를 위하여 삶에 어두움이 들 어올 틈이 없도록 믿음의 등불을 더욱 밝게 켜 둘 것이다.

함께 한 39년 금혼식 넘어 또 함께

박 경 영

아내의 잔기침에 잠을 깬습니다. 불을 켜니 새벽 5시, 곁에서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이불을 고쳐 덮어주다 실 비듬 피어있는 아내의 무릎을 봅니다. 발바닥 손바닥을 따라봅니다. 삶의 굵이굵이를 가정의 구석구석, 가족의 모습 모습을 넓고 깊게 새겨놓은 남편만이 읽을 수 있는 조강지처 희생의 갑골문자입니다. 우리 아파트 19층 내 집 앞 베란다 바깥, 옥봉산 능선 저쪽 십자가 빠알간 새벽불빛에 잠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봅니다. 아~ 벌써 우리부부 산전수전 공중전 함께한 결혼 39주년! ...



| 박경영 |

문학21(시,1998), 공무원문학가협회(동시,2001)신인문학상으로 등단.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산광역시문인협회, 창원문인협회 회원. 보국훈장 광복장 서훈(2009), 대한민국예총회장상수상. 부산광역시장 표창수상(2023년), 시집 『사람과 세상과 하늘에』외 산문집 수기 등 다수

아내는 박봉의 공무원 제 월급 근검절약하여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 저의 정년퇴직 전 우리 가족 4식구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도 장만하고, 딸 아들 대학공부에 시집 장가도 보내고, 자기들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독립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저는 이런 제 아내에게는 33년 정년퇴직의 연금통장만 손에 쥐어주었을 뿐 무엇하나 제대로 아름답고 재미있고 풍족하게 해 준 게 없습니다. 딸 아들이 독립해 나갔기 때문에 저희 부부 둘 함께 살아가는 데는 제 연금이 적당히 부족한 할 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 등 주변에서 “우리는 외국여행을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자랑처럼 이야기 할 때는 너무 미안하고 제 마음은 늘 많이 아픕니다. 아내와 저는 여권을 함께 만들어 놓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바다를 건너 여행을 가 본 것은 제주도 2번 뿐 외국은 1번도 없어 더 더욱 예~ 더군다나 2025년 지난 2월 초순에는 아내와 제가 동시에 외교부로부터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알림 특을 받았습시다. 재발급 기간이 6개월 앞으로 도래했으니 빨리 발급 받으시라는. 아내와 저는 각자의 여권 속을 들여다보고 또 바꾸어 보았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여권 진짜 깨끗하고! 정~말 가볍네~~ ㄱ~~~” 합니다. 퇴직 후 제가 가끔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미국으로 해외여행 한번 함께 가자”고 했지만, 딸 아들 시집 장가갈 때가 도래하였던 시기였고 여유가 너무 없었던 우리 가정의 가계부에 아내는 늘 “다음에 다음에요” 했지 예~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국가에 반납하고 도공승(도시철도

공짜승객)이 된 아내의 세월을 생각하며 올해는 무언가 좋은 일을 제대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에 저는 결혼 39주년 아침, 며칠 전에 사와 조금 계면쩍게 숨겨뒀던 연두색 등근 아트릭스 한 통과 작년 부산 시민감사관 봉사활동 우수 시민감사관에 선정되어 상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1만 원짜리 5장이든 봉투에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습니다. 손 글씨로 “여보~ 상아 엄마 우리 ‘금혼식’때까지 아니아니 더 넘어까지 건강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꼭! 함께 같이 갑시데이~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지만 당신 실망시키지 않고, 더 넓고 깊게 사랑하며 편안하게 하리다. 결혼 39주년 우리 함께 축하 합시다~” 당신을 찢 사랑하는 당신의 평생 좋은 동반자 ♡박경영♡이라고 써서 아내의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백(화려한 백수)은 도시철도 4호선을 금사역에서 타고 20여분 후 동래역에 내려 다시 부산역 방향 1호선으로 환승하여 어제 밤 좋은 꿈, 현실로 올 대박을 믿으며 아내가 이번 달에도 준 내 연금의 5%, 그 자금으로 큰 희망의 비즈니스를 나갑니다. 박봉의 공직 33년 정년퇴직 내 연금은 딸 아들 시집장가 가기 전 우리 가족 살아가기엔 많이 부족했지만 아내는 나의 한 달 용돈을 연금의 5%로 책정, 딸 아들 모두 제짜들을 만나 독립한 지금도 5%! 10년 전 60대나 70넘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살림의 달인 아내의 지혜로운 계산법을 넘볼 수 없기에 감히 내 용돈의 인상이야기는 금기사항! 딸 아들 시집 장가 갈 때 들어간(특히 아들에 들어간) 예산의 아픈 무게를 저도 너무나 잘 알기에 더 더욱 예~

도시철도 1호는 부산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로또복권1등이 가장 많이 나왔고, 나온다는 명당 중의 명당집이 있는 근처인 범일동역에 나를 내려주며 “화백! 파이팅!!~”합니다. 30도를 웃돌며 수십년 만의 지독했던 폭염경보만 2달 이상 지속되었던 2024년 그 여름땀을 양산으로 부채로 손바닥으로 가리고 그늘도 없는 보도블록만이 뻥뻥뻥 빛나는 인도의 50여m 긴 줄! 그 끝에 나도 부채로 햇볕을 가리고 그들과 함께 한 마음 하나가 되어보았던 그 자리!! 다시 계절만 바뀌고 날짜와 날씨만 다를 뿐, 2024년 그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큰 희망과 허허한 실망도 함께 공존하는 그 긴 줄의 끝에 2025년 오늘도 그들과 함께 서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로울 단돈 1만원의 비즈니스! 어젯밤 방 붙은 꿈도 오늘 당첨 내 번호!~”그 꿈의 비즈니스를 실천하였습니다. 초대박 그 꿈이 좋은 결과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내 살아있는 건강한 몸이 저와 제 아내의 노후를 책임져 줄 든든하고 정직한 돈! 곧 “연금”이라 코로나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저는 마스크까지 쓰고 예~ 30여분 지나니 내 차례가 오고 나는 자동5천원 수동5천원의 로또복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 도시철도 범일역 계단을 내려오다 “아차차!!”탄식! 그러나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네!~”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파배기가 생각난 것! TV방송에도 나온 유명 맛 집 파배기라며 아내도 가끔 사와 우리 가족의 입맛도 수년째 사로잡고 있는 그 파배기, 그 파배기를

산다는 생각을 놓친 것입니다. 이 곳 범일동에 올 때는 늘 집에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1년 365일 맑음보다 흐림이 많은 내 건강은 이런저런 약을 10여 년 계속 복용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지만, 아내가 내 손에 들린 까만 비닐 봉다리를 보며 “냄새 좋으네~”하며 얇은 미소를 짓고 맛있게 짜배기를 먹어 줄 때 나는 소확행까지 느낍니다. 5분 정도를 걸어 6천 원어치를 사서, 다시 범일역에서 동래 방향 도시철도 1호선을 탑니다. 운 좋게 한자리 비어있는 노약자석에 앉아 눈을 감고 또 여러 생각에 잠깁니다. 일과 살림 속 아내의 희로애락, 세상과 조직과 사람 속 저의 산전수전 공중전.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고 기어이 이겨 오늘 여기 결혼 39년까지 함께 온 저와 제 아내. 특별히 튀어나지도 않은, 보통사람들과 나란한 어께 그 일상의 삶을 내 생의 관촬은 역사로 자부하며 나름대로 보람 있게 잘 온 것은 아내의 내조가 더 넓고 깊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39주년까지 오는 데는 2번의 큰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던 저는 지금 나의 현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세상과 하늘에도 마음속으로 감사의, 깊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제 잔병엔 주치의 회진보다 더 미더운 마누라의 처방약 곰살가운 지청구 자주 듣고 마시며 보석보다 귀하고 여자보다 아름다운 조강지처 제 아내와 함께 가는 삶의 여정, 금혼식 넘어 또 함께 가는 그 세월 속에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제 아내의 높은 이름 “최 부 자”에 걸맞은 큰 좋은 복들이 쯤!~하며 반드시 현실로 실현될 정말 “눈에 보이고손에 잡히는” 현실로!! 현실로 실현될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믿으며 기도하며 예~~~

꽃

변 순 희

연꽃 구경한다고 두구동 연꽃소류지로 가까이 가니 향기가 진
동을 하며 꽃들이 마중을 나왔다. 하얀색 연꽃이 피어있기도 하고
또 연잎 속에 꽃들이 숨은 듯하다. 꽃잎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
은 품종도 있었으나, 대체로 잎의 수런거림에 살포시 안긴 느낌이
었다. 넓은 연밭에는 연잎만 왕성하고 꽃은 거의 볼수 없으며 하얀
연꽃 일색인걸 아쉬워하며 나왔다.

삼락동 연꽃단지에 내리니 붉은 연꽃이 많이 있다. 연밭 중간
중간에 키가 큰 부들의 몸통에 핫도그처럼 달려 있는 특이한 모습



| 변순희 |

- 2010년 《문학도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부산동서문학회, 부산크리스찬문학회 회원
- 저서 『저고리를 짓는 마음』
- 공저 『love, 부산』

은 그 색깔이 연잎과 잘 어울린다. 부들잎은 연꽃보다 키가 크서 바람이 불때마다 일렁이는 모습이 멋들어졌다. 연꽃봉오리는 위의 분홍빛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흰빛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보여준다.

크고 둥근 연잎은 탄탄하여 두드리면 판자같은 북소리를 내고 그 속에 외로이 목을 빼고 있는 연꽃은 함께 간 부부를 닮았다. 남자는 뻗뻗하고 탄탄하다. 덩치도 맷집도 좋고 생김생김도 무뎠다. 여자는 생김새는 가늘고 연약해보이고 어여쁘다. 내 옆에 이런 지인이 있다는게 복이다.

연꽃을 보고 집에 와서도 눈에 아우라가 그윽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두달 전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 좋은 것 멋진 것을 보면 왜 부모가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는 중풍이 들어 오랫동안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평소처럼 엄마가 살아있다면 찍은 사진이라도 보여주며 자랑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묵묵부답이었던 어머니, 나만 누리며 사는 게 늘 미안하여 엄마생각이 더욱 났다.

연밭은 접근성이 뛰어나 만질 수도 향기도 맡을 수 있다. 새벽에 사진찍으려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다. 연꽃 피는 소리가 실시간 들린다고 하니 꼭 다시 와보고 싶다.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오후에는 꽃잎을 닫고 묵묵부답이나 생리가 그런걸 어떡하

나... 매미 소리가 풍광을 더욱 공감각적으로 만들고 있다. 매미소리와 연꽃밭에서의 추억을 여름이 지나도 기억할 것 같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지금이다. 덥고 뜨거운 여름 낮이 있었기에 연꽃이 피고 매미가 울고 계절이 지나가는 것 같다.

수련도 함께 있었는데 꽃의 색깔이 빨강 노랑 분홍 흰색으로 다양한데 연과 다르다. 수련잎은 자그만 한 것이 한쪽이 갈라져 있다. 연은 잎과 꽃이 둥그렇게 부드러운 여성적이며 아담하다. 짝 펼쳐진 수련은 남성적이며 거침없는 기운이 들어가 있다. 연꽃과 수련이 한곳에 있어 그들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다.

셋노란 씨주머니는 이제 만들어 진 것이고 초록색 씨주머니는 이미 꽃이 졌다는 것이다. 연잎은 따서 연잎밥을 만들고 연꽃은 설록차 물에 담궈 백련차로 마신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 연밥이 남는데 연 씨앗이 많은 것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고 꽃말은 순결, 청순한 마음, 변영이라고 한다. 가장 햇볕이 무성할 무렵에 끊임없이 핀다고 하고 연밭 속에는 고기가 많이 사는지, 풀석거리는 소리가 난다.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생물들과 물고기, 진흙 속에서 깨끗하게 피어내는 연꽃을 바라보니, 20년 전 지인들과 함께 부여 공주 사적단지에 갔다가 궁남지에 들렀던 기억이 난다. 그때 그렇게 수 많은 연꽃이 종류별로 핀 것을 난생 처음 봤다. 속으로 많이 놀랐고 감

명도 깊었다. 그래서 해마다 피는 연꽃을 나 자신에게 보여 주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했건만 잊고 살다가 최근에야 꽃을 보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여름이 오면 더위에 지친 나에게 꼭 연꽃을 선물하기로 한다.

꽃꽂이 수업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 가위와 침봉, 수반이 필요한 동양화꽃꽂이였는데 부소재로 쓰이는 적당한 나무가지들 1주지 2주지 3주지로 나누어 키와 굵기와 휘인 정도로 자연스러운 자연 형태를 표현하였고 그 아래 적절한 꽃을 꽂았다. 마지막에는 측백 잎으로 침봉이 안보이게 마무리를 하였다. 꽃꽂이사범 자격을 땀다고 했더니 다니던 교회에서 강대상에 꽃 장식을 해 달라고 하여 3년간 봉사했다. 매주 한번 혼자 나와서 강대상 꽃꽂이를 했는데 꽃을 자르고 눈높이에 맞추어 매만지는게 행복했던지 삼 년이 순식간에 지난 것 같았고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탄탄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면서 나무와 꽃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숲해설사과정을 배우는 장에 나가기도 하였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길가의 풀꽃이든 화원속의 꽃이든지 그것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꽃다발을 상장과 함께 수여하는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중에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꽃이요 내형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겠는가, 신약성경을 꼭 짜 내면 사랑이란 두글자가 나온다고 했다.

꽃을 가까이하고 꽃을 만질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 내면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싶다. 아무리 화장술이 좋다 해도 꽃보다 아름다울 수야 없지 않은가

철따라 피는 꽃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 나무도 잡초와 마찬가지로 반듯히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있고 내년에 내후년에도 피는 꽃, 죽지 않고 영원하기에 인간보다 한 수 위가 아닐까,

수필가 이태준이 한 달간 앓고 나서 병실에 꽃힌 카네이션을 보고 ‘이채찬연한 화원! 희고 붉은 연분홍인, 나의 눈은 주리었던 음식에 보다 더 달았다’ 라는 대목이 있다. 나도 허전하거나 복잡한 심사일 때 꽃을 보러가고 꽃에게 무한한 위로를 받는다

마지막 해수욕

성 윤 자

흰 갈퀴를 날리며 파도가 철썩인다. 파도가 떠난 자리마다 모래섬이 나타난다. 끝없이 펼쳐진 바닷물 속에는 얼마나 많은 모래가 숨어있을까. 파도는 쉬지 않고 모래를 실어와 모래섬을 만든다. 섬 안에 또 작은 섬이 생겨난다.

태양이 머리 위로 내리쬐인다. 모래섬이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시시각각 변한다. 모래섬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래섬이 놀이터처럼 펼쳐지지만 내 앞에 물결이 가로막아 모래섬으로 다가갈 수 없다.

얇은 물이다. 침병침병 뛰어 들어가 혼자만의 놀이터로 삼고 싶



| 성윤자 |

- 경남 하동 출생
- 2003년 『한맥문학』 시 등단, 2016년 『문학도시』 소설 등단
- 2017년 『크리스천문학』 수필 등단
-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김해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김해중앙교회 권사(현)
- 시집 『옛집에서의 하루』 외 4권

다. 저 모래섬에서 강아지처럼 뒹굴고 뛰논다 한들 누가 나무랄까. 혼자 어색하여 얼굴이 붉어진다. 곁에 일행이 있어서가 아니다. 아이도 아니고 젊지도 않으니 모래섬을 뒹굴며 마음껏 놀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늙은이가 아니요’라고 등에 써 붙이고 다녀도 내 외양은 바꿀 수 없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내가 어찌 저 모래섬에 침범 뛰어들어 흙강아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바닷물은 아직도 내게 무서움으로 다가온다. 이 바다에서 나는 수영을 했고 바닷물은 그때 그 자리에서 출렁거리고 있다. 파도가 덩치 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갑자기 나를 향해 달려올 것만 같다.

스무 살 무렵이었다. 월급 삼천 원을 양장점에 몽땅 주고 검색 깔깔이 원단으로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 한 벌을 지었다. 그 걸 입고 친구와 해수욕하러 이 바다에 왔다.

난생처음 와 본 해수욕장은 보는 것마다 신기했다. 상인들은 모래 위에 상점을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손님을 불렀다. 주렁주렁 걸려있는 색색의 수영복이 바람에 휘날리고 챙 넓은 모자와 커다란 튜브들이 모래 위에 담장처럼 차곡차곡 쌓여 손님을 기다렸다.

우리는 가장 비싼 수영복을 대여했다. 탈의장에서 말끔하게 갈아입고 바다의 멋쟁이로 변신했다. 검은색 큰 고무 튜브도 하나 빌렸다. 수영복도 처음 입었고 튜브 사용도 처음이었다. 물놀이 경험이라곤 시골의 얇은 냇물에서 찰싹거려본 게 전부다. 모든 게 낯선 나는 다만 친구를 따라 행동했다.

처음에는 얇은 물에 튜브를 띄우고 오가며 놀았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물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우리는 튜브 양쪽에 매달려 몸을 의지하고 점점 멀리 바다 깊숙이 들어갔다. 다가오는 파도는 탕글탱글한 튜브를 둥둥 띄워 주었다. 바닷물 위를 동실동실 떠다니니 세상을 다 가진 듯, 몸도 마음도 가볍고 상쾌했다.

둘은 마주 보고 깔깔 웃으며 모래사장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 발이 모래에 닿지 않았다. 우리는 인어공주나 되는 듯 발을 휘저으며 놀았다. 온몸에 나른한 전류가 흐르고 자유를 만끽했다. 구름 위를 노니는 듯 꿈만 같았다. 우리는 점점 바다 멀리 나가면서 대답해졌다.

“너, 튜브 위에 누워 볼래?”

“그럴까? 재밌겠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튜브 위에 반듯하게 누우려는 순간이었다. 튜브가 한쪽으로 쓸렸다. 나는 미처 튜브를 잡지도 못하고 물속으로 뒤집혀 가라앉고 말았다. 세 사람이 튜브를 잡았더라면 내가 튜브 중앙에 누워도 양편에 두 사람이 튜브를 잡고 있으니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잡고 있던 한쪽을 놓아버렸으니 튜브는 친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물속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렸을까. 손에 잡히는 것은 모래뿐이었다. 물속 모래 위에 엎드려 킁킁거렸다. 그다음은 기억나지 않는다. 튜브에 매달린 친구는 내가 물밑으로 사라지자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 살려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평일이라 바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다행히 저만치서 수영 하던 청년이 나를 물속에서 찾아 병원으로 옮겼다고 들었다.

그날 이후 해수욕을 못 해 봤다. 죽을 고비를 넘긴 그날 이후 지 금껏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

자연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친다. 도전해볼 만한 대상이지만 그만큼 조심스레 다가가야 한다. 오십 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그 생생한 기억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더 늦기 전에 바닷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해수욕에 조심스레 도전해보고 싶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윤 평 원

가정에서 사용하는 벽지는 주인의 취향이나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그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른다. 요즈음은 화려한 꽃 무늬며 기묘한 디자인이며 고운 색상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 공간에는 색상이나 무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지 어울리지도 않는 벽지로 도배해 놓은 데도 더러 있다. 일테면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이나 석보상절 언해(諺解本) 등을 인쇄한 벽지 같은 것 말이다. 훈민정음 옛 글자 자체(字體)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시각적 표현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가? 문서로 보는 이는 없을 테고 하나의 장



| 윤평원 |

- 거제 출생, 부산대학, 고려대학에서 수학, 부산사대부고 교장
- 부경교회사 연구회 지도위원, 크리스천경남 편집위원, GMP부산지역 이사,
- 한국언어학회회원, 한국전문용어연구회원 역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수필집 『석등무늬 인생』(2012.4), 『이런 교회가 있었네』(2012.12), 『나이야 가라』(2020.11), 시조집 『정감이 묻어나면』(2019.10, ebook 2020.4), 『아무렴, 감사하지요』(ebook 2021.2)

식 디자인으로 보아 넘기기가 일쑤이리라.

그런데 이 벽지가, 여관방에 발라놓은 벽지가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_{入城}을 하시려고 베다니아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제자들이 명_命을 받고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와 겹옷을 걸쳐 놓고 예수님을 태웠다. 감람산 내리막길을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러자,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며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늘어놓자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_{應對}하셨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돌들이 아니라 벽지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 아마도 이는 상상력에서 오는 시적 표현이려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도배지가 소리를 질러 못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_{契機}가 되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올해로 134년 전,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선교사님과 한 석진 목사(1907년에 안수 받음)님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1891)의 일이다. 마포삼열은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1890년 1월 입국하여,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기미독립운동을 적극 도운, 한국인을 너무 사랑한 선교사이다. 꺾패였던 이기풍도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감화를 받고 목사가 되어

제주도에 파송되었다. 한석진은 백홍준, 서상륜에게서 전도를 받고 모팻선교에게 세례를 받았다. 상경하여 언더우드 신학神學반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평양에 파송 받아 평양 외곽外廓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마포선교사와 함께 장대현교회 집회를 인도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그의 설교를 듣고 신앙에 입문하였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이 서북지역에 파송을 받고 평양을 처음 방문하여 머물던 여관방 도배지가 복음 전도의 큰일을 벌이는 단초端初가 되었다고 한다. 방의 온 벽면이 모두 성경으로 도배를 하여 놓아서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어째서 이런 일이? 그 주인을 불러 그 연유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소상한 전말顛末을 들려주었다.

“내가 열두 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대동강에 미국 배(General Sherman號) 한 척이 들어왔어요, 구경을 나갔더니 관군官軍이 쏜 화포火炮에 맞아 배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러자 배에서 책을 던졌어요. 곧이어 배에서 내린 서양 사람이 뭐라뭐라 말하면서 제게 책을 쥐어 주지 않겠어요. 조금 뒤에 그 파란 눈의 서양 사람은 백사장에 꿰어얕힌 채 관군의 칼에 목 베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어떻게나 떨리는지 나는 그 책을 들고 덜덜덜 떨다가 겁이 나서 관군 대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책을 받은 영문營門 주사主事는 그 책을 가져와 보니 한지韓紙로

된 좋은 종이로 된 책이었다. 종이가 귀하던 때라 그는 제본_{製本}을 풀어 도배를 하고 말았다. 몇 년이 지난 뒤 그 집을 팔게 되자 서양 선교사에게 책을 받았던 최치량이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사용하였다. 때마침 그 여관에 마포삼열 선교사가 한석진 청년을 대동하고 평양 첫 방문차 들렀던 것이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최치량은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영문 주사 박영식도 예수를 믿고 장대현교회 신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여관이 예배 장소로 쓰이게 되었다. 이 집이 널다리교회였다. 얼마 뒤 널다리란 순우리말 이름 대신에 한자식 이름으로 장대재교회로 바뀌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짓고 순 우리말 ‘재’를 ‘고개 현_峴’자로 고쳐서 장대현교회로 하였다. 1907년 평양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대부흥의 본거지가 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이 일은 우리나라 교회사의 시작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이다.

왜 우리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활기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입이 있지만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말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보이지 말아야 될 자태_{姿態}만 보이고 살아가지 않는가? 귀가 있거나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살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연어의 탈을 쓴 가물치

- 파락호 김용환 선생을 기리며

이 준 우

어제 수업 중 잠깐의 휴식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정 교수님을 마주쳤습니다. 수업 중 교수님의 고향이 안동이라는 말씀이 떠올라,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안동 김씨이신가요?”

교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의성 김씨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파락호破落戶’로 불렸지만, 실은 뜨거운 애국심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님이었습니다.



| 이준우 |

- 경남 함천 출생
- 2014 문예시대 시 부문 신인문학상
- 2023 상반기 크리스천문학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

그분을 처음으로 만난 곳은, 경북 안동 임하면의 경북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안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로, 정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와 순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지요.

선생님의 생가에 들어섰을 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의 풍경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좁은 산골에서 자란 저의 눈에도, 그곳은 고요하고 막힌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생가의 마루에 걸터앉아 제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100여 년 전 그분의 삶의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한때 그분은 세간의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상의 재산을 탕진하며, 투전판을 드나드는 난봉꾼.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3대 파락호 중 한 명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딸의 혼수비용마저 노름에 탕진하고, 딸은 어쩔 수 없이 이모의 현 장롱을 들고 시집가야 했습니다. 장롱을 본 시대 식구들은 귀신이 붙었다며 강가에서 태워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본 딸의 마음도 그 불길 속에서 타들어 갔습니다.

문중에서는 그를 보다 못해, 잃어버린 토지와 집을 대신 사주며 책망했을 것입니다.

“여보게, 정신 좀 차리게. 명문 집안의 장손이 어찌 이 지경인가?”

그러나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잃은 것들이 사실은 나라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용환 선생님은 일부러 정신이 흐려진 듯 행동하며 일제의 눈을 피해 막대한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습니다.

파락호라는 오명은 스스로 쓴 가면이었고, 그 아래엔 조국을 위

해 모든 것을 감춘 고결한 선비의 정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방 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나?”

“아닐세.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말하지 말게.”

선생님의 삶은 마치 연어와도 같았습니다. 먼바다를 돌아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온 연어처럼,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연어는 마지막에 자기 몸을 내어 새끼들의 양식이 되듯, 그는 그런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어의 탈을 쓴 가물치였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눈이 멀었고, 오히려 새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썩어 강물에 흘렀고, 그 물을 받아먹은 강변의 나무들과 풀들은 풍성한 생명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민족을 살리는 영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의 진심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배 참봉 나리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아버지의 진실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거짓에 속았던 것입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있었고, 세상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안동 시내에는 지금도 ‘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문구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 아래에서 문득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잠언 22:1)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도 혜택을 누리려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 앞에서, 그분의 후손들이 느낄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썩어도 종교와 교육만은 썩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 다윗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기도 하지요. 진짜 정신은, 때로 어리석어 보이는 침묵 속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가물치의 후손을 만난다면 옷깃을 여미며 정중히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롱을 감내하고도, 진실한 정신을 지킨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남긴 흔적은 연꽃처럼, 진흙탕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올랐습니다.

오직 감사

전진경

오래 만에 지난 밤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다. 매일 오후 일곱시와 여덟시 사이에 꼭 둘째딸이 안부를 묻는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요?”

딸 아이의 물음에 오늘 하루 지난일을 꼼꼼히 말하며 웃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보고 아닌 보고도 한다.

엄마 혼자 사는게 안타까운 모양 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그이가 간지도 십년이 넘었다. 손가락으로 년도를 세 보고 달을 세 보기도 하지만 확실히 십년이 지났다. 내 의식 속엔 그이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 분명 나 혼자 인데 때론 같이 있는 것이다. 확실



| 전진경 |

- 2001년 《문학과예술》 등단
- 모시울회원, 부산수필회원, 부산문인협회원
- 부산진구청명예예술학교장, 새시대문학회원 부전교회 은퇴권사

한건 딸 아이의 전화만 없다면 나는 한마디 입도 병긋 안하고 잠들 것이다. 이것을 알았을까. 딸 아이는 엄마 주무실 때 꼭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자라며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전화하란다.

현관문은 잠구었느냐고 꼭 묻는다. 서면 바다 사층 건물에 일층은 세를 주어 임대료를 받고 삼사층은 텅 비어 있다. 나 혼자 이층에 살고 있을 뿐이다.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이 끝나면 나 혼자 이 건물에 덩그러니 있게 된다.

생각하면 공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거처 하는 이층 문을 잠그고 현관 복도 방에는 CCTV가 켜져 있다. 누군가가 모르고 올라와 무엇을 잘못 건드리면 당장 온 건물에 소리가 나게 장치해 놓았다. 이것은 아들의 발상이었다. 아버지가 가시고 엄마 혼자 이곳에 있는게 신경이 많이 쓰였나 보다. 두 내외가 같이 살기를 원 했지만 나는 단번에 거절했다.

“뜻은 고맙지만 엄마 혼자 사는게 편하다.”라고 말한지 십년이 지났다. 사실 처음 삼년간은 참으로 힘들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 했어야 됐을까 바람소리 빗소리 햇살 속에도 그이는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만 삼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나를 내리 누르던 그 어떤 암석 같은 무게가 싹 사라졌다. 그리고 참으로 빠르게 바람처럼 칠년이 지났다. 동시에 육십년의 세월이 내가 살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기도 하며 매일을 의식 하며 살았는데 바람처럼 사라지고 편편히 존재 하면서 없어져 버렸다.

왜 어른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이 끝났다는 말을 실감하며 이해가 갔다. 내가 경험 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

들이 겪는 인생의 실체를 지나고 나서야 꿈처럼 느껴지는가 보다. 포괄적인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 성경과 교회와 주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제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지금 문화와 비교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 그 이전 왕권시대를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과 욕망만이 들끓던 그대에 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지금도 전도하기가 힘든데 그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성심껏 대접 할 수가 있었을까. 내 나이가 팔십이 넘었는데 그 전전부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었을까. 자랄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면 놀라움과 감탄뿐이다.

친정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고등고시에 합격한 분이고 어머니는 경성 사범을 나오신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물어 봤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찬송가를 통하여 음악을 알고 천구백오십년대에 나를 위해 아버지는 피아노를 집에 들여 놓으셨다. 부산 여중에 있던 낡은 피아노가 생각 난다.

가정집에는 거의 없었고 간혹 풍금이 있었을 뿐이었다. 지금의 시민공원은 그때 하야리아 부대였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하야리아를 통해 피아노를 구할 수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의 직위때문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초등학교때 피아노를 가르칠 선생이 없었다. 부산여중에 입학 하고 나서야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다.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 여중 여고를 다닐 때 구덕산에 가까이 가면 멀리 학교가 보이고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녀의 기도”라는 피아노 소리는 나를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 너무 좋았다. 여중때 이곡을 외우고부터 지금까지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된 곡이다. 이 곡을 연주할때는 나는 아버지의 환한 웃음과 응접실에 모인 손님들의 박수 칭찬이 내 가슴을 행복하게 하며 그 리움에 젖게 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감사합니다. 나같이 모자라고 아둔한 여자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경을 읽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만과 자만의 극치에 빠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 입니다. 주님 창세기를 읽지 않았다면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까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붉은 가시 넝쿨이주님의 얼굴에 콧 박힐 때 주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었을 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수심에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자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돌아 볼 줄 아는 자녀로 키울 수 있었을 까요. 주님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내가 받은 만가지 축복을 알기나 했을까요.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세상 사람들이 모두다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

리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의 어린아이때부터 주님을 알아 모두 복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깊이 주님께 바랍니다. 기도를 하며 염원을 품고 주위를 둘러본다.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할 일이 너무 많다. 힘 닿는대로 노력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오늘도 아름다운 생명의 날이다.

이삭줍기

조 광 순

초봄이면 저장용 대파를 산다. 대파는 혹한기를 잘 견뎌낸 덕에 달짝지근하고 식감도 부드럽다. 손질해 놓은 대파는 아기의 살결 처럼 윤기가 흐른다.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더해 주니 약방의 감초나 다름없다. 이맘때 대파는 명품 대파라고 해도 손색없다.

대파는 버릴게 없다. 오뉴월 염천 대파와 달리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병충해가 적어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 잎이 짧고 하얀 긴 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뿌리는 잘 씻어 건조한 후 감기약을 만들거나 다시물 만들 때 넣는다. 다양한 크기로 잘라 냉동실에 저장하고 화분에도 조금 심어둔다.



| 조광순 |

- 2023년 《문학도시》 수필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목우수필문학연구회 회원

십여 년 전 일이다. 명지로 이사 오고 옥상에서 바라본 사면은 온통 푸른 대파밭이었다. 마치 크고 작은 마을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같았다. 낙동강 하구 모래톱이 육지가 된 곳이라 대파심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적당한 바닷바람과 물 빠짐이 좋아 우리나라 대파 70%는 이곳에서 재배했다.

집 안팎의 작은 텃밭은 남편과 나의 놀이터였다. 할머니들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않았다. 왕초보 농부에게 알려줄 일들이 산더미 같은 듯 훈수에 애가 탄다. ‘이랑이 높으니 낮추어라, 모종 간격을 넓혀라, 무 새순은 옮겨 심지 마라, 토마토는 줄기와 잎 사이 새순은 따 주어라.’ 시골 인심이라 여기며 호미를 내려놓고 음료수를 내왔다.

마음이 헛헛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들길을 달렸다. 개망초, 달맞이, 꿩랭이, 미국쑥부쟁이꽃이 들길 따라 지천으로 피어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눈을 감고 추억 속의 냄새를 떠올린다. 가뭇한 기억이 감친다. 풀 속에서 메뚜기가 포르르 난다. 행여나 방아깨비가 있을지 몰라 나뭇가지를 주워 풀 속을 휘저어본다. 졸고 있던 방아깨비는 혼비백산이 되어 뛰어 보지만 널뛰기 수준이다. 반갑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방아깨비의 긴 뒷다리를 엄지와 검지로 잡는다. 아래위로 움직이며 방아 찧기를 한다. 어린 시절 이 모습이 좋아 잠시 놀다 보내 주기도 했다. 추억은 문득문득 선물처럼 찾아와 미소 짓게 한다.

대파 수확이 끝난 밭에는 이삭이 널려있다. 잠시 주웠는데도 자전거 바구니에 가득하다. 집을 향해 오는데 트럭이 가까이 오고 있

다. 농로라 겁이 많은 나는 자전거를 세우고 차가 지나가길 기다린다. 자전거에서 내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만 발으로 굴러떨어졌다. 아픈 것보다 창피한 마음이 앞섰다. 트럭에서 내린 아저씨는 한동네 사람이다. “아이고 아줌마 괜찮은교?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저씨는 자전거를 올려주며 염려하는 눈치지만 웃음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다. ‘에구 이 무슨 창피람.’ 길에서 높지 않아 다행이지만 부딪친 자리가 욱신거렸다.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다. 트럭 아저씨가 대파를 수확하고 오는 길이라며 두 단을 건네주면서 어제 넘어진 곳은 괜찮으냐고 안부도 물어준다. 대파 단이 얼마나 큰지 한 단을 두 손으로 들어도 무겁다. 가슴이 뭉클하다. 아저씨는 어제 자전거를 올려주면서 널브러져 있는 대파를 눈여겨본 것 같다. 지난번에는 마늘종 뽑는 방법을 몰라 줄기를 찢어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걸 지켜보더니 마늘종 뽑는 도구를 두고 쓰라며 주고 갔다. 좋은 이웃이 있는 건 감사한 일이다.

이곳 마을에는 마을버스 한 대만 다닌다. 새끼줄을 던져놓은 듯한 긴 마을이라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훤히 알고 있다. 주변에는 흔한 마트 하나 없으니 하단 장날이 되면 승객이 많다. 짐이 있는 마을 사람은 정류장이 아닌데도 그 집 앞에 차를 세워주는 친절을 베푼다. 대파 이삭을 주워 난전에 내다 파는 할머니들이 있다. 된 길을 살아가는 할머니들은 당신의 몸집보다 큰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불룩한 배낭까지 메고 버스에 오른다. 마음 좋은 승객이 올려주고 기사는 안쓰러운 듯 “할매요, 또 짐이 많능교! 제발 좀 짐 좀

줄이소!” 큰 목소리로 나무라지만 그 모습도 어찌나 정겨운지.

초봄이라 냉이와 쑥, 돌미나리가 지천이다. 주인의 밭길이 뜬한 밭이랑에는 잎이 큰 냉이가 탐스럽게 깔려있고 수확이 끝난 대파 밭에는 이삭이 함씬하다. 도시는 봄나물이 귀한 시기인데 농촌 들판은 먹거리로 넘쳐난다.

교회 친구들을 불러들인다. 주일날 보았는데도 반갑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들판으로 간다. 냉이, 쑥, 대파 이삭을 보는 눈빛이 빛난다. 물 만난 고기처럼 밭이랑을 헤집고 다니는 손놀림이 분주하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감탄사에 들판이 들썩인다.

점심 준비하는 내 손길도 분주하다. 쑥국과 냉이, 쇠비름나물, 지짐, 수육도 삶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손 가득 수확한 보따리를 들고 개선장군처럼 대문을 들어선다. 평상 위에 짐보따리가 가득하다. 힘든 것도 잊은 듯 얼굴에 낫꽃이 피어난다.

낮에 보아둔 밭이 있다. 밭 주인들은 상품성이 있는 대파만 골라 수확한다. 마음이 급해진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다음 파종을 위해 밭을 갈아엎는다. 저 많은 대파를 포기할 수 없다. 못 이기는 척 승합차를 몰고 따라나선 남편은 넓은 밭을 둘러보며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한다. 좋은 것만 골라 뽑아도 끝이 없다. 어둠이 내려 달이 뜬 줄도 몰랐다.

뽑아온 대파를 마당에 내려놓으니 작은 텃밭을 옮겨 놓은 것 같다. 대충 손질해서 여러 묶음으로 분류한다. 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에 감사가 밀려든다. 달빛이 발썩발썩 웃으며 우리 얼굴을 환하게 비춘다. 달빛 아래 별빛 같은 추억 하나를 만들었다.

저승꽃 지우기

최방식

사람마다 얼굴은 생김새와 이목구비가 다르고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40대 이후 얼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삶을 살아 왔는지 편안하고 인자한 모습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삶의 날들을 보냈다면 웃음이 없는 표정에서 딱딱하고 힘든 삶의 흔적을 엿 볼 수 있다.

사람마다 잘 생긴 배우의 얼굴처럼 예쁘고 피부도 곱다면 보는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잡티나 검버섯이 무허가 건물처럼 무질서하게 피어있다면 흉하고 갑갑하게 보인다. 오래전에는 저승꽃이라 불리던 이것이 요즘에는 검버섯이라 불린다. 어떤 글에서



| 최방식 |

- 2017년 『부산크리스천문학』 수필 등단
- 2018년 『문학도시』 수필 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 수필 『함께 뜨는 손가락』, 향토지 『용당동의 빛과 어둠』

저승꽃이라도 예쁘게 봐달라는 말에 가슴 뭉클한 적이 있었다. 늙었지만 예쁘게 봐 달라는 말이었다. 얼굴에 이 꽃이 피면 괜스레 우울하고 수심이 피고 나이를 먹었다는 신호로 받아드린다.

이 꽃은 예고도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비집고 들어와 불청객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있다. 가만히 자리 잡고 있어도 신경이 쓰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세력을 서서히 확장하기도 한다.

보기에 좋고 깨끗한 얼굴을 만들려면 이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부수적으로 비용과 시간,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 예쁘게 된다면 이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는가? 아름다워지고 싶고 젊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관심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며칠 전 식사를 종종 함께하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평소에는 쓰지 않던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으니 얼굴이 울긋불긋 엉망이었다. 놀란 얼굴을 하자, 동창회에 참석했더니 친구들이 “돈 모아두었다가 어디 쓸거고? 한 판에 얼마 안한다. 얼굴 손 좀 보라.”고 다그쳐서 그저께 손을 좀 봤다고 한다. 평소 검버섯이 있었지만 저다지 심했는지 얼굴을 보고 서야 알았다.

옛날에는 나이든 남자들이 미모에 관심을 두고 얼굴에 손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곰보도 그냥 살고 언쟁이도 스스로 인정하고 살았으니 말이다. 이제 세월과 시절도 많이 변했다. 알고 지내는 이웃 형님이 검버섯이 심하여 얼굴 손 좀 보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어느 날 깨끗한 얼굴로 나타나 나이 보다 훨씬 젊고 미남으로 보여 깜작 놀란 적이 있었다.

수명이 길어지고 대인관계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젊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잡티나 검버섯을 뺐다. 이런 일은 요즈음 흔히 있는 일로 내 주위에도 여러 명이 얼굴의 보기 싫은 저승꽃 흔적을 말끔하게 지워버렸다. 나이가 들면서 잡티나 검버섯이 생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이것을 지우려 하는 생각도 당연하게 인식되어져 가는 것 같다.

나는 친구에게 “잘했다.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잘하는 짓이다. 두 달 정도 상처에 약을 바르고 마스크를 하여 햇볕을 피하고 관리를 잘 하고나면 이전보다 얼굴이 깨끗하고 훨씬 젊게 보인다.”고 말했다.

나 역시 중년이 끝날 때 즈음, 검은 점과 검버섯이 생겨나 나를 조화롭던 나의 얼굴에 작품성 없는 검은 섬들을 여기저기 박혀있었다. 애초에 함께 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놈들이 몰래 비집고 들어와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것들을 말끔히 지우는 지우개가 없을까? 하던 중 광고를 봤다. 몇 번 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지워 진다는 연고를 혹하는 마음으로 써서 여러 날 발랐지만 아무소용이 없었다.

이놈들은 날이 갈수록 세력을 넓힐 뿐 아니라 짙어져서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고객을 만나고 응대하는 직장인이기에 어렵게 날을 받고 보기 싫었던 점과 검버섯을 뺐다. 처음 검버섯을 뺐 때 고통이 잠깐 있었지만, 날마다 마스크를 하고 자외선 차단에

공을 들이며 관리하는데 더 힘이 들었다.

손을 보고 난 뒤 한동안 깨끗하고 맑은 얼굴로 한동안 잘 지냈다. 몇 해가 지나가자 그동안 피지 못한 꽃들이 피는지 아니면 전에 피었던 꽃의 검버섯 뿌리가 피부 깊게 박혔던 것이 어떤 놈은 불사조처럼 서서히 되살아났다. 어떤 놈은 친구를 달고 나타났다. 그동안 쏟아 부었던 노력과 비용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검버섯은 노인성 색소반으로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과다 축적되면서 생기는 피부변화이며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한다. 이제 얼굴 손보는 것도 과정과 재발을 생각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살기로 했다.

퇴직 후 여가시간에 텃밭농사를 짓다 보니 일을 하는 동안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지만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 될 수밖에 없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긴 검버섯들을 유심히 보며 이것들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걸 어떡하겠나? 새 장가 갈 나이도 아니고 이제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든 어느 날 아내가 검버섯 점을 뺀다기에 차를 태워 주었다. 아내는 내가 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검버섯을 제거하면 이제는 재발하지 않고 깨끗해 질 수 있다.며 권하기에 기다리는 시간을 빌미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제거수술을 또 하게 되었다. 이차로 재수술을 하고 난후 얼굴이 깨끗하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고 그날 재수술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었다.

친구도 시간이 조금 지나 말끔하게 단장된 얼굴을 보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손보는 계절은 겨울이나 이른 봄 자외선도 약하고 땀도 덜 날 때 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건 자기만족이지만 여성들의 성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중독되면 고치고 또 고치고 때로는 안 고침 보다 못한 경우도 보았다.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늘 관리와 신경을 써야한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나타나는 일시적인 염색 같은 흔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재개발 구역처럼 옛날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언제 생겼는지 작은 검버섯 한 두개가 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상도_{商道}

최인호의 소설을 원작으로 순조 때의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MBC 50부작 (2001. 10. 15 ~ 2002. 4. 2)
큰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한 인 환

1. 스토리텔링

“이게 머꼬? 드라마 아이가”

뺨 고향소리에 놀라서 돌아다보니 아내가 짜리고 서 있다. 도깨비 얼굴이 빠르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변한다.

저녁 먹으라고 불렀다는데 기척이 없으니, 살그머니 서재에 들어와 본 모양이다. ‘야동’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지만, 조그만 스마트폰에 눈이 빠져 있었으니 나도 할 말이 없다.

“명색이 글 쓴다는 양반이 드라마가 머꼬? 칠칠맞지 못한 여편네처럼. 책을 읽어야지 책을”



| 한인환 |

- 부산 땅끝교회 은퇴장로
-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이런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상순데, 나도 모르게 요놈의 주둥이가 탈이다.

“당신은, 내가 드라마에 홀딱 빠진 줄 아냐? 나름대로 글짓기 공부를 하고 있다!”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국 다 식겠다.”

영겁결에 둘러댄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적절한 단어 선택에 정확한 맞춤법, 풍성한 어휘력에다 숨이 꽉 막히도록 아름다운 시어 같은 문장. 굳이 항렬을 따져보면 내가 노벨상 작가 ‘한강’의 아저씨뻘은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공부한다고 그 경지에 이를 자신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꺽꺽대며 기껏 남의 흉내나 내다가 말까?

아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지. 내 나이 곧 여든이지만 아직도 희망은 남아 있다고 우기고 싶다.

비록 영성하기는 해도 글을 재미있게 이끌어가며 나름대로 주제를 버무려 넣을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구수한 할배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내 말대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드라마 시청을 통해 글짓기 공부를 한다’는 괴변이 나온 연유다. 대장금大長今, 허준許浚, 동이同伊, 그리고 요즘은 ‘상도商道’다. 이야기를 꾸미고 풀어가는 솜씨에 매료되고 감탄하면서 재미있게 내 나름 글짓기 공

부를 하고 있다.

우선 이야기가 쉽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문장은 짧고 간결해야
겠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느끼도록 하자. 특히 부크문 문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근히
풍겨 나오도록 궁리해야지.

읽고 고치고 또 읽고 고치자. 실력이 모자라면 성의라도 있어야
된다. 대충 쓴 글은 당장 표가 난다. 독자에게 경멸을 당하기 십상
이다.

나는 이런 글을 쓰고 싶다. 너무나 쉬운 초등학교생 언어지만, 얼
마나 정겨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옛장수 아버지(작가 미상)

짚까닥 짚까닥 / 옛장수 아버지 / 동네방네 다니며 / 우는 아이 달래고 /
웃는 아이 울리네

2. 사람을 남기는 장사꾼

“어, 이게 누구? 상수 아니가?”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여니, 지금 서울에 있어야 할 녀석이 영
거주춤 서 있다.

“어서 들어온나, 중간고사 다 끝났나?”

상수는 소파에 앉아서도 말이 없다. 나도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

를 느끼고 잠자코 녀석을 바라봤다.

“선생님, 저… 휴학했심더.”

상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기어드는 목소리가 떨어온다. 나는 올 것이 예상보다 더 빨리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그래에, 힘들었제? 마, 힘내라. 한두 해 늦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있어 봐라. 차 한 잔 끓여 올께”

차물을 끓이는 동안 공상으로 찌든 그의 모친 모습이 떠올랐다. 본 적은 없지만, 중증장애인으로 기동을 못 한다는 그의 큰 형 모습도 그려졌다. 학년 초에 가정 방문을 가겠다고 하자,

“선생님, 우리 집에는 오지 마이소.”

울먹이던 그때 모습까지 떠올랐다. 얼굴에 핀 마른버짐이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상수야, 어무이 허리 아픈 건 어떠시냐? 울산 작은 형은 근무 잘 하시고?”

“어무이는 그저 그렇지예, 작은 형은 일 잘하고 있심더.”

이 녀석은 그래도 서울 생활 일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투리가 여전하다. 아이들 간식거리로 사둔 새우깡에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선생님, 선생님 권유대로 경찰대에 갈 걸, 잘못된 것 같심더.”

그리곤 한숨을 푹 쉰다.

“아이다, 아이다, 서울의대가 어디고? 니 서울의대에 떨어질까 봐 그랬제, 열 번 잘한 거라. 내 고종 형님은 부산의대 십 년 만에

졸업했구만. 그래도 지금 의사만 잘하고 있다.”

녀석은 계속 얼굴을 떨구고 있다.

“상수야, 너 그 집에 계속 있제?”

녀석이 작년에 서울의대에 합격하자 독지가가 나서서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고, 자기 아들의 입주과외를 맡겼다. 고등학교 학비는 내가 몇 번 내주었지만, 대학등록금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아닌 모양이구만, 너 휴학하는 동안에 부산에 있을 끼가? 과외 자리 알아볼까?”

녀석은 슬그머니 얼굴을 들고선

“선생님, 저 내일모레 군에 입대합니다.”

“뭐라꼬? 와? 마치고 군의관으로 가든 안 되나? 힘들더라도 좀 참지.”

상수는 제 발만 내려다보고 있고, 나는 그러는 녀석의 모습만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상수야, 너 2학년 때에 설악산 수학여행 안 가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끌고 간 이유 모르제?”

녀석은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의아한 눈치다.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설악산 못 갔다. 형편이 안 돼서, 그 기간 내내 울 엄마 연탄 배달 구루마 끌었다.”

“선, 선생님...”

“너, 오 사장 집 입주과외 데려다주고 나오면서, 내가 한 말 기억 하나? 너보다 먼저 한 사람도 있다. 힘내라.”

“그럼, 선생님이...”

“그래, 나도 꼭 고2 때부터다.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대학 사 년 동안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봐라. 지금 이렇게 선생 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나? 더구나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아니 가? 잠깐이다. 눈앞이 깜깜해도 그 순간만 넘기면 또 길이 생기더라.”

그로부터 오륙 년 뒤에 나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때 상수는 휴학한 것이 아니라 제적을 당했단다. 운동권에 휩쓸려 제법 선두에 섰던 모양이다. 그리고 제대 후 시흥공단인가 어디에 근로자로 취업했단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학 만점을 받고, 당당히 서울의대에 합격한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리라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하고는 생각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지금도 나는 그쪽 방향의 정당이나 단체의 기사가 나오면, 혹시 그의 이름이 없나 하고 살피곤 한다.

“상수야, 와 아이들이 나를 ‘메르치젯’이라 부르노?”

“예, 어무이가 메르치젯 행상을 해서, 내 몸에서 메르치 젯갈 냄새가 난다꼬예.”

그래, 멸치는 자신을 삭혀서 멸치젯이 되지. 너는 자청해서 멸치젯이 되고자 한 모양이구나. 남들이 맛있는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특히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의 긴긴 겨울철 밥반찬이 되기 위

해서.

〈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주도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김장하 선생의 은혜를 끄집어내었다. 김장하 선생은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왔다.

법관이 된 문형배가 선생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선생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사회에 갚아라’ 하였다.

‘사람을 남기는 삶’ 그게 가장 보람된 삶이라면, 우리 크리스천에게야 더 말해 무엇하랴.

상수가 서울의 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야 들었다. 뒤늦게 복학이 되어 통증의학과 의사가 되었다고 한다. 오죽 아픔이 컸으면 통증의학을 전공했을까?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문형배와 김장하 선생을 떠올렸다면, 내가 분수도 모르는 얼파리 늪은이겠지.

아동문학

<동시>

이들자 | 산딸나무 외 1편

<동화>

남 순 | 분청피리

안미영 | 말라꼬 할머니

오윤형 | 일빠 김한

임지연 | 누리와 채소 할매

정현옥 | 하얀 쯤빵

산딸나무 외 1편

이 둘 자

흰색 꽃잎
넉 장

십자가 닳았다

희생과 사랑!

잊지 말라고
십자가 피었다



| 이 둘 자 |

- 2016년 《문학도시》 동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부산아동문학인협회, 부산광역시 남구문인협회, 한국편지가족(사) 회원, 문학의 정원 민들레회원 대표
- 2025년 제32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
- 저서 『민들레의 재능기부』(2019), 『꽃밥』(2024)
- 그림동화 『할아버지의 손님』(2025)

기도

똑똑

똑똑

쉬지 않고 두드리는 것

똑똑

똑똑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분청피리

남 순

여름 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코끝으로 향긋한 풀냄새가 스며 들었다.

“바스락!”

슬기의 귀가 안테나처럼 움직였다.

“무슨 소리지?”

슬기가 아빠 등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포르르~.”

“산새구나!”

산새 소리가 멈춘 곳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다.



| 남 순 |

- 2004년 《아동문예》 동화, 2013년 《문학예술》 시 등단
- 동요작사가, (현)국립부경대학교 미래교육원 <그림동화&창작동화> 전임
- 제6회 남재문학 작가상, 제21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
- 동화집 『무지개나라 화가아저씨』, 『물고기 아파트』, 『꿈꾸는 장어』
- 그림동화(공저) : 『빨강 연필』, 『네가 딱이야』, 『잡기 놀이』, 『젓가락 행진』
- 평론 『현대 동화문학 작품론』-『정성란 장편동화의 특성』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가마터 앞에 앉아 장작을 넣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서 오시게.”

할아버지는 손님이 올 줄 알았는지, 이내 밥상을 내왔다.

“시장할 텐데, 어서 드시게.”

“이게 뭐예요?”

슬기가 젓가락을 입으로 갖다 대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산나물이란다.”

“고기보다 맛있어요.”

그날 밤, 슬기는 평상에 누워 오랜만에 달콤한 잠을 잤다.

하지만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밤늦도록 풀어냈다.

초가집 마당 옆 미루나무도 귀를 기울였다.

“공기가 나빠서 그런지 슬기의 눈이 고양이 눈처럼 노래졌어요.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학교를 못 다닌 것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슬기가 있을만한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할아버지는 마당에 피워놓은 모깃불 때문인지 눈을 닦았다.

“휴! 그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미루나무 사이에 걸린 초승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목소리가 문풍지처럼 파르르 떨렸다.

며칠이 지났다.

“할아버지,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왜 혼자 사세요?”

“여기가 좋아서!”

할아버지는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감님,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빠, 난 여기 있을래요.”

“안 돼.”

“걱정 말게.”

아빠는 주말마다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슬기가 움푹 파인 곳을 만지며 물었다.

“모탕이란다.”

“모탕? 그게 뭔데요?”

“나무를 쪼갤 때 받치는 것이지. 파인 건 도끼를 맞아서 그렇고.”

“많이 아팠겠다!”

슬기는 쪼그리고 앉아 모탕을 쓰다듬으며 아빠를 생각했다.

초가집을 익히느라 슬기는 매일 다쳤다.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너 때문에 초가집이 심심하지 않겠구나, 허허허!”

그렇게 웃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찡했다.

“슬기야, 옛날이야기 하나 해 줄까?”

“네!”

슬기는 평상에서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옛날에 신기한 피리가 있었단다. 그 피리소리는 우리 민족을 살렸단다.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가뭄에 비가 오고, 아픈 사람이 금방 낫고…….”

할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옛날에 다녀온 것 같았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피리를 만들었단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신비함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그 피리소리를 다시 만들려고 애를 썼단다. 내가 배운 분청의 일곱 가지 기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네가 오고부터 이상하게 밤마다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구나. 퐁퐁!”

“아이, 깜짝이야.”

할아버지가 낫재떨이에 곰방대를 터는 바람에 슬기가 놀랐다.

“아이쿠, 미안하구나.”

이튿날,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산으로 가셨다. 한나절을 헤맨 끝에 겨우 흙 한 덩이를 망태에 담아 내려오셨다.

“할아버지, 그게 뭐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흙만 밟았다.

‘뭘 만드시려는 걸까?’

슬기는 몹시 궁금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만든 것을 그늘에서 여러 날 말렸다.

할아버지는 말린 것을 가마에 넣고 불을 지폈다. 가마는 며칠 동

안 불을 품고 그것을 구웠다.

드디어 가마가 열렸다.

“후~ 피~ 푸~.”

할아버지가 그것을 불어보았지만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퍽, 쨍그랑…….”

할아버지는 애써 만든 것을 모두 깨트렸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슬기는 할아버지가 말을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햇살이 미루나무 이파리에서 미끄럼을 타며 노는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망태를 매고 집을 나섰다.

“나도 따라갈래요.”

“길이 험해서 안 된다.”

“할아버지 옷자락만 꼭 붙잡고 갈게요.”

할아버지는 슬기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새끼줄로 서로의 허리를 묶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할아버지가 흙을 파면 슬기는 만져보았다.

“앗, 따가워.”

슬기의 손등이 부어올랐다.

“가시에 찔렸나?”

할아버지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슬기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할아버지, 이 흙이 좋을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가 피리를 깎 때 차가운 소리가 났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헛살을 머금은 흙으로 만들어 보세요.”

할아버지는 슬기의 말대로 헛살 머금은 흙만 골라 망태에 담았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할아버지는 매일 목욕을 하고 학처럼 고운 옷을 갈아입었다. 하루에 피리를 한 개씩만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피리를 만들기 시작 한지 백일이 되었다. 드디어 백개의 피리가 만들어졌다. 그늘에서 말라가는 피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기다렸다.

가마에 불이 지펴졌다. 할아버지는 초벌구이를 끝낸 피리를 굽어낸 다음 백토를 푼 유약을 발랐다. 분청의 일곱 가지 기법 중, 덩병 기법이었다. 피리는 다시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불은 천도를 오르내리며 쉬쉬거렸다.

슬기는 가마 앞에 앉아 활활 타오르는 불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혼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드디어 가마가 열리고, 청жат빛 님은 분청피리가 나왔다.

“슬기야, 네가 불어 보거라!”

슬기는 숨을 죽이고 피리를 입술에 댔다.

“뿌~ 피~ 후~.”

소리가 둔탁했다.

“픽, 썩그랑…….”

할아버지는 소리가 잘 나지 않는 피리는 깨버렸다.

그 소리를 듣는 슬기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피리는 딱 하나만 남았다. 그런데 피리에 눈동자가 있었다. 그 눈동자가 슬기를 보고 있었다. 가시에 찢린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슬기가 뱀에 물려 피를 흘린 것이다.

영문을 모른 할아버지는 자꾸 고개만 가웃거렸다.

이제 그 피리 하나에 아흔 아홉 개의 희망을 걸어야 한다.

“피리리~ 피리리~ ……”

슬기의 입술이 떨렸다.

햇살 머금은 소리가 슬기의 눈을 어루만졌다.

“할아버지, 보여요, 보여!”

슬기의 눈이 희미하게 보였다.

“보인다고?”

“네. 개미가 다친 친구를 업고 힘겹게 기어가고 있어요!”

슬기는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개미 옆에서 분청 피리를 붙고 있었다.

피리 소리를 들은 개미는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금세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분청피리, 여기!”

할머니 토끼가 슬기를 다급하게 불렀다. 새끼를 낳던 엄마 토끼가 기절해 있었다.

슬기는 엄마 토끼를 위해 분청피리를 간절하게 불었다.

분청피리 소리를 들은 엄마 토끼가 깨어나 다시 힘을 냈다. 예쁜 아기 토끼를 낳은 엄마 토끼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먹구름이 생기면, 슬기는 미루나무 위에 앉아 분청피리를 불었다. 천 년을 이어온 그 소리는 어두운 곳을 두루 찾아다녔다.

말라꼬 할머니

안 미 영

서울에 사는 우리 가족은 여름방학이면 부산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일주일 정도를 지냈다.

할머니 집은 부산 해운대 바닷가 근처였다. 다른 사람들도 여름 휴가로 많이 오는 유명한 곳이었다. 친구들은 부산에 할머니 집이 있는 나를 부러워했다. 그래서 다음에 데리고 가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말라꼬~ 이런 걸 사 왔노? 잘 묵으꾸마.”

할머니는 엄마가 사드린 선물세트를 보며 좋아하셨다.

“팔 아프다. 말라꼬~ 주무르노, 고마해라. 아이고~ 시원 타.”



| 안미영 |

- 2025년 《아동문학평론》 등단
- 자갈자갈 그림동화 동인
- 그림동화 『잡기놀이』(공저)외 다수

아빠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말라꼬~. 니 묵으라. 할매는 니 묵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우리 할머니는 거짓말을 참 잘하신다.

나는 아빠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나갔다가 파도를 따라 요리조리 쓸러 다니는 예쁜 조개껍질들을 보았다. 버려진 플라스틱 통 하나를 주워 조개껍질들을 가득 담았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 말라꼬 이래 담아왔노?”

할머니는 신발장 위에 조개껍질을 올려놓으셨다. 신발장 옆을 지나다니시다가 힐끔 쳐다보면서 “이쁘네~.”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말씀하실 때마다 ‘말라꼬~.’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다. 나는 할머니의 사투리가 재미있어서 ‘말라꼬 할머니’라고 부른다.

내가 2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우리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 서울로 오신다고 했다.

“엄마! 제가 ‘가족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장을 받았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께 그림이랑 상장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 와요?”

“응~, 할머니는 내일쯤 오실 거야.”

나는 내일이 기다려졌다.

“민준아! 할머니 오셨다.”

창문 밖으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하게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넘어진다. 말라꼬 뛰어오노~.’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주실 것 같았던 할머니는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계셨다.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뻗주뻗 서 있는 나를 보며 아빠가 말씀하셨다.

“안... 념... 하세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한 뒤 아빠 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할머니가 오시면서 우리 집은 할머니의 기저귀와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다. 내방은 할머니 방이 되었고 우리 집은 점점 좁아졌다.

“엄마, 제 장난감은 어디로 옮겨요?”

“민준아, 할머니가 지내시는 동안 엄마랑 같이 방을 써야 할 것 같아. 저기 안방에 좀 가져다 놓을래?”

나는 내 방이 없어져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나를 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할머니가 예전처럼 잘 웃지도 않으시고 휠체어에만 앉아 계시니 진짜 우리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이상했다. 엄마는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이셨다. 그런데 할머니가 집에 오신 후로는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셨다.

“여보, 유치원 아이들 생각 많이 나죠?”

“네. 많이 보고 싶죠.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을 돌봐드려야죠.”

“미안해요. 당신 힘들게 해서……,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는 늘 미안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셨다.

“찰그락 찰그락~ 쓱~아.”

엄마의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다.

가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본적도 있었다.

“밥 차리라! 내 배고프다.”

할머니는 식사하시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밥을 달라고 하셨다.

“어머니~ 방금 식사하셨잖아요. 조금 있다가 밥 차려드릴게요.”

“뭐라카노? 내가 언제 밥 묵었노? 빨리 밥 내놔라!”

할머니는 자꾸 밥을 달라고 어린애처럼 떼를 쓰셨다.

엄마는 할머니의 투정에 못 이겨 다시 식사를 차려서 할머니 방으로 가지고 갔다.

“우장창창. 쟁그랑.”

“맛없다. 치아라 고마.”

할머니가 식판을 얹으며 변덕스럽게 억지를 부리셨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식판을 치우셨다.

“니는 누꼬? 말라꼬 여어 얼쟁거리노?”

할머니는 방문 앞에 서있던 나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쳐다보셨다.

아빠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았다. 마침 아빠가 야근하는 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고, 할배 밥 차리 주야 되는데. 큰일 났데이~.”

할머니는 할아버지 밥을 차리러 가야 한다며 자신이 아프다는 걸 까먹고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내 아들 어디 숨겼노? 빨리 델꼬 온나.”

아빠를 데리고 오라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셨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아무 말 없이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엄~마! 엄~마!”

할머니는 밤새 엄마를 찾으며 아기처럼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큰소리로 똑같은 노래만 수십 번을 불렀다.

“쿵! 쿵! 쿵!”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할머니 때문에 엄마도 나도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웠다. 할머니의 소란은 다음날 아침 아빠가 집에 오신 후에서야 잠잠해졌다.

휴일이면 아빠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가셨다. 오늘도 아빠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띄며 산책을 준비하고 계셨다.

“민준아, 너거 아빠 힘든데 니는 말라꼬 나왔노?”

아빠를 따라나선 나를 보며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할머니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할머니! 내 이름이 뭐라구요?”

“니 이름은 말라꼬 자꾸 물어보노? 할매 손자 민준이다 아이가.”

“말라꼬 할머니! 오늘은 진짜 우리 할머니 같아서 너무 좋아요!”

나는 신이 나서 아빠 옆에 찰싹 붙어 할머니의 휠체어를 힘껏 밀었다.

“민준아, 할매가 아파서 미안하데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늘은 해운대 바다가 마이 보고 싶네.”

할머니는 고향이 그리다며 먼 산을 바라보셨다.

“어머니, 제가 쉬는 날 다 같이 부산에 한번 내려가요.”

“할머니, 저도 바다 보고 싶어요. 예전처럼 할머니랑 바닷가에 서 놀고 싶어요.”

“그래~ 그라자.”

할머니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진짜 말라꼬 할머니가 되는 날이면 나는 할머니 옆에서 종알 종알 설 새 없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냈다.

‘아차차!’ 지난번 가족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받은 상장이랑 그림을 할머니께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깜빡 잊고 말았다. 다음에 할머니께서 다시 예전처럼 나를 알아보시는 날이 오면, 꼭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보니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조금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엄마의 목소리가 조용하고도 걱정스러웠다.

할머니는 목욕을 하다 미끄러져 엉덩이뼈를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셨다고 했다

“엄마, 그럼 할머니는 병원에서 언제 와요?”

“응,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오시기 힘들 거야.”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다.

“민준아, 너는 말라꼬 왔노.”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나를 알아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빨리 나아서 집으로 오세요.”

“오야~. 오야~.”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다.

할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엄마를 졸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엄마는 내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면 항상 병원에 데려다주셨다. 사실은 학원을 가기 싫은 날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네~에? 알겠어요.”

엄마는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어두워지셨다.

“엄마, 누구예요?”

“응, 아빠야. 민준아 조금 있다가 저녁에 할머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지금 빨리 가면 안 돼요?”

거실에 있는 시곗바늘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말라꼬 할머니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병실로 뛰어갔다.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침대에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누워계셨다.

“민준아~ 이쪽으로 와.”

엄마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손짓을 하고 계셨다. 엄마를 따라 계단을 두 바퀴 돌아서 내려갔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사진 액자 속에서 웃고 계셨다.

“흐흫……, 엉~엉~, 엄마…….”

아빠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

“어머니, 흐흫…….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는 할머니의 사진 액자를 만지며 자꾸만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랑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나도 괜히 눈물이 났다. 사진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가 나를 보며 ‘니는 말라꼬 울고 그라노 뚝!’이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 엄마는 할머니의 사진 액자 앞에 내가 그린 그림과 상장을 올려놓았다.

할머니를 보내고 돌아온 엄마와 아빠는 집에 있던 할머니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했다.

“민준아, 장난감은 이제 네 방으로 옮겨도 돼.”

엄마는 바구니에 장난감을 담으며 말했다.

“이건 민준이 네 것 같은데?”

할머니의 옷을 정리하던 아빠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셨다.

구멍 난 양말을 꿰매어 만든 주머니였다. 안을 열어보니 지난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주웠던 조개껍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주머니 겉면에는 ‘민준이 꺼’라는 글씨가 뽀뽀 수놓아져 있었다.

양말 주머니를 보니 할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던 해운대 바닷가가 보고 싶어졌다.

우리 집은 넓어졌고 다시 내방도 생겼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할머니 생각으로 점점 좁아져가고 있었다. ‘우리 민주니~이’라고 부르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도화지에 파란색 크레파스로 ‘말라꼬 민준이 방’이라고 써서 방문 앞에 붙여놓았다.

문 손잡이에는 조개껍질이 든 양말 주머니를 걸어놓았다.

“사그락, 사그락.”

내방을 드나들 때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일빠 김한

오윤형

“에이, 재수 없어.”
한은 식식거리며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갔다.
올망졸망 낮은 담장 사이를 지나 허름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한이 사는 집이다.
“뭐 하다 이제 오냐? 늦게 오면 저녁밥 없다고 했지?”
고모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획 돌아보며 소리 질렀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한도 지지 않고 투명하게 대꾸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 오윤형 |

- 신학석사
- 자갈자갈 그림동화 회원
- 『빨강 연필』, 『네가 딱이야』 공저

“아이고, 이 옷 꼬라지 봐라. 그것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리 말했건만.”

고모는 아침부터 잔소리가 끝이 없다.

“하여튼, 니 애비는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도 없고…….”

“아~ 좀! 그만하세요.”

한은 고모의 잔소리가 아빠한테까지 이어지면 참을 수가 없다.

“한이 너, 뭘 잘했다고 고모한테 말대꾸야?”

일요일이라 늦잠을 자던 사촌 형까지 거드는 바람에 쫓겨나다 시피 집을 나왔지만, 막상 갈 데가 없다. 터털터털 걷다보니 큰길 가 첫골 공원 앞이었다. 공원에서 운동 기구 하나를 골라 슬렁슬렁 몸을 틀며 운동하는 시늉을 했다.

“꼬르륵꼬르륵.”

배꼽시계가 눈치 없이 자꾸만 울어댄다. 그리고 보니 어제 저녁 밥도 굶었다. 한은 운동 기구에서 내려와 낡은 나무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야옹.”

의자 다리 옆에 웅크리고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놀란 듯 튀어나와 한을 빤히 쳐다보았다.

“너도 배고프냐?”

한은 괜히 빈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말했다.

한의 주변을 맴돌던 고양이가 공원 돌계단을 폴짝 뛰어내려 큰길 가로 향했다.

“야, 어디가?”

한은 고양이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 걸었다.

걸다 보니 붉은 벽돌 건물이 마치 커다란 성 같은 교회 앞까지 왔다. 호기심에 교회 안을 기웃거리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고깃국 냄새가 났다.

냄새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보니 넓은 식당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배식대 앞에 줄을 서 있다.

한도 슬그머니 맨 뒷줄에 서 있었더니 차례가 되자 주방 안에서 곱상한 아주머니가 식판에 고깃국을 얹어주며 친절하게 말했다.

“맛있게 먹어라. 모자라면 더 먹어.”

‘더 먹으라고? 찻!’

한은 식판을 들고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허겁지겁 먹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처음 보는 데 몇 학년이야?”

“6학년이요.”

한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투명하게 대답했다.

“너 우리 교회는 처음이지? 2시에 초등부 반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선생님은 꽤나 적극적으로 한에게 다가왔다.

“그러죠. 뭐.”

한은 선심 쓰듯 대답했다.

‘집에 들어가 봐야 짜증만 나는데 밥값이나 해주지, 뭐.’

“내 이름은 이선옥, 교회학교 6학년 선생님이야. 넌 이름이 뭐니?”

“김한이요.”

“김한. 한이구나.”

이 선생님은 처음 보는 한의 어깨를 감싸고 교육관이라고 쓰인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다.

“어, 재 김한 아니야?”

“일빠 김한이네.”

한을 아는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 수군거렸다.

“애들아,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 환영의 박수.”

“짜짜짜.....”

선생님은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엄마처럼 반갑고 기쁜 목소리로 한을 소개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학교 일빠가 교회에 왔어요.”

성주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기 전에 소리부터 질렀다.

“일빠?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마루에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다.

“매일 사고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깡돌이 일빠가 오늘 교회에 왔다고요.”

“누가 데려왔는데?”

“모르겠어요. 아, 짜증 나.”

“한아, 잘 지냈니? 내일 약속 안 잊었지?”

이 선생님은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한에게 전화했다. 가끔은 주중에도 전화해 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 주는 말을 하곤 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환영과 관심이 처음엔 어색하고 약간 귀찮기도 했다.

하지만 솔직히 한을 쳐다보고 웃어주는 선생님이 좋았다.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는 늘 화가 나 있던 한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한은 이 선생님이 제일 기뻐할 일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처음 봤을 때 선생님이 먼저 나를 초대했어. 선생님은 틀림없이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하셔.’

그리고 보니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 선생님이 더 많이 웃으셨던 것 같았다.

“야, 너희들 일요일에 할 일 없지? 내가 좋은 구경 시켜줄게. 나 따라가자.”

“좋은 구경? 맛있는 것도 주냐?”

한은 이빠, 삼빠, 톨마니들을 죄다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학교 초등부는 점점 난장판이 되어갔고 다른 반 선생님들의 불평이 이 선생님에게 쏟아졌다.

“야, 너도 이 교회에 다니냐?”

한이 친구 태용이 앞자리에 앉은 아름이 어깨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몰라! 말 시키지 마!”

아름은 뒤돌아 눈을 흘기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와~씨! 물어보는 것도 죄냐?”

태용은 화를 내며 아름이가 앉은 의자 등을 툭툭 치고 앞뒤로 흔들었다.

“저기요, 교회 오면 부자 돼요?”

이번에는 경수가 강단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싹! 경수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마치고 나서 선생님하고 얘기하자.”

이 선생님은 안절부절못하며 경수에게 말했다.

“조용히 하면 피자 사주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배가 고프답니다. 후후.”

경수는 짓궂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아~, 진짜. 재들은 왜 와서…….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옆 반의 성주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 반 선생님께 불평했다.

“어이, 김성주. 너 잘났다.”

태용이 예배 순서지를 뭉쳐서 성주에게로 던지며 말했다.

한은 뜻밖의 상황들에 몹시 당황하며 태용을 노려보았다.

예배가 마치고 아이들이 반별 모임 하러 우르르 나오는 사이에

“야, 너희들 다 따라와.”

한은 아이들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야 이, 씨! 내가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 했지.”

“우리만 잘못했나? 처음부터 그것들이 우리를 무시했잖아?”

“솔직히 까놓고, 한이 너는 언제부터 그것들 편이었나? 좀 섭섭하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한에게 불만을 늘어놓았다.

“내가 뭘? 언제? 똥고, 다 꺼져.”

아이들과 헤어진 한은 이 선생님께 아무 말 없이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도로 교회로 향했다.

“오늘은 좀 심각하게 의논해야겠습니다.”

부장 선생님이 먼저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너무 심해요.”

“아니, 세상 조용하던 초등부가 갑자기 무슨 일이람!”

여기저기서 선생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교회 생활이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라서…….”

이 선생님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선생님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썼다.

“미로 주택.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제 색깔을 잃어버린 지 오랜 듯한 허름한 건물 앞에

서 ‘나동 301호.’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조심스레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실례합니다.”

이 선생님은 삐죽이 열린 현관문 안으로 인기척을 보냈다.

헐렁한 실내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내다보았다.

“혹시, 여기가 김한집인가요?”

“한이? 한이 없는데요. 요새 어디를 가는지 일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나가서 해가 저야 들어옵니다.”

“네, 저~ 사실은 한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모르셨군요. 저는 한이 교회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나는 한이 고모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한이 고모는 약간 경계하는 듯 이 선생님에게 투박하게 말했다.

“한이 낮에 점심도 안 먹고 가버려 무슨 일인지 걱정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일? 일은 항상 있지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그 놈 때문에 학교에 불려 다니고, 이제는 학교도 포기했습니다.”

“고모님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지 에미 애비가 어린 나이에 한 이를 낳아 놓고는……. 휴, 몇 년째 연락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카 놈까지…….”

한이 고모의 뉘두리를 다 듣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7월의 긴 해가 꼴딱 넘어가고 있었다. 낮선 길을 걸어 내려오는 이 선생님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혹시 어느 길모퉁이에 한이 있을까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가슴 한 편이 아려 움을 느꼈다.

다음 일요일에 한이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문제의 그 친구들도 오지 않았다. 이 선생님은 한이 걱정되고 궁금한 마음을 애써 누른 채 예배를 다 마치고 교사 회의에 참석했다.

“뭘, 좀 안됐긴 하지만 솔직히 개들이 예배에 너무 방해됐잖아요.”

“다른 아이들의 예배도 중요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해해 주세요.”
몇몇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마디씩 했다.

“자, 자. 그러지 말고 대책을 찾아봅시다.”

부장 선생님은 어떻게든 중재를 해 보려고 애썼다.

“네. 선생님들 말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버리고 학교도 포기했는데요. 그런데 교회마저 외면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이 선생님은 한이 고모가 쏟아냈던 말들을 떠올리며 선생님들께 호소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한은 그 당연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가난한 고모 손에서 마음 둘 곳 없이 자란 아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네요.”

이 선생님은 겨우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와 한이 집으로 향했다.

마을버스가 메케한 먼지 냄새를 날리며 지나가고 좁은 인도를 따라 걷는 이 선생님은 여름벌레 마음이 좋아드는지 연신 등줄기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잠시 숨 좀 돌리고 가면 좋겠는데…….’

이 선생님은 느린 걸음을 멈추고서야 고양이 한 마리가 같이 멈추어 서는 것을 발견했다.

“너는 언제부터 따라왔니?”

마치 반가운 길동무를 만난 양 말을 건네며 함께 걷는 데 앞서 가던 고양이가 돌계단 앞에서 딱 멈춰 섰다.

“어, 여기에 공원이 있었네.”

이 선생님은 고양이가 가볍게 뛰어오른 돌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제법 무성한 빛나무 그늘을 따라 걸으며 고양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는데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한아!”

그 아이는 한이었다.

“어, 선생님!”

한은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낮은 나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선생님은 조용히 한에게 다가갔다.

“선생님이 나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께……. 흐흑!”

이 선생님은 복받치는 감정에 흐느끼는 한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었다.

벚나무 이파리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꽃비처럼 두 사람을 감싸안았다.

누리와 채소 할매

임 지 연

“누리아,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

“응, 엄마.”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

“니, 도꾸 아이가?”

전봇대 옆, 채소 할매가 나를 보며 말했어.

“전, 누리예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

“그래? 봄에 집 나간 우리 도꾸하고 똑답았노?”



| 임지연 |

- 그림동화작가, 사랑진교회
- 2013년 부산크리스천문학상, 그린 책 『나그네 새』, 『꿈꾸는 장어』
- 자갈자갈그림동화 동인, 그림동화 『네가 딱이야』(공저)외 다수

“니도 집에 가야지?”

채소 할매가 짐을 정리를 하며 말했어.

“해도 떨어지고 올 사람 없다.”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이고, 참.”

다음날도 나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렸어.

“이것 좀 묵으라.”

“괜찮아요.”

“그라다가 클 난다.”

“꼬르륵.”

“거 봐라, 니 배는 거짓말을 몬한다.”

“누리아, 혼자 묵기 좀 글타. 같이 묵자.”

채소 할매는 내 등에 대고 말했어.

“도꾸 집나가고 쓸쓸한데, 고마 내랑 여서 같이 살자.”

나는 채소 할매를 향해 돌아앉았어.

저녁노을에 채소 할매와 나는 물이 들었지.

하얀 찰빵

정 현 옥

“안녕하세요?”

다운이가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마을 할머니들께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예의도 바르네!”

“학교 갔다 오는구나.”

“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할머니들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다운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다운이는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난 후 음식을 잘 먹지 못했어요.



| 정현옥 |

- 2023년 《아동문예》 동화 등단
- 자갈자갈 그림동화 동인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부산문인협회 회원
- 그림동화(공저) 『빨강 연필』, 『네가 딱이야』, 『잡기 놀이』

아빠는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여보았지만 먹지 못하는 다운이를 보고는 걱정했어요. 고민 끝에 아빠와 다운이는 조용한 시골로 오게 되었어요.

이사 온 지 한 계절이 지나도 친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다운이의 작은 어깨는 힘이 쭉 빠지고 얼굴에는 그늘이 졌어요. 마을에서 다운이가 유일한 초등학생이었지요.

“왈왈왈…….”

멀리서 다운이를 본 뒷집 흰등이가 반겼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선 다운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큰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래, 인제 오냐!”

고라니 때문에 울타리 만들기에 열중인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 공부 잘하고 왔냐?”

다운이 소리를 들은 뒷집 할머니가 발을 매다가 반겨주었어요.

“네, 할머니이.”

책가방을 마루에 던져두고 다운이의 발걸음은 뒷집으로 향했어요.

“다운아, 배고프제. 이거 무 바라.”

할머니는 하얀 찐빵 두 개를 담은 쟁반을 내밀었어요.

“먹기 싫어요.”

“쫓쫓쫓…….”

다운이의 핏색한 얼굴을 본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먹을 것을 챙겼어요.

뒷집 할머니 밭에서는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라났어요.

“아이고, 디다!”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고는 허리를 펴곤 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다운이는 할머니가 하는 일이 궁금했어요.

“재밌는 놀이하고 있제. 요가 내 놀이터 아이가.”

할머니는 여러 가지 씨앗을 뿌려 키웠어요.

‘놀이가 아닌데?’

다운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 내일이 장날이네요.”

“그러게, 장날이 왜 이리 빨리 오노?”

할머니는 오일장에 팔 채소들을 정성껏 손질했어요.

“할머니, 왜 허리가 꼬부랑하세요?”

다운이는 할머니의 허리가 굽은 것이 이상했어요.

“흙과 친하게 지내다 보이 이래 뻘다 아이가.”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암, 그래야지.”

다운이는 할머니의 허리가 점점 땅에 가까워질까 봐 걱정되었어요.

엙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뒷집 할머니는 마을 할머니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다운이가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였지요.

다음 날, 할머니가 장에 갔다 왔어요.

“다온아!”

뒷집 할머니가 다급한 소리로 불렀어요.

“네, 할머니이.”

‘으응, 무슨 일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다온이는 후다닥 달려갔어요.

“따뜻한 찜빵 먹어 보라꼬.”

할머니는 하얀 찜빵을 식기 전에 먹이고 싶었어요.

‘아! 이 냄새……!’

어느 겨울날 엄마가 사준 찜빵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던 기억이
피어올랐어요. 울컥한 다온이는 하얀 찜빵이 엄마 품처럼 따뜻하
게 느껴졌어요.

‘엄마!’

다온이는 하얀 찜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오래도록 씹었어요. 그리
고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꼬옥 잡았지요.

할머니의 뒷발 바로 뒤에는 산이 이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주룩주룩 많은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어요.

“우야꼬, 지난밤에 홍수로 뒷산이 무너져 내린기라.”

할머니는 영망이 된 넓은 밭을 멍하게 바라보았어요.

“수상타야. 때아닌 날에 무슨 장대비가 오는고?”

할머니는 고개를 가우똥거렸어요.

“할머니, 아마 이상기온으로 그런 거 같아요.”

다운이는 뉴스에서 본 것을 말했어요.

“얼마나 힘 빠지게 가꾼 긴데!”

할머니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어요.

그때 나뭇가지에 앉아 있던 산비둘기가 푸드덕 날아갔어요.

“앗, 차가워!”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을 후두둑 맞은 다운이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했어요.

“주룩주룩, 씹아 씹아…….”

장대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우러렁 쿵! 우러렁 팡!”

다운이는 번쩍이는 번개와 천둥소리에 오돌오돌 소름이 돋았어요.

“우루루 쿠웅, 돌돌 떼구르르…….”

엄청난 돌들과 흙이 마구 쏟아져 내려왔어요.

“와아! 무슨 이런 일이……?”

입이 떡 벌어진 다운이는 자기도 떠밀려 갈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어요. 다운이의 귀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에그, 물 범벅이네.”

할머니가 빗방울 맞은 다운이 얼굴을 닦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구! 예쁜 내 새끼들 다 죽네.”

울음 섞인 할머니 목소리가 이제야 생생하게 들렸어요.

“할머니이!”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꼭 껴안은 다운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가꾼 것들이 떠나려가고 흙으로 덮여 버렸지요. 엄두가 나지 않은 할머니는 도시에 사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며 전화를 했어요.
“어무이요, 힘도 지치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제 그만 하이소.”
아들이 걱정했어요.

“나는 괜찮다. 니 단속이나 잘 하거레이.”

도리어 아들 걱정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러시다가 큰일 나면 어쩔라꼬요.”

아들은 볼멘소리로 말했어요.

“내는 마 힘닿는 대로, 할 수 있을 때꺼정 할끼라.”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삽시다.”

“내사 요가 좋다. 도시는 안 갈끼다.”

할머니는 떠날 생각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다운이는 할머니가 가실까 봐 은근히 걱정되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있잖아요.”

다운이는 두툼하고 주름진 할머니 손등을 토닥토닥했어요.

다운이 아빠와 다운이의 고사리손이 구슬땀을 흘리며 할머니

밭을 정리했어요. 쑥쑥 자라는 잡초를 부지런히 뽑았어요. 물도 꼬박꼬박 주었어요.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랐지요.

드디어 고구마를 캐 때가 되었어요.

“와아! 이 고구마 좀 봐라! 다운이가 물을 잘 주더니만 이래 컸네!”

튼튼한 고구마를 본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할머니, 왕고구마예요!”

“그거 좋구나!”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어요.

“이 왕고구마는 다운이 껴.”

할머니는 고구마를 신고 장에 갔어요.

“다운아, 고구마 팔아서 찐빵 사오꾸마!”

“네!”

학교를 다녀온 다운이는 시계를 보았어요.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음, 곧 버스가 도착하겠는걸.”

다운이는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 나갔어요.

흰둥이도 졸졸졸 따라갔지요.

소설

강신구 | 진우도

안유환 | 숨바꼭질

Christian Literature 2025

진우도

강 신 구

하얀 파도가 밀려와선 부딪친다. 태풍이 올 때 타 넘을 것같이 돌돌 말린다. 거리낌 없이 들이닥치는 파도를 가로막아서 주저앉힌다. 여름에는 푸른 빛이다가 겨울은 갈색으로 바뀐다. 드문드문 검은 나무가 보인다. 애드벌룬처럼 둥근 게 주저앉아 있다. 흔한 남자 이름 같다. 얽은 신자도와 대마등, 장자도가 가로질러 늘어섰다. 섬마을이다. 다닥다닥 길게 엉겼다.

직선으로 1킬로 아니 2킬로쯤 될까. 안쪽 가운데도 가락 동쪽이라는 낙동강이 합쳐지는 바다여서 수평선은 대충이 안 간다. 저곳을 가 보고 싶은데도 갈 수가 없다. 물이 얇아 걸어갈 수도 있을 텐



| 강신구 |

- 2022년 《문학도시》 소설 등단
- 수필집 『밀국수』, 『앵금머리』
- 부산수필문학상, 성파시조문학상

데 아무도 그리 가는 걸 못 봤다. 가운데 배들이 다니는 길이 세로로 뻗어 트였다.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도 뱃길은 꽤여 고인 물을 따라 통통배들이 다닌다.

“썰물 때 가면 닿을 수 있겠다.”

“한번 가 보고 싶어라.”

아넌 저기 가자고 졸랐다.

“나물 캐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조개도 줘자.”

“빠지면 어찌려고.”

가운데로 쭉 뱃길이 나 있는데 좌우로 붉고 파란 불빛이 깜박인다. 밤길 다닐 때 물길을 안내하는 등이다. 저기 왜 물이 고였을까. 썰물 때에도 배가 다닌다. 바닥이 드러나 온통 빨밭인데도 그 길로 작은 배들이 물살을 가르며 들락날락한다. 장마 때 흙탕물에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 골고루 퍼져 평퍼짐해야지 어찌 배가 다니나.

“배 다니라고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게 어딴어 누가 팠길래 생겼지.”

갯벌에 조개 캐러 다니는 사람을 본 적 없다.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는 보호지역이어선가. 서낙동강 다리 위는 물 나갈 때 사람들이 재첩과 조개 캐러 많이 들어간다. 그 아래는 들어갈 수 없는가. 양식 배만 다닌다.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를 빠져 가덕도와 몰운대를 다니며 가리비를 키우는 것 같다. 한밤중에도 불빛이 움직이는 걸 보면 밤낮으로 일한다.

“논밭처럼 양식장이 줄 맞춰 늘어섰네.”

“바다가 아니라 농장이구만.”

섬 바깥은 드넓은 바다이고 안은 알아서 간조에 바닥이 드러난다. 장마 땐 낙동강 황토물이 넘실대며 흘러내려 바닥에 쌓인다. 얼마 못 가서 갈대가 자란다. 등이다가 섬으로 바뀌어 가는 순서이다. 자주 드러나는 곳엔 갈대가 자란다. 그렇게 생긴 서낙동강 섬이다. 큰 줄기 낙동강에도 을숙도와 그 아래 맹금머리, 백합등, 도요등이 만들어졌다.

“그곳에 가는 배를 알아봐요.”

“가는 길이 있을까.”

진우도는 가까이 보여도 눈으로 희미해 빛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알 수 없다. 해무가 피어올라 어렴풋한 게 선명치 않다. 검은 빛의 나무도 촘촘히 있고 섬 중에서 커 보인다. 집이 있고 희끗거리는 덩어리가 뭇 쌓아놓은 것이다. 사람이 들락거리는 걸 못 봤다. 쌍안경으로 살펴도 눈으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까운데도 멀게 보여 안달이다.”

“하얀 백사장이 진우도와 한 뼘 정도인 신자도에 넓게 보이네.”

이곳으로 이사 온 뒤 맨날 저 건너를 내려다보는 게 버릇이다. 13층이어서 앉아 보면 한눈에 들어온다. 대한해협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태풍을 네 개가 받아주는 고마운 섬들이다. 좌로는 다대포 물운대이고 우측으론 가덕도와 그 뒤에 거제도나 희미하다. 좌측 뒀 우백호의 명당 아파트이다. 거센 파도가 폴폴 찾아와선 사그라들곤 한다.

“저길 한번 가봤으면”

볼 때마다 생각만 흘렸는데

“철야기도를 갔다 왔어요.”

문인 모임에 수필 쓰는 김애영 권사가 교회에서 진우도를 갔다 왔단다. 섬이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니 알려준다. 배를 빌려 들어가 밤샘 기도를 드렸다. 다음날 둘러보고 왔다면 그곳의 얘길 해줬다. 그런가 하며 지났는데 점점 살던 집은 어떤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꾸만 궁금한 게 생긴다. 누가 살았기에 집이 있지 않았겠나.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왜 오래도록 비어있나. 알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다.

마침 그리 가는 일이 생겼다. 이곳 강서문화회에서 해당 구청의 도움을 받아 배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날 짜를 기다렸다. 또 향토 사학자가 자주 만나는 문인이어서 설명을 곁들이면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봄 문화기행 때가덕도를 배로 다녔다. 하나하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백 년 전 일군의 진지를 얘기해 줘 놀랐다. 대한해협으로 지날 러시아 함대를 겨냥한 것이다. 30여 척의 거대한 무적 발틱 전함과 맞닥뜨려 이틀간 피나는 해전이 벌어졌다. 5월 말경이다. 세계 최대 전단을 맞아 포탄이 불을 뿜은 노일전쟁이다. 기세등등하던 러시아 함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일본에 패했다. 독도 부근에서 제정러시아 함장은 사로잡혀 항복했다. 수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수장됐다니 한 많은 곳이다.

승어잡이 장소도 알려줬다. 높은 데서 물빛을 보고 소리치면 그 물을 올린다. 승어가 가득히 올라온다니 신기하다. 원시인들이 살던 조개무덤도 소개했다. 임란 때 부산항에 들어온 왜군을 몰아내

려다 순신의 아들 회를 잃은 곳도 여기다. 작은 섬이지만 산이 높고 험해 마을을 배로 다녀야 한다. 이제 차도가 생겨 마지막 물고한 바퀴 도는 이 지역 여객선이다.

진우도 갈 날에 그만 집안일이 생겨 못 가고 말았다. 퇴직자 모임에 동료 선배가 가덕도가 보이는 곳에 산다니

“진우도를 아는가.”

보육원에서 원생들을 지도했다. 저학년을 가르치고 5. 6학년과 중학생은 건너 가덕도에 배 태워 다니면서 배우게 했다. 괴정 난민 수용소에서 원생들을 보내면 받아 먹이고 입히며 가르쳐 재웠다. 전란 통에 부모 잃고 떠도는 아이들을 시내 곳곳의 시설로 보냈는데 진우도가 섬이어서 아이들 관리하기가 손쉬웠다.

꽃밭을 만들고 소나무를 곳곳에 심었다. 규율 완장을 차고 자치 지도했다. 원장이 바뀌자 떠나야 하는데 마땅한 직장이 없어 박 선생은 그대로 눌러있게 되었다. 밭도 일귀 채소를 얻고 바다 개펄에 들어가 조개도 캐 보냈다. 새로 받아놓으면 밤중에 도망친다. 거리를 헤매며 걸식하던 게 버릇이 된 아이들은 답답해서 못 견뎠다. 그때 오리쯤 되는 서낙동강 하구 바다를 ‘후절평’ 건너 시내로 줄행랑을 댔다. 썰물 때 건넌다는 얘길 했다. 밀물 만조여도 한 길을 넘지 않는다.

“여기가 염전이였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1만 세대나 된다. 그때 소금밭과 늪지대는 간곳없다. 가르쳤던 학생을 지금도 알고 지낸다. 정유식이란 이름까지 말한다. 박인국 선생은 구순인데도 기억이 좋다. 꼬장꼬

장한 늙은이가 당뇨로 몸은 야위어도 허리가 곧아 뒷모습은 젊게 보인다. 가덕도에 학생들을 보내고 데려오면서 자주 만난 그곳 중학교 엄산옥 선생과 결혼했다. 육이오 때 월남한 사람들이다. 엄 선생의 가까운 친척이 시내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했다.

“섬과 섬을 들랑거리며 눈이 맞았다.”

건너편 용원은 진해 시인데 가덕도와 여기 섬들은 모두 부산시이다. 부부가 보수동 친척 학교로 옮겨 가르칠 때 함께 근무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다. 두 분은 그 전쟁 중에 부산에 와 지극히 살기 어려운 터였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교사 자격증을 얻었는가 보다. 참 놀라운 일이다. 박 선생은 사회과이고 엄 선생은 국어이다. 부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감 교장을 지냈다.

“북녘 말씨다.”

중학교가 없어지자 내외가 한 교무실에서 왔다 갔다 일하게 되었다. 얼마 뒤 부인 엄 선생이 도서관장으로 올라가더니 어느 날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두 달에 한 번씩 퇴직 교사 모임에서 박 교장을 만나고 재단법인 이사회 때도 본다. 시인이 된 엄 교장은 문인회에서 가끔 만나 인사하는데 처음은 누군지 몰랐다.

그사이 많이 지났고 늙어 못 알아봤다. 팔팔하던 사람들이 나이 드니 저리 변해갔다. 말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북쪽 억양이다.

“안녕하세요.”

“아아 예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며 지나가는데

“누구시더라.”

옆의 장자도엔 농사꾼이 살았다. 누군지 알고 싶고 찾아 어찌 살았는지 얘길 나누고 싶다. 물안개처럼 자꾸 피어나면서 생각한다. 무심히 내려다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꽃힌다. 아무도 찾지 않는 빈 섬이 내 눈엔 그리움으로 이글거린다. 네 개 섬 중에서 우물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외로운 데다가 살기 구차하니 버리고 나온 것이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 보고 싶어라.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고 아프면 치료도 걱정이다. 이웃 없는 곳에서 어찌 사나. 거기에다 해마다 여름 태풍이 오면 견디기 어렵다. 덮칠 수 있어 위험하다. 어디로 연락이 되겠나. 통신 수단이 있었을까. 막막하다. 그곳에 우물 터가 어떤가. 지금도 있을까. 가보고 싶다. 사람 살던 터를 보면 아득히 생각나게 한다.

“이 사람들이 살았나 죽었나.”

“어디서 뭘 할까.”

우물 생각에다 꿈꾸듯 뚱뚱 구름 흘러가듯 얘기가 자꾸 이어진다. 노도^{檣島} 산 중턱에 엉덩짝만 한 밭과 영성한 작은 우물이 있었다. 몇 해 귀양살이하면서 지낸 ‘구운몽’ 김만중의 유배지다. 지지고인 낙엽 쌓인 물에 서포의 얼굴이 일렁이며 나온다. 한참을 앉아 그를 그리워했다. 그의 글에 빠져들어 헤어날 수 없는 적이 있다. 어쩔 그리 이쁘게 쓸까. 그런 세상이 있을까. 부러움으로 가득하다. 선녀들과 놀아난 구운몽 속을 거닐었다.

남해 상주로 넘어가기 전 바로 바싹 붙어있는 섬 중턱에 올라 우물을 보면서 서포 무덤도 둘러봤다. 고향으로 파 가고 없는 가묘에 올랐다. 좌우에 넝쿨 산딸기가 주렁주렁 달려 주섬주섬 따먹었다.

아름다운 남해이니 줄줄 써 내려가지 않았겠나.

대마등과 신자도 사이의 장자도에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은 사람 스멀스멀 생각이 난다. 지금은 어디에 살까. 더 큰 진우도에도 우물이 있었겠지. 우물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 마음은 섬으로 달려간다.

순우분의 회화나무 등걸 꿈과 복사꽃 핀 곳을 찾아 헤맸다는 무릉도원 얘기며 예불 중 잠깐 즐겼던 조신의 법당 꿈까지 한없이 좋다. 붕붕 떠다니는 구름 같은 아늑함이 스민다. 그런 곳이 있거나 했다. 저 앞 섬마을이 그런 곳이 아닐까.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야단이던 건너편 가덕도 끝자락 외양포 구석진 곳에 우물이 몇 개 있다. 일본군이 파놓은 포병부대 진지이다. 그곳에서도 멍하니 들여다봤다. 하얗게 내 얼굴이 보였다. 왠 자지껄하던 군인들은 다 어디 가고 없다. 포신이며 병기도 뜯겨나가고 빈터가 웅하니 남았다. 창고와 막사는 겨우 백 년 세월에 낡고 삭아서 땀질한 양철지붕과 비늘 나무 판자벽이 여기저기 덧칠해 군데군데 남아있다.

“녹 슬은 두레박만 대롱대롱 매달렸다.”

“정유식을 찾아 나서자.”

한참 오래 지나서 연락이 될까.

“어디 사나 살아나 있을까.”

박 교장이 준 전화번호로 여러 번 걸었다. 서낙동강 끝자락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손짓하면 보일 진우도가 건너다보이는 가까운 곳이다. 내 사는 아파트 맞은편이다. 버스로 서너 정거장 거리가

다. 강 건너이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자 의지할 곳 없이 길거리를 떠돌다 보육원으로 들어가 생활했다.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줬다. 친구들과 사귀며 열심히 배웠다. 그렇게 다니다가 그만 육이오전쟁이 터지자 갈팡질팡했다. 또 버려지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운영하는 목사와 전도사, 선생님들이 트럭을 갖고 와 태웠다. 고향 해주에서 인천으로 내려왔다. 의지하던 목사와 전도사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곤 제주도로 떠났다.

이곳저곳의 보육원으로 나눠 수용되었다. 학년에 맞춰 학교에도 들어가 배웠다. 유식은 잘하진 못해도 중간은 따라갔다. 고마운 보육원이다. 먹이고 입히는가 하면 상급학교로도 가게 해줬다. 중학을 진학하기 위해 시험을 쳤다. 인천에서 제일가는 중학인데 합격할까. 조마조마하다. 나는 합격하고 반에서 성적 좋은 친구는 떨어졌다. 무엇을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문제를 잘 푼 것 같다.

얼마 지나서 들뜨게 되었다. 대학을 보내주는 보육원이 있어 그곳을 가잔다. 여기는 오래 머물 수 없는가 보다. 때 되면 나가야 하니 천에 고아가 어디로 가나. 막막하니 의지할 데만 있으면 기대보려 한다.

“왜 그러는데.”

“부산 어느 고아원은 그렇게 해준데.”

“여경 선생님도 그곳 부원장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

인천 여자 경찰이 운영하는 보육원이었다. 열한 명이 탈출하여 부산 진우도에 있는 보육원으로 갔다. 원생이 부족해 시로부터 받는 적은 지원으로 어려웠는데 잘 됐다. 거기다 짙짙 보내주는 원생들까지 많을 때는 일백 명이 넘었다. 여기서 박인국 선생을 만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다. 태풍 때 견디라고 벽돌로 지은 기와집이었다.

“예가 천국이지.”

“날씨는 왜 이리 푸근하나.”

십여 채로 자고 먹고 공부하는 귀한 보금자리였다. 또 위험할 때 피신할 수 있도록 슬라브 2층도 세웠다. 저학년은 여기서 가르치고 고학년과 중학생은 통학 배편으로 가덕도 천가에 건너가서 배워왔다. 늦가을에 내려와서 중학교에 편입됐다. 계속 다니게 도와준다니 정말 그렇게 해 줄까.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따뜻해서 살기가 그저 그만이다.

“배 타고 건너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차 타고 인천 내려갈 때와 배로 가덕도에 들어가며 파도 가르는데 좋다.”

이 어려움 속에 이게 어딘가. 거리를 헤매지 않아서 좋다. 추운 겨울이 닥치는데 어찌 지나겠나. 여기가 바로 아늑한 내 집이 아니고 뭐겠나. 따뜻한 남쪽이다. 정성껏 보살펴주는 선생님들이 한없이 고맙고 고맙다. 기독교에서 재단을 만들고 부산시와 유엔군, 외국 자선 기관, 각 종교 단체에서 돕는다. 식량, 빵, 과자 등 구호품이 넘쳐난다.

“맛있는 빵이다.”

“과자를 다 먹어보네.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여기도 문제가 생겨 원장이 바뀌었다.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간다. 먹이고 입히는 일이 간단하나. 거기다 가르치는 일도 쉽지 않다. 겨울 감기나 여름 장 탈이 나면 치료하고 약 먹여야 한다. 교사와 취사 세탁 일을 맡은 사람들의 급료도 나가야 했다. 도선비와 교육비 등 잡다한 것이 자질구레하게 많다.

“먹고 돌아서면 식사 때다.”

이것들을 쓰고도 남으니 문제가 생긴다. 세계 여러 나라와 각계의 넘치는 온정으로 넉넉한 살림인데도 줄여서 헐벗게 한 것이 밍살스러운 일이다. 전란 때 외국 종교와 자선가, 독지가들의 도움이 적극적이고 많았다. 더욱이 피 흘리며 공산군을 물리쳐준 유엔군이 감사하다. 우리 힘으로 어찌했겠나. 거리를 헤매고 굶주리다 죽을 수밖에 없다.

“어린이가 나라의 장래다.”

울부짖고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가자 그만 돕는 손길이 이어졌다.

해주에서 인천으로 다시 진우도 남녘으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닷가로만 내려왔다. 살아날 팔자이다. 그 콩 튀기듯 오르내리며 볶아치는 전란 속에 견뎌낸 것이 천행이다. 보육원 아니면 내가 어디서 은신할 수 있겠나. 누가 날 거둬주었겠나. 가는 곳마다 알뜰한 도움으로 이 목숨이 질기게 살았다.

“고아원과 국민학교가 커다란 희망이다.”

목사의 주선으로 군용트럭을 타고 북한을 빠져나온 것과 종교 단체 시설인 진우도 보육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저 감사함이 가득하다. 열심히 배우고 믿으며 살아간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남구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시험을 봤다. 합격해서 다닐 수 있게 됐다. 학교 주위에 방을 구해서 자취 생활을 했다.

“함께 하다가 혼자 누워 자고 밥을 지어 먹으니 꿈같다.”

모든 비용을 보육원에서 대 줬다. 아아 감사해라. 정말 계속 학업을 이룰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 막막하기만 한 남한에서 이리 많은 도움으로 살아갈 줄은 생각도 못 했다. 배꼽아 죽는 줄로만 알았다. 추운 겨울이 오면 온몸이 시려 감당을 못한다. 이래도 춥고 저래도 떨린다. 손을 호호 불고 비비며 양달에 웅크리고 지나야 한다.

“학교는 무슨 언감생심이지.”

“먹고 입히고 재워만 줘도 어딘데.”

몇 가지 기술 자격증을 땀다. 이제 사회에 나가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못 할 게 뭐 있나. 양정에 있는 창고에서 일했다. 의류를 보관했다가 때 되면 내다 넘기는 도매업이다. 수입품과 국내 제품을 구해 뒀다가 계절이 되면 매장으로 넣어주는 일이다. 속옷들이다. 엄준남 사장과 나 둘이서 하다가 은행에 넣고 가져오는 계산을 해야 하므로 서경혜 경리를 두었다.

“북적거리지 않고 오붓해서 좋다.”

주문한 의류 상자가 많을 때는 흔한 지게꾼과 달구지 일꾼들을

불렀다. 또 손이 모자라고 바쁠 땐 임시 사람을 썼다. 배달할 때 차에 실어서 거래처로 날라야 했다. 급하게 팔릴 땐 가지러 오지만 공장에도 모자랄 땐 일본제 수입품을 구해 넣어주기도 한다. 꽤 남는 장사이다. 잘 돼서 바쁘게 창고에 들어왔다간 이내 나갔다. 부리나케 일했다. 수지맞는 일이다.

“엄준남은 회장 나 정유식은 사장이다.”

너스레를 떨었다.

엄 사장은 함경도에서 작은 백화점을 경영했다. 청년들이 죽창에 살생부를 들고 다녔다. 자본가와 일본 부역자들을 찾아 해맸다. 거기에 이름이 올랐다. 그 등쌀을 피해 육이오 전에 탈출했다. 통통배를 준비해서 가족과 친척을 태우고 몸서리치는 고향을 등졌다. 보름 동안 내려왔다. 연료가 떨어져 포항에서 하룻밤 지낸 뒤 부산에 무사히 닿았다.

“엄산옥 선생도 함께 그 배를 탔다.”

월남한 사람들은 교육열이 대단하다. 잘 나가는 장사를 접고 학원을 경영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서구와 중구 사이의 중·고등학교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자 재단 이사로 들어갔다. 부지를 사들여 넓히고 교실을 더 지은 뒤 비 새고 찬 바람 들어오는 곳을 정비했다. 다시 이사장의 자리에 올라 학교를 가꿔 나갔다. 배우지 못한 한을 이렇게 풀었다.

전쟁통에 남쪽 부산으로 밀려 내려온 피란민들 속에서 선생과 학생들이 만나 임시학교를 곳곳에 세웠다. 보수동 길가에 생선 몇

마리를 놓고 팔다가

“차사옥 교장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여학생들을 만났다. 미술 이정화 선생과 터를 찾아 여러 날 헤맨 끝에 북병산 중턱 언덕바지 자락에 한 자리 잡았다. 살기 어려운 북적거리는 속에서도 천막 학교를 세워 간판 걸고 교육했다. 잠자며 먹고 사는 것이 당장 어려운데 대단한 일이다.

눈이 내리면 찌그러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 형편없는 시설이다. 의자도 없어서 땅바닥에 앉아 무릎을 책상으로 썼다. 더울 땀 딱갈 나무 그늘 밑이 교실이었다.

“장용학 선생의 함경도 사투리 흥내가 재밌었다.”

국어와 한문을 담당했는데 책이 없어 신문 사설을 잘라 와 가르쳤다. 한 자가 넘는 눈에 묻혀 짓눌린 천막 교실을 보고 깔깔 웃었다. 세울 생각은 뒷전이고 눈 싸움질이다.

보수동 낮은 지역은 자리가 없다. 벌써 다른 학교가 차지해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아산』에서 남향을 내려다보며 공부했으니 가관이다. 뽀뽀이 흠어졌던 교사와 학생들이 다시 만나 기쁨의 재회로 모두 열의가 있었다. 많을 땀 수백 명이나 됐다. 전쟁이 끝나자 3년간 정들었던 교정을 두고 가을에 모두 서울로 올라갔다.

“잘 있어.”

뒤돌아보며 떠났다.

피난 여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다. 엄 이사장을 따라 학교에도 여러 번 올라갔다. 이제 나는 하릴없어 진우도로 들어갔다. 고등학교 다닌 것과 실습을 잘한 것들이 자랑이었다. 어딜 내놔도

살아갈 자신이 생긴 모습에 다들 부러워했다. 인천서 내려온 여정은 사정이 생각과 달라 다른 곳으로 갔다. 같이 온 친구들은 모두 잘 있었다. 우리의 보금자리 잘 다듬자.

“형아야”

부르며 따르는 원생들에게 내가 앞장서서 일하고 다독여야 했다. 교실 주위와 다니는 길에 꽃나무를 심고 풀꽃을 가꾸자. 긴 섬에 갈대와 억새 풀만 무성한데 상록수 소나무를 심어서 겨울에도 푸르게 하자. 고향 생각과 보고픈 부모 형제, 친구들이 그립다. 조용할 때면 떠올라 멍할 때가 있다. 이를 부지런을 피우며 눌러야 한다. 그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친구와 동생들에게 잇도록 도와주고 다가가야 한다. 가끔 도망하는 일이 생겨 걱정이다.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딤다고.

올 때 용원에서 배 타고 건너 가덕도로 다시 진우도를 들어온다. 섬들이어서 나가기 어렵다. 그래도 가는 길이 있다. 바닷물이 빠지면 바닥 펄이 드러나는데 질퍽한 데를 밟고 건넜다. 어디 소리가 들려서 보면 몸이 잠겨 빠져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린다. 잘못 늪지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 양발이 자꾸 들어가 꼼짝없이 갇힌다. 데려와 야단을 치고 벌서야 한다. 완장 찬 나이 든 형들이 질서를 지켜나갔다.

규율부를 만들어 허랑하고 질편하게 지나지 못하도록 엄격함을 보여줬다. 형들이 앞장서 이곳에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 서로 싸우기도 한다. 약한 자는 맞아 피달이 나고 구석에 앉아 슬피 우는 게 안 됐다. 방에 데려와 보듬고 위

로해 준다. 빵과 달콤한 과자를 먹이면 이내 금방 밝아져 언제 그랬나 뛰어다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를 마음속으로 외치도록 일렀다.

섬이지만 높은 곳도 있는데 산이라 불렀다. 나무도 하고 나물도 됐다. 길쭉해서 저 서쪽 가덕도 가까운 곳까지 이어졌다. 신자도가 건너다보는 편편한 곳 동쪽에 자리 잡았다. 배 들어와 내리고 탈 수 있는 폭 파진 머물 곳이 있다. 신기하게 살기 좋도록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웃은 없어도 배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기 좋다.

“여긴 섬나라.”

“눈 서리 안 내리는 따뜻한 남쪽 지방.”

무더운 여름날은 백사장에 나가 철벽거리며 수영을 즐긴다. 파도가 세어 깊은 데 들어가지 않도록 보살피고 수영하는 걸 가르쳐 준다. 개해염을 하는 친구도 있다. 물에 뜨는 게 중요하다. 눈을 콧고 지나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모래사장은 길어서 맘껏 뽀박질하고 뒹굴며 놀 수 있는 한없이 즐거운 곳이다.

“접영은 나비처럼.”

“배영은 누워서 머리 들고 발과 팔로 젓기.”

“쉬운 개해염은 양팔로 번갈아 끌어당겨 젓고 두 발을 차올려야 한다.”

공고생 때 해운대 해수욕장 여름 학교에서 배운 걸 가르쳐줬다. 신자도에 건너가 나무를 심었다. 소나무들이다. 진우도보다 더 길다. 다대포가 보인다. 장자도가 가까이 붙어있고 대마등도 나무가 자라 둥글게 보인다. 진우도와 맞닿을 듯 가까이 있어 건너다보이는 곳에 백사장이 길다. 미친 듯 뛰어다니며 소리친다. 저편에서도 듣고 친구들이 달려와 맞장구친다. 소리치고 흔들며 야단이다. 헤엄쳐 건너려는 아이도 있다. 오지 못하게 팔을 휘저었다.

물살이 세다. 갇힌 강물이 바다로 흘러나가고 밀물 땀 바닷물이 넘실대며 들어온다. 너무 좋은 하얀 모래사장이다. 그런데 위태하다. 물살에 휩쓸릴 수 있다. 좀 밖으로 나가면 깊다. 여기서도 사고가 났고 도망가려던 아이들이 개펄에 빠져 허우적대다 물이 들어오면서 기진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겼다.

반달 조금 때 물이 많이 나간다. 이때를 기다렸다가 뗏이 달아난다. 한밤중이니 다 잠든 사이여서 아침이 되어야 알게 된다. 빠지는 곳을 피해 잘 나간 아이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한 아이도 있다. 그들의 무덤이 멀지 않는 곳 언덕에 있다. 발버둥 치며 살아볼 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 모양이 됐다. 나는 봄꽃이 피면 무덤을 찾아 앞에 한 묶음씩 놔 준다.

형아! 형아! 하고 따르던 게 쟁쟁하고 눈에 선하다.

“물살 센데, 깊은 곳에 가지 말라 했잖나.”

“여기가 어때서 달아났나 이념들아.”

풀을 뽑아주고 어루만졌다.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여름이 지나고 조금씩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분다. 아침저녁으로. 섬의 풀들도 갈잎으로 변해가는 때이다. 추석이 다가와 모두 들뜬 세상인데 여긴 갈데없는 신세이다. 출렁 출렁 파도가 일고 빗줄기가 굽어진다. 구름이 몰려오며 어슴푸레한 날이 음산하다.

“태풍이 온다며.”

“이리 조용한데 뭐가 오겠나.”

“저 멀리 하얗게 까치놀이 보여.”

도란도란 애길 나누는 아이들에다 형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수다를 떨고 아양 부리는가 하면 떼를 쓰는 아이도 있다. 낮에 날 끼우지 않고 제기차기와 범 구멍 넣기를 했다며 앙양거린다. 깜박 잊고 도시락을 책상에 두고 온 아이는 내일 어찌면 좋아 걱정이다. 한 아이는 필통을 두고 그냥 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내일은 배가 안 다닌다.”

“추석이다.”

“물이 넘쳐 들어와요.”

한 아이가 소리쳤다. 마당에 넘실대며 들락거린다. 바람도 꽤 인다. 구름이 점점 쏟아질 듯 무겁게 내리누른다. 조금씩 오던 비도 세차다. 굽어져 ‘후두둑’ 소리가 들린다. 나뭇가지가 펄럭이듯 흔들렸다.

“괜찮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까.”

나는 안심시키려 말했다. 태풍을 때마다 마당에 넘쳤기 때문이다. 바닷가여서 바람은 거침없이 분다.

좀 낮은 집에선 야단났다. 뛰어나와 다른 집 처마로 들어가면서 소리친다.

“파도가 부엌으로 들어와요.”

박 선생이 비를 맞으며 이리저리 쫓는다.

“빨리 높은 방으로 가라.”

막 소리 질렀다. 놀라 튀어나온 선생들이 서둘러 대피시킨다. 나도 높은 곳으로 안내하며 도왔다. 얼떨떨하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가끔 낮은 곳에 물이 들어와도 이리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 보름과 그믐 무렵 사리 때 불어 조금 올라와도 여기까지 넘친 것을 보지 못했다. 비바람도 거칠다. 내일이 추석인데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나려는데---

“심상찮네.”

“마구 넘실댄다.”

영영 울며 책가방과 옷이 있다. 아랫방에 두고 몸만 빠져나와 다시 가려니 물속에 반이나 잠겨 어찌해 볼 수 없다. 달래며 들어가려 해도 파도가 세차게 들이닥쳐 어렵다. 지붕이 ‘지직지직’ 거리며 기왓장이 ‘휘퉁휘퉁’ 뒤집혀 바람에 날아간다. 진흙과 서까래가 나오고 확 밀려올 땐 집 안에 있는 것들이 둘둘 말려 파도 위로 휩쓸려 올라왔다간 가라앉으며 흩어졌다.

“저거 내 공이---.”

“교복 바지야 건져 도.”

들어가려 해도 이내 비바람이 몰아쳐 얼씬하기 힘들다. 위에 있는 집들에도 물이 들어온다. 박인국 선생과 식당 일하는 분들이 2

층으로 올라가란다. 언제 위로 갔는지 손짓하며 빨리 오라는 친구도 있다. 혹시 방에 남아있는 원생이 있나 다니면서 살폈다. ‘와장창’ 창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와 갈대가 ‘내 죽네’ 하며 찢어지게 흔들린다.

“저런- 집들이 잠겼다.”

“언덕 넘어 쓸러가네.”

‘우수수’ 기와 부딪는 소리와 아이들 울부짖는 게 비바람에 섞여 진동한다. 때리듯 바람이 몰아친다. 급히 나오느라 속옷 바람 차림의 아이와 덕지덕지 겨울옷까지 걸쳐 입고 나온 아이도 있다. 아랫집에서 올라온 원생들은 있다가 곧 들어가려나 하고 몸만 나왔는데 저리 집이 부서져 내려 흩어지는 걸 눈으로 본다.

“점점 심하네.”

“우리 살 수 있나.”

“이대로 죽겠구나.”

침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니 불안하다. 저 건넌마을 불빛만 비바람에 희미하게 꺾인다. 잠자던 집과 식당이 무너졌다. 배우던 교실과 창고도 커다란 파도가 삼켜 덮어지고 나자빠졌다. 나동그라져 막 떠내려간다. 가재도구와 옷가지는 제멋대로 뒹굴고 픽석 깨지는 웅기 단지와 그릇 소리가 ‘짹그랑 짜그랑’ 난다.

“어실어실 추워라.”

“배고프다.”

내일 먹을 맛있는 음식이 모두 파도 속으로 쓸러갔다. 젖었던 옷이 몸 옆에 마를 사이 없이 들이치는 비에 또 젖는다. 몇 시간을 볼

안에 떨고 울며 지나다 이젠 정말 추워서 견디기 어렵다. 온몸이 덜덜거린다. 이가 딱딱 부딪친다. 선생들과 형들이 서로 안고 어린 원생들을 보듬어서 기댄 채였다. 몰아치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지낸다. 2층까지 물보라가 튀는다.

“우리 이제 어찌나.”

“천지가 물로 넘실대네. 여기까지 오르면 어찌해.”

긴 섬도 간 곳이 없다. 언제 이렇게 물바다가 됐나. 온 세상이 흥건하다. 앞도 뒤도 전부 물뿐이다. 손전등 비칠 때마다 넘실대는 거센 파도와 물보라가 사방으로 출렁인다. 산더미 같은 물결이 몰아쳐 등줄기를 후려갈긴다. 온천지가 넘치는 물바다다. 정신이 좁드는가. 누구 있나. 어디 있나 하면서 출석 점호이다. 그래도 박 선생이 내 이름을 자주 불러 본다. 있는가 확인한다.

“날은 언제 새나.”

“2층이 무너지려 한다.”

무슨 밤이 이리 길까. 태풍 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다. 더디기만 하다. 심하게 비바람이 길게 이어질 땐 집이 흔들린다. 웅기종기 구겨 앉아서 무거운가. 휘청거리는 것 같다. 훌쩍거리며 우는 아이들이 있다. 두고 나온 것 중에 필요한 것이 있는가. 자꾸 내 것은 내 것은 한다. 밤새도록 혼났다. 죽을 고생을 겪었다. 조금씩 밝아온다. 비바람이 멎어간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술렁이던 엄청난 물바다가 가라앉고 등성이 드러난다. 나무는 뿔뿔히 뒤집히고 갈대는 쓰러져 누웠다. 옷가지와 집기, 교구 등 온갖 흩어진 도구들이 어지럽게 가라앉아 널브러졌다. 세상이 발

각 뒤집혔다. 가르치고 배우던 흑판과 책걸상들이 일그러져 스러졌다. 밥 먹던 식탁과 의자들이 물속에 들락날락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이불과 옷가지들이 춤을 추며 떠다녔다.

“아침을 어찌 먹을거냐.”

장독대와 식량창고며 부식 곳간도 으깨지고 무너져 흔적 없이 쓸려갔다. 밥을 짓던 가마솥들이 펄에 내동댕이쳐 박혔다. 곡식 자루가 구르다 터져 낱알들이 희끗희끗 보이는 게 죄스럽다. 날아간 집들과 교실을 보며 천지개벽한 모습에 휘둥그레 내려다보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해 선생과 형들은 작은 원생들을 하나둘씩 부둥켜안고 말없이 멀뚱멀뚱 쳐다보며 숨 쉬고 있다.

“사라호가 지나갔대.”

쭉쭉거리는 라디오를 갖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린다. 먼동이 트고 확연히 드러난 주위가 엉망진창으로 나타났다. 타고 다니던 배도 어디로 가고 없다. 우리를 구해 줄 사람은 언제 오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나 하나. 목포에서 강릉 쪽으로 지나 동해로 빠져나갔단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마구 활쫓고 삼키며 밟고 갔다. 익어가던 과일은 떨어지고 논밭의 곡식은 ‘내 죽네’ 드러눕고 말았다.

“추석날 이게 뭐냐.”

수십 년 아름다리 밤나무가 통째로 부러져 나가떨어졌다. 그리 바람이 거세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하나둘 내려가 남은 것들을 줍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러 산수를 넘긴 정유식이다. 서면 쪽 교회로 옮겨 은신

하다가 진영으로 갔다. 해주에서 인천으로 다시 부산 진우도에 왔다가 섬 건넛마을 아파트에 머물러 살게 됐다.

한쪽 눈은 눈물이 자꾸 나와 반창고를 붙였고 붙은 터져 붕대를 뒀다. 발음이 정확지 않아 듣는 데 힘이 든다. 집 앞 농협 2층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기계로 몸을 주물렀다. 성한 데가 없어 곳곳이 아프다. 서구의 대학병원을 자주 다니고 치료하며 마을에선 한방 치료로 들락거리며 살아간다. 아픈 몸을 겨우 지탱하며 힘들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견디겠나. 마실 두유를 쫓아 주어도 입힘이 없어 빨대를 당길 수 없다.

이제 바라보는 창밖 진우도가 조금 선명하게 보인다. 폐허가 된 교실과 꼬박 밤새웠던 2층이 보이는 것 같다.

건너 가덕도 연대봉에 얹힌 동그란 구름이 빙글빙글 돌고, 뭉게 뭉게 피어오른다.

숨바꼭질

안 유 환

금빛 가을을 뿔어내던 나무들이 삭풍에 떨고 있는 의암호반, 공지천 가든 넓은 뜰이 고즈넉하다. 벨엘교회 원로장로의 산수연(傘壽宴)에 참석한 교역자 부부는 모두 21명이었다. 성신고교 교목인 민도 초청을 받았으나 중학교 교사인 아내는 자리를 같이하지 못했다. 담임목사의 인도로 축하순서를 갖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했다. 원로장로는 교역자들에게 ‘책을 사 보시라’면서 봉투 하나씩을 돌렸다.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답소하는 자리에서 민은 초대교회의 단란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오후 3시쯤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육관 앞에는 금요 전도 대원들이 둘러서



| 안유환 |

- 『한국동서문학』 소설 등단
- 〈부산문학상〉 등 수상
- 소설집 『하이네 자서전』, 장편 『주네브행 열차』
- 시집 『그림자의 귀향』, 수필집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 등 10여 권

있었다. 오랜만에 P도 눈에 띄었으나 눈길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교역자들은 사무실로 들어가고 민은 학교로 돌아왔다.

교실 앞 화단에는 민들레꽃 한 송이가 노랗게 웃고 있었다. 민은 2층 교목실로 올라가 코트를 벗어 걸고 소파에 앉아 전기난로를 켰다. 그는 3년 동안 전방부대 군목사역을 마치고 7년째 성신고교 교목으로 재직하고 있다. 해가 바뀌면 또 떠나갈 제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은 겨울 들판처럼 허전하다. 교목의 활동은 마치 밑 없는 독에 물 붓는 것 같았다. 때로는 시시포스의 도로(徒勞)를 떠올리면 서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요긴한 주춧돌이 될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는다. 교목은 일꾼들을 내보내는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며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다.

— 사랑하는 목사님, 멀리서 바라 봐어도 가까이 있는 듯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주일도 아닌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뵈게 되다니! 행복은 그렇게 몰래 찾아오는가 봅니다. 벌써 남쪽에서 봄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춘천의 봄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샬롬!

뜻밖에 P가 보낸 카톡을 보는 순간 민의 중심이 흔들렸다. 성도 들끼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민은 ‘나는 목사다!’ 마음을 다잡았다.

P와의 카톡이 끊어진 것은 1년도 더 되었다. 민은 2년 전부터 벨엘교회의 교육 목사로 청빙 받아 대학부를 지도하게 되었다. P는

그가 군목으로 시무하던 군인교회의 가족 초청잔치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부관부 K 대령의 아내였다. 부임한 그해 여름 P가 부장인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한 시간 특강을 한 뒤 ‘감사 인사’를 카톡으로 처음 받았다. 그녀가 빼어난 미모에 정답게 얘기하는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귀여웠다. 민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P를 볼 때마다 초대교회의 다비다나 브리스길라 같은 여인상을 떠올렸다. 그녀로부터 문안 인사와 함께 좋은 볼거리를 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찌다 한 번씩 민도 공감할 수 있는 카톡을 보냈다.

민이 카톡을 보내면 P는 바로 회신했다. 처음에는 긴장이 풀리게 하는 미묘한 동영상 보면서 난처하기도 했으나 차츰 면역이 생겼다. 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은 가까운 사람이나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얼굴을 보기 힘들 만큼 바쁘게 돌아간다. 주일 낮 예배를 마친 뒤 식당이나 교육관 로비에서 한 번씩 시선이 마주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목회자의 눈에 충성된 일꾼들은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욱이 교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하늘이 점점 높아갈 무렵, 민은 매일 아침 7시께 P의 카톡을 받은 적이 있었다. 6시에 일어나 서재에서 설교나 과제물을 준비할 때면 안부 인사와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문자를 보냈다. 민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로 답신을 보냈다. 차츰 P가 보내오는 카톡 세상은 그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했다. 어디서 것처럼 아름다운 영상을 찾아냈는지? 때로 선정적인 것도 보였다.

한번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낙엽이 꽃잎처럼 흩날리는 동영상을 받았다. 환상적인 경치에 곁들여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끝부분에는 젊은 남녀가 수북한 낙엽 위를 뒹굴며 잇달아 키스를 퍼붓는 장면이 나왔다. ……분명히 잘못 온 것은 아니었다. 민은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핸드폰을 닫고 한참 생각하다 ‘참 아름답습니다, 재미있네요^^’라고 답을 했다. 그는 다양한 카톡을 받을 때마다 나의 답신이 너무 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다른 말을 덧붙일 수는 없었다. 언제나 무덤덤하고 냉담한 회신을 했기 때문일까? 그해 성탄절과 새해 인사를 끝으로 P의 카톡은 끊어지고 말았다.

민은 물끄러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랑하는 목사님, ……’ 마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와 같았다. 아침마다 배달되던 정다운(?) 그녀의 카톡이 까닭 모르게 끊어지고 나서 민에게는 모든 것이 옛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뜻밖에 ‘사랑의 편지’가 날아온 것이다. 서로 눈길은 마주치지 않았으나 그녀는 민을 눈여겨볼 수 있었다. ‘늘 멀리서 바라봐어도 가까이 있는 듯 좋은 마음입니다.’ 민은 지난날처럼 무덤덤한 답을 보내거나 침묵할 수는 없었다. 보낸 분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려고 답신을 찍었다.

— 냇가에서 우연히 주운 조약돌 하나라도 오래 손에 쥐고 있으면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목석에도 정은 통하는가 봅니다. 오래도록 입지 않는 옷들이 옷장에 걸려있고, 서랍장에는 오래된 용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지

헤라지만 멀쩡한 것을 버리기는 쉽지 않군요. 옛날에는 구멍 난 양말이나 떨어진 옷을 기워 입었는데 요즘 옷은 오래되어도 색깔이 그대로 인 것이 많습니다. 조약돌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일까요? 어찌면 낡고 오래된 것일수록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내주신 글 고맙습니다. 주님의 크신 손길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은 자기도 모르게 P에 대한 지난날의 감정을 수정하고 있었다.

— 살롬! 늘 느끼는 깊은 마음을 간직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글 속에 제 모습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망가진 핸드폰을 고무줄로 칭칭 묶어 쓰면서도 쉬 바꾸지 못하는 마음... 새 것보다는 손때 묻어 익숙한 것과 친하다 보니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소유>를 읽는 동안에는 욕심을 버려야지, 가진 것을 나눠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제자리에 서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큼 반가운 사람도 없을 것이다. 민은 금방 받은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카톡이 날아왔다. 마치 마주 앉아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있는 것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되돌려 줌으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옆에 없으면 못살 것 같은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죽도록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요, 월출봉에 달뜨거든 날 불러주요~’(음악)

이어령 선생의 글과 함께 감미롭게 흐르는 엄정행의 노래 <기다리는 마음>을 듣는 민은 호젓한 오솔길을 연인과 산책하는 기분이었다. 뜻밖의 편지를 받은 이후부터 ‘문자 대화’가 계속되면서 그의 머릿속은 온통 P의 모습이 가득했다. 학교에서도 틈만 나면 허공에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면 그 모습이 차창에 어른거렸다.

고개를 가로저어 곱게 웃는 P의 모습을 지운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일그러졌던 호수의 흰 구름이 바람이 자면 피어나듯 그녀의 모습은 다시 떠오른다. 민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설레는 마음은 처음이었다.

아내와 결혼하기까지 민에게는 연애의 짜릿한 기억이 없었다. 아내는 초등학교 같은 반의 짝이었다. 혼기가 될 때까지 한마을에 살았고, 한 도시에서 대학을 다녔고, 마침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두 사람은 가족처럼, 형제처럼 언제나 가까이 있었고, 떨어져 그리워하거나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은 없었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었고, 만남은 두 사람의 일상이었다. 깊이 사랑하면서도 한 번도 떨리는 가슴으로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불혹의 나이에 ‘여인의 편지’를 받고 가슴이 울렁거리다니! 안전지대에 지진이 일어났고, 여진은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새 3월도 하순에 접어들었다. 주일 오후 3시 대학부 지도를 마치고 민은 부목사 H와 휴게실에서 마주 앉았다. 민은 신학교 동기인 H의 추천으로 교육 목사가 되었다.

“민 목사, 해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큰일이야!”

H는 걱정스럽게 말을 꺼냈다.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장년부 세례교인도 줄었다는 기독교신문 보도를 보았어. 오래도록 치열하던 신학대학원 지원율이 요즘은 눈에 띄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일부 지방신학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민은 저출산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염려했다.

“교회들이 온갖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는 올해부터 비상이 걸린 상태지. 애살 맞은 P 부장은 늘 안달이야!”

“교회에는 그런 일꾼이 많아야지. 그분의 남편은 요즘 안 보이던데?”

“아직 몰랐어? 지난 연말에 미국 웨스트포인트로 연수를 떠났어. 한국군 군사행정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

“그랬구나. P 권사는 금요 전도 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이젠 우리 교회 교인이 다 되었네!”

“지난번 원로장로 산수연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전도대

표식을 가슴에 단 사람들 사이에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분은 다재다능한 분이야.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군인과 결혼하고 남편을 따라다니느라 재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

“학생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갈수록 지도하기 어려워. 초창기 미션스쿨의 모습이 점점 바래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언제 우리 학교에 와서 신앙생활 특강을 한번 해주면 좋겠어.”

두 사람이 신학교 때 품었던 고고한 이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P의 카톡은 한 주간에 몇 번씩 배달되었다. 받고 나면 다음 소식이 기다려지고 며칠 동안 잠잠하면 민이 먼저 카톡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느닷없이 ‘까톡!’이 울리면 마음이 움찔했다. 때로 지인들이 보내오기도 하지만 만약 P의 카톡을 아내가 본다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혹,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문자로 안부를 물었다.

— 화창한 날씨!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리치료는 받으셨나요? 하루하루는 더디 가는데 한 달이나 일 년은 빨리 가는 것 같고, 세월이 요술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

P는 어느 날 저녁 시외버스터미널 앞 육교를 내려오다가 버려진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져 발목을 빼었다고 했다. 상처가 혹시 덧난 것일까? 어느 때 같으면 금방 회신이 날아오는데 오늘은

종일토록 소식이 없었다. P는 이튿날 아침에야 민의 문자를 확인했다.

— 목사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 인지라 이제사 답을 드립니다. 발목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저는 늘 높으신 분께서 목사님과의 대화를 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문자는 제게 큰 선물입니다. 지난번 늘어놓았던 엉뚱한 말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갑갑하고 갈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온유하신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 안에서 묵묵히 사랑합니다. 샬롬!

엉뚱한 말이란 얼마 전 ‘홀로된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꺼낸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민은 P의 ‘묵묵히 사랑합니다.’란 말이 당황스러웠다.

— 다행입니다. 잘 조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민은 간단한 답신을 보냈으나 마음은 안정을 잃었다. ‘주 안에서’란 수식어는 여진을 잠재우지 못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듯 고요하던 민의 가슴에 잇달아 심랑이 일고 있었다.

민은 주말 아침 일찍, 서재의 의자에 기대앉아 P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무숲에는 등지를 찾아든 새들이 지저귀고, P와 함께 연인들의 아베크 코스인 의암호 ‘봄내 길’을 걸어간다. 흥시처럼 곱게 물든 노을빛이 민의 마음도 그렇게 물들이고 있었다. P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문자가 들어오는 핸드폰 소리가 민을 일깨웠다.

— 빗물로 세수한 하늘이 맑은 바람으로 아침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생각지도 않은 방언(?)이 터졌나 봅니다. 줄 줄 줄, 죄송합니다.^^ ♡

민은 곧바로 답신을 찍었다.

— 오늘도 좋은 날! 주신 방언은 잘 해독했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멋있게 가꾸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언제나 길은 열려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정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말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던져진 유한한 삶을 무의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나아갈 뜻대를 세우는 것은 보람이며 긍지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샬롬.

그저께 P는 민에게 전화를 걸어 고등부 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대해 문의하면서 음악학원을 하나 열어 학생들을 지도해보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낯선 길로 접어든 ‘사랑’은 자주 민의 마음을 흔트려놓았다. 책을 펴면 온통 그녀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괴로움과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 봄이 가고 여름이 오기까지 사랑의 문자는 부지런히 왕래했다.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사랑 — ‘사과’는 조금씩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민의 괴로움은 기도로 변했으나 사랑을 차단하고 싶지는 않았다.

잇달아 배달되는 P의 편지는 가랑비처럼 마음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의 편지’를 쓸 수는 없었다. 민은 시의 힘을 빌려

야 했다.

노랑나비 인사말에
한동안 닫혀있던 창을 열고
파아랴게 꿈꾸는
하늘 우리런다

실바람에 하늘대는 꽃송이들
펼친 책장마다
새하얀 마아가랫은
피고 또 피고

무지갯빛 비눗방울 같은
그리움 엮어 달고
몸짓으로 노래 부르는
동그라미 하나

민은 숨어있는 마음을 담아 ‘한 장의 그림엽서’를 띄워 보냈다.

장맛비 그치고
하늘에서 금빛 은빛
찬란한 햇살이 쏟아같이
달려온 여름

녹녹한 셔츠
낡은 바지 빨강 치마
말끔히 빨아 넣었습니다

축축한 기분도 뽕송뽕송
이리저리 단정치 못한 마음도
빨아 넣었으면 좋으련만...

빨래하는 날
목사님의 귀한 글을
송구스런 마음으로 받아 읽으며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한 장의 엽서를 보내자 잠시 후에 P의 답신이 날아왔다. 다음 주
간에는 중고등부가 여름수련회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주일날,
점심시간이 끝나고는 분주히 식당을 오가며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언제부터인가 편지를 보내면서도 민의 마
음은 차츰 비구름처럼 무거워졌다. 3박 4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
온 P는 수련회 보고 대신 덮어두었던 가슴을 살짝 열어 보였다.

— 어찌다 마주한 바위 같은 침묵// 가슴에 핀 그리움은/ 초록 연
못에 동그라미를 수놓고// 문득, 소나기 한줄기 지난 뒤/ 무지개 솔
바람 타고// 선한 목자의 옷깃을/ 스쳐온 바람이 제 곁에 잠시 머무
릅니다. 감사합니다.♡

— 시를 한 편 쓰셨군요! 좋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샬롬.

— 하하하, 목사님, 시가 아니구요, 냇두리... 제 마음의 젖은 모
서리를 뽕송뽕송 말려주시는 하늘이 제 편인 듯. 오늘은 틈내어 조
용한 자리에서 책을 펼칩니다. 한동안 방향을 거듭하던 마음이 이
제 설 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목사님 침묵의 기
도에 얽치없이 기대어 이처럼 ‘행복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고 있

습니다.♡

—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지요. 무더위에 책을 읽을 시원한 공간, 그런 자리 하나씩 있으면 좋지요. 읽고 나서 독후감 보내주세요.

민은 주일날 대학부 지도를 마치고 나서 그녀가 눈에 떨까 이리 저리 살폈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다음 월요일에 P의 문자를 받았다.

— 목사님,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5시에 혹, 시간을 낼 수 있으신지요. 가능하시다면 소양 레스토랑에서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신을 보내면서도 민은 마음의 허리띠를 조였다.

석양빛이 물들기 시작하는 의암호반의 소양 레스토랑. P는 창가 자리에 앉아있었다. 빨간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일어서서 민을 맞았다.

“잘 찾아오셨군요! 초침까지 정시입니다. 호호호.”

“얼마 전에는 기독교생회원들을 데리고 길 건너편 조각공원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춘천에 뿌리를 내린 지 10년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고향 같은 곳이지요.....”

민은 이처럼 P와 가까이 마주 앉아 보기는 처음이었다. 살짝 옷은 동그란 얼굴에 앞니 끝을 둘러싼 금빛 보철이 귀걸이와 함께 반짝인다. 날씬한 몸매에 진주 목걸이를 가슴에 드리우고 컵에 물을 따르는 손에는 오팔 반지가 은은하다. 커다란 눈꼬리에는 잔주름이 잡혀있어도 마야가렛처럼 화사한 얼굴! 민은 하얀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싶었다. 창문으로 비치는 저녁 햇살을 한쪽 뺨에 받으

면서 그녀는 호기심 어린 소녀처럼 눈을 깜박이며 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무슨 책을 읽으셨어요?”

민은 그녀의 독후감을 듣고 싶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애뜻한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대학 시절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졌던 두 남녀가 뜻밖의 오해로 헤어졌어요. 준세이는 여자의 서른 번째 생일날, 피렌체의 두오모 쿠폴라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렌체에서 중세의 그림을 복원하는 복원가로 일하고, 여자 아오이는 밀라노의 보석상 직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약속한 그 장소에서 극적으로 재회한 두 사람이 ‘폭풍우 같은, 빛의 홍수 같은’ 사흘 동안을 함께 지내고 헤어지는 장면이 참으로 애처롭더군요. 쓰라린 마음으로 아오이를 전송하고, 곧이어 밀라노행 국제 특급열차를 타고 뒤쫓아 가는 준세이가 참으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가 밀라노에 도착하면 아오이가 먼저 타고 떠난 국내 특급보다 15분 앞서 도착할 수 있는 거지요. 준세이는 ‘단지,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어쨌든 다시 한번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열차의 트랩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P는 줄 줄 줄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저는 준세이가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쿠폴라 위에서 아오이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흘러간 8년이란 시간을 복원할 것이다’란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준세이를 두고 왜 아오이가 떠나가야 했을까요?”

“첫사랑은 그렇게 애처로운 이별로 완성되는가 봅니다! 오래도록 색깔이 바래지 않는 한 폭의 그림이지요.”

“저는 열정은 냉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정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민은 독후감을 나누며 약간은 어색해진 마음을 신앙 쪽으로 돌려놓았다.

“목사님, 저는 오래전 친구들과의 산행에서 발을 헛디뎠다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해도 걷기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시 믿음을 벗어난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기도의 집’ 문을 두드리고, 한 달쯤 머물면서 신유를 체험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서는 젊은 시절의 자유분방한 꿈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에 열과 성을 쏟았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나 저의 가슴은 또 한 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쁨이 없는 현신이 괴로움을 불러왔고, 그런 답답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취미생활로 눈을 돌렸습니다. 시 낭송에 참여했고, 목공예에 빠져들기도 하고, 요리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만족이 있을 리 없었지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한다던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에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가슴 깊이 박혀있던 돌맹이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간증처럼 거침없이 얘기를 늘어놓던 P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도 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새 이름을 하나 지어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이어령 선생의 글과 함께 보내주신 영상을 볼 때 생각난 것입니다. 권사님이 얘기하는 모습은 언제나 귀여운 꼬마 같아서 ‘큰 꼬마’를 줄인 말로 ‘크마’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하하!”

“쑥스럽지만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마치 예쁜 아호처럼 들립니다. 저는 언제쯤 목사님께 식사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구 목사님이면 심방하실 때 집으로 모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교목은 책상에 앉아서 두루 심방을 합니다. 학생들이 한 사람씩 찾아오니까요.”

민은 P와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둘은 밖으로 나와 열사흘 달빛이 낭자한 호반 봄내길을 말없이 걸었다. 이미 할 얘기를 다 해버린 것처럼— 데크 바닥을 또각또각 노크하는 하이힐 소리에 놀랐는지 잠자던 개구리가 풍덩, 풍덩,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호수 기슭의 산자락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푸드덕거렸다.

“아마 잠꼬대 하는 어린 새들인가 보지요. 저도 여름밤 평상에 서 자다가 굴러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P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누가 엿어가도 모를 만큼 몸부림 치며 자던 때가 좋았다고 말하며 걸음을 멈추고, 달빛이 일렁이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미국에 계시는 K 집사님의 소식은 자주 듣고 있습니까?”

민은 비로소 부군의 안부를 물었다.

“남편은 미국에 도착해서 한두 차례 편지하고는 여태껏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리는 성격이니까요. 기도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호수 위에 불타는 굴렁쇠 같은 춘천대교의 야경을 바라보며 달빛에 버무려진 물 냄새를 맡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신 와인 때문일까? 집에 돌아왔을 때는 호수에 피어오르던 물안개처럼 머릿속은 뿌연 그림자가 끼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아내가 깨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착한 아내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틈만 나면 P의 생각에 빠져들었다. 어떨 때는 아무도 몰래 들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싶었다. 아무리 다짐하며 기도해도 그녀의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폴 발레리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영혼은 자주 머리를 싸맨다. 민은 밤늦도록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숨바꼭질 같은 이야기를 적어 보냈다.

— 한 소년이 뜻밖의 천사를 만나/ 무지개를 잡으려/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허공으로 팔을 뻗으며/ 며칠을 걸어갔습니다// 강나루 미루나무 가지에는/ 매미가 목놓아 울고.../ 여린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 깨어보니 빈 나룻배만 매여있고/ 강은 말이 없었습니다

// 소년은 떠나간 천사를 그리워하며/ 수신자 없는 편지를/ 날마다 하늘로 띄워 보냈습니다.// 유년의 꿈은/ 이제 한 쪽의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민은 여울처럼 소용돌이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답신을 기다리던 마음은 쫄쫄 접어놓았다.

이튿날 저녁때 열어본 핸드폰에는 P의 답신이 들어 있었다.

— 새로 태어난 아침/ 어제는 씻은 듯이 지나가 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아기 마음// 제 가슴 한켠에도/ 개구쟁이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슬그머니 빠져나와/ 메~롱 메~롱, 친구에게 약을 올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비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아이는/ 아마도 철들기는 어려운 듯/ 몸은 자라지 않고 떼쟁이처럼 / 울음소리만 커가고 있습니다.

크마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삶이란 반투명한 덮개’라고 말한 버지니아 울프를 떠올립니다. 목사님의 글을 띄엄띄엄 해독해보지만 좁은 머리로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군요. 조용히 생각할 시간도, 여유로움도 없는 마음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발걸음만 재촉하고 있습니다. 목에 등판에 얼굴에 흐르는 땀을 토닥이며 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구름 한 점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크마가 보낸 답신에 민은 침묵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놓았다. 그러나 하루가 못 되어 다시 ‘슬래놀이’ 이야기를 짚고 있었다. 무언가 한마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 메~롱, 하고 숨어버린 별을 찾아/ 술래는 오래도록 헤매었다//
어스름이 스미는 봄내동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크마는
바위틈에 홀로 잠들었다// 술래놀이 아이들은/ 엄마가 부르는 소리
에/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고,// 잠든 크마는/ 누가 깨워주는가// 은
가루를 뿌리는 달빛 아래/ 서성이는 그림자 하나.

민이 보낸 문자에 답신은 없었다. 시간은 조용히 새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 주간이 지나고 크마는 청주에 다녀왔다는 문자를 보냈다. 일흔이 넘어 홀로 계신 어머니가 오른팔 골절상을 입어 문병하고 집안일을 돌보아드렸다는 것이다. 문자를 대하자 다시금 크마가 보고 싶어지다니! 어쩔 수 없는 마음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민은 기도의 힘으로 그녀에게 답답한 문자를 보낼 수 있었다.

— 새벽기도회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두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저 좋은 마음을 어찌지 못해 숨바꼭질도 하고, 아이처럼 얘기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내 마음 감추지 못하고…….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민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교목실 창밖을 내다본다. 운동장 건너편의 은행나무는 어느새 노란 옷을 갈아입었다. 크마는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공중 나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쌀 수는 있어도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민은 상담 시간에 한 여학생에게 일러준 말을 떠올렸다. 며칠 후 민은 학교로 배달된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 분홍색 봉투에 쓰인 발신인의 이름은

크마였다.

— 목사님, 아직도 그 크신 사랑의 지경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철부지입니다. 언젠가 라일락꽃 같은 향기를 품고 수녀가 되려는 꿈을 꾸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약속하고, 그 뜻을 위해 80:1의 경쟁을 뚫고 얻었던 국립오페라단원 합격의 영광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권유를 따라 선보는 자리에 나아갔고, 결과는 “시집가거라!”는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면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날 줄 생각하고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익히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5대째 가톨릭 집안에서 믿음의 세포를 키웠던 저는 어렵사리, 참으로 어렵게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거룩한 꿈’은 옛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가끔은 수녀원의 높은 담장을 쳐다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철없는 것이 백 년을 넘어 산다고 해도 어찌 그분들의 사랑을 배울 수 있으리오. 어찌 목사님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으리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어들, 시인들의 감성은 그분들만의 것인 것을! 흥내라도 내고 싶어 멋대로 생각을 읊조리고, 남의 시를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긴모리! 자진모리! 외로운 울음으로 피안의 이정표를 기웃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개를 가질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벌거벗은 마음을 다 드러내기에는 한

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저의 영육이 용량초과로 에러를 남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또 하나의 아이가 숨어있습니다. 그 아이는 무지개를 타고 올라 은하수를 건너보고 싶어 날마다 옆구리에 돌아나는 깃털을 가지런히 쓰다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처럼 날아오르고 싶은데 믿음 없는 크마는 날개를 펼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기도로 상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는 생각의 편차가 너무 커서 아무도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냥 실타래처럼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글 용서해 주십시오. 샬롬.

공은 다시 민에게로 넘어왔다. 무엇으로 위로하며 어떻게 크마를 든든히 세워줄 것인가? 온종일 마음은 구름에 실려있었다. 그는 늦은 밤 서재에서 문자를 찍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잠들어 있겠지요. 오늘은 아무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시다. 라일락꽃 향기를 맡으며 아직도 수녀원 담장을 쳐다보는 천사 후보생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 같은 아가씨가 있었지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곱게 찍힌 여러 개의 빨강 하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태껏 한 번도 하트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선하게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시어 속에 감춘 것 죄송합니다. 저는 수녀원을 동경하던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가 더 좋습니다. 지난날 ‘묵묵히 사랑합니다’란 말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민은 편지를 띄우고 자정이 지나서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제나 바윗돌 같던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크마는 아무리 애써도 다가설 수 없는 거리감이 서럽기도 하지만 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한 가닥 위로가 되었다. 갑갑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민에게 크마는 지난번 소양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내왔다. 그러나 민은 수락도 거절도 할 수 없었다. 생각을 거듭하며 하루를 보냈다. 크마는 아무리 사랑하고 잊지 못할지라도 한 목회자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그녀는 신실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는 올곧은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내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 마주 앉아 어색한 고별인사를 나누는 것보다는 편지가 더욱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 변명은 꼭 하고 싶었다.

—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편지나 문자를 보낼 때 습관처럼 ‘사랑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사랑은 특별한 색깔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책과 하나뿐인 딸 년만을 사랑하시다가 새벽안개를 헤치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나의 아버지! 그런데도 생전의 아버님께 단 한 번도 ‘사랑합니다’라

고 말씀드리지 못한 불효막심한 딸이었음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결혼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그 엄명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지난날 순종하고 포기했던 일들이 이제야 아쉬움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사죄의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생각했나 봅니다. 아마도 제 가슴은 불효의 한을 품고 죽는 날까지 사랑의 인사를 허공에 뿌리며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하트, 용서하십시오.

크마는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건널 수 없는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공기조차 무거운 한 주간이 지나고 민은 크마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그 눈물은 민의 가슴을 적셨다. 한마디 말의 억양이 색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크레파스를 칠한다고 도화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크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무슨 엉뚱한 안도의 심사인가? 그녀는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며 나에게 대한 사랑이 ‘특별한 색깔’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수습할 수 있게 한 그녀의 결단이 고마웠다! 숨바꼭질을 끝내야 한다. 민은 크마와의 사랑에 흠가지 않도록 그동안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그가 옮겨갈 수 있는 학교는 같은 재단인 대전 성심여고가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거룩한 사랑만은 붙들어야 했기에 마지막 답신을 보냈다.

— 사랑하는 크마에게.

새해에 저는/ 대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개밥바라기 떠오르면/
새하얀 마아가렛의 술래로/ 호반에서 숨바꼭질하며/ 봄내에 살어
리랏다. —민.

부 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5)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5년 임원조직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부산크리스천문학 회원 주소록

2025년 회원 계시판 동정

편집후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5)

* 회장은 추대하며 임기는 2년

- 제 1 대 : 양왕용 (1989-1993) (시인, 부산대학교 교수 역임, 장로)
- 제 2 대 : 한영자 (1994-1995) (수필가, 문학박사, 권사)
- 제 3 대 : 정선기 (1996-1997) (시인, 부산일보 논설위원 역임, 장로)
- 제 4 대 : 김인환 (1998-1999) (시인, 복음신문 사장 역임)
- 제 5 대 : 남송우 (2000) (평론가, 부경대 교수)
- 제 6 대 : 허성욱 (2001-2002) (시조시인, 목사)
- 제 7 대 : 안유환 (2003-2004) (시인, 소설가, 목사)
- 제 8 대 : 류정희 (2005-2006) (시인, 권사)
- 제 9 대 : 하현식 (2007-2008) (시인, 평론가, 장로)
- 제10대 : 박정선 (2009-2010) (시인, 소설가, 평론가, 권사)
- 제11대 : 박춘덕 (2011~2012) (시인, 평론가, 고신대 명예교수)
- 제12대 : 공기화 (2013-2014) (수필가,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장로)
- 제13대 : 신 선 (2015-2016) (시인, 문학박사, 사모)
- 제14대 : 임중성 (2017-2018) (시인)
- 제15대 : 박춘덕 (2019-2020) (시인, 평론가, 고신대 명예교수)
- 제16대 : 김종현 (2021~2022) (시인, 음악가, 사진작가, 장로)
- 제17대 : 최귀례 (2022~2023) (시인)
- 제18대 : 송정우 (2024~현재) (시인, 장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창립취지와 활동 요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학적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창립하였다. 본회는 재부 크리스천문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문학 장르는 시, 시조, 수필, 소설, 동시, 동화, 희곡, 평론 등 전 장르를 아우른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매년 연간집 『부산크리스천문학』을 발간하여 교회 및 학교와 각 도서관과 교도소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서함양과 지적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문학을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1992년 『소금의 나라』출판, 1993년 『빛의 나라』를 출판했다. 1994년부터 『부산크리스천문학』으로 제호를 바꾸어 출판하였다.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사 요지

1980년 장성만 목사, 심군식 목사, 하현식 장로 등이 중심이 되어 『부산기독교문인협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다.

1986년 8월 김홍규 목사 와 허성욱 시인이 『어린양문학회』로 명명했다가 다시 『생명강문학』으로 개칭하다. 『열린 노래들』,

「눈으로 보는 소리」, 「침묵 속의 아가」 등의 문학지를 발간하다.

1989년 7월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민주교사협의회 모임 개최, 허성욱 시인과 박윤기 시인과 부산대학교 양왕용 교수가 회동하여 기독교문인협회에 대해 논의하다.

1989년 8월 심근식, 양왕용, 하현식, 박윤기가 가칭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를 발기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다.

1989년 9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소재 소정교회 교육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 취지문 :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순수문학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회원자격은 기성문단에 데뷔한 문인과 기독교계통 문학지, 신문의 문학상 수상 또는 신인상을 받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 임원 : 고문 심근식(용호제일교회 목사:고신총회교육위원회)
회장 양왕용(소정교회 장로:부산대교수)
부회장 하현식(석포교회 장로:브니엘고교 교사)
총무 허성욱(삼일교회 집사:성지공고)
서기 구모룡(소정교회 출석:부산대 사대)
- 임원보장 : 부회장 한영자(동래온천감리교회 권사:한가족의원)
감사 임춘남(사상제일침례교회 목사)

1989년 10월 16일 오후6시30분 온천동 소재 소정교회 교육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의 모임을 갖고 회칙을 제정하고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와 별개의 단체임을 확인하다.

1990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 조방 앞 석화그릴 5층에서 월례회를
개최하여 문집 발간에 대해 논의했다. 백성규, 김흥규를 회
원으로 영입하다.

1990년 3월 6일 오후 6시 30분 문현동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
를 개최하여 문집발간, 교회복음신문 독자문예란 심사, 월
례회 시 작품 평가회와 문제작 토론회를 갖기로 하고 4월 30
일 회칙수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다.

1990년 4월 30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임시총회로 모여 회계를 두
기로 하였고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문학과 지성사)에 대해 양
왕용의 주제 발표 후 토론 시간을 가지다

1990년 5월 28일 오후 6시 30분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
고 월례회를 홀수 달 마지막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복
음신문사에서 열기로 하고, 작품집 발간, 해변기독교문학교
실운영에 대해 논의하다.

1990년 7월 19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7월 월례회로 모여 해변문학
교실 점검하다

1990년 7월 30일-8월 1일 2박 3일간 강서구 천가동 소양보육원에서
해변기독교문학교실을 열다.

- 내용 : 이방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화만이 문화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독교문화를 꽃 피우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와 기독교문
화 작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하다.

· 참가자 : 심군식, 양왕용, 하현식, 한영자, 구모룡, 김인환, 김홍규, 남송우, 박윤기, 박춘덕, 백성호, 임춘남, 허성욱 등이 강사로 활동했다. 남송우 교수가 『한국기독교 문학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시, 소설, 수필, 동화, 콩트, 시조 등의 강의로 이어졌다. 25명의 독자 참가자들에게 각각 저서를 모아 10권씩 나누어 준다.

백일장을 개최하여 3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시-최미경(섬), 정은숙(가덕도), 산문-이태숙(가덕도, 나사리와 가덕도의 만남), 교회복음신문사에서 타올 100장, 본회에서 볼펜 100개를 기념품으로 나누어준다.

1990년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고 최장길, 김동재를 회원으로 영입했다. 정대훈, 안유환, 김석규를 영입하기로 했다. 작품집은 다음해 봄에 출판하기로 결의했다.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문학과 기독교의 만남』 행사를 열기로 하다.

1990년 10월 22일 오후 7시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그 동안 사업을 보고하고, 재정과 해변문학교실 결산을 보고하다.

1990년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삼일교회 소예배실에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어린양문학회와 해변문학회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 기념 문학의 밤> 행사를 열다.

1991년 1월 28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1월 월례회로 모여 작품집 원고 모집의 일과 91년도 해변문학교실에 대해 논의하다.

1991년 4월 1일, 29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해변문학과 작품집

과 회원명부를 정리하고 신입회원을 인준하다.

이금옥, 최장길: 부산아동문학 작가상 수상.

심군식: 주일학교 교육론 출간하다.

1991년 5월 27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작품집 발간을 위한 재정
충당 방법, 제2회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하다.

참석자: 정선기, 구모룡, 송길원, 이금옥, 한영자, 최장길,
김동재, 이영애, 김인환, 허성욱

1991년 7월 29일 월례회를 열고 작품집 원고를 8월 말로 마감하
기로 하고 제2회 해변문학교실 강사와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11월 2일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크리스천주부백일장’을 열
기로 하다.

1991년 9월 30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작품집에 사진, 프로필을
심기로 하다. 임춘남 『절반의 기독교』, 백성호 『성지여행기
거룩한 발자취를 찾아서』를 출간하다.

1991년 10월 기독여성백일장(부산기독문화회와 공동 주최) 개최하다.

장소: 유엔모지

1991년 11월 4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작품집 교정하다.

1992년 1월 10일 첫 작품집 『소금의 나라』 발간하다

1992년 2월 15일 오후 4시 20분 해운대 크리스탈 비치오피스텔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문 심군식, 회장 양왕용, 부회장
정선기, 한영자, 총무 허성욱, 서기 구모룡, 회계 이영애, 감사
임춘남을 각각 선임하다.

1992년 3월 9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고 작품집 배부를
하고 제2집 준비와 <제3회 해변문학교실>, <주부백일장>.

- <추수감사절 기념 문학의 밤>, 초량에 있는 <기독교문화센터>에서 월례회를 하기로 하다. 문학 강좌 개최 등을 논의하다. 5월부터 월례회를 기독교문화센터에서 열기로 결의하다.
- 1992년 4월 20일 정선기 회원 시집(경부선 그리고 호남선) 출판기념회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다.
- 1992년 5월 18일 초량동 소재 기독교문화센터에서 5월 월례회, 작품집 발간, 제3호,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하다.
- 1992년 7월 14일 초량동 소재 기독교문화센터에서 7월 월례회, 작품집 발간 제3회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 첫 작품집 발간비 문제로 힘들었던 일을 논의하다.
- 1992년 9월 9일 월례회를 개최하다.
- 1992년 10월 기독교여성백일장(부산문화회관)을 개최하다.
- 1992년 11월 16일 오후 6시 30분 초량동 광장호텔 2층에서 월례회를 열고 송길원의 <기독교 가정사역의 중요성> 특강을 들었다. 문협회보 <크리스천문학>계간 20페이지 분량을 발간하기로 하다.
- (편집실무/김동재, 이영재, 류정희, 김정후)창간호 발간비 교회복음신문사가 지원, 제2호, 박영희 장로 지원키로 하다.
- 1993년 12월 15일 두번째 작품집 『빛의 나라』 발간하다.
- 1993년 12월 16일 부산기독교문화회와 공동으로 제5회 기독교문화축제를 개최, 이상규 교수(고신대, 교회사학자)의 ‘부산 - 부산 기독교문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토론회를 가진 후 93부산기독교인 수상집(제5집) 『또 하나의 작은 결실』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 작품집 『빛의 나라』 출판기념회를 가지다.

1994년 1월 27일 정기총회(2대회장/한영자선출) 부산일보사 10층에서 개최하다.

1994년 4월 1일 크리스천문학 세미나를 영광도서에서 개최하다.

1994년 6월 27일 크리스천문학 세미나를 부일소강당에서 개최하다.

1994년 8월15일(월)-16일(화) 송정해수욕장 동성리서치타운(동성유스호스텔)에서 ‘문학에 비친 속죄와 구원’이란 주제로 “94해변문학교실”(대회장 : 한영자 회장)개최하다. 이창목사(시인, 남부순복음교회 담임)의 인도로 개회 예배드리다. 박춘덕 교수의 <속죄양의 시>, 남송우 교수의 <현대문명의 위기와 구원의 탐색> 제목의 주제 특강, 양왕용 교수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나타난 기독교문인>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임춘남, 한영자, 이창희, 허성욱의 <나의창작 이론과 실제> 강의와 회원들의 자작시 낭송이 있었고, 독자와의 대화 시간, 신인 발굴을 위한 해변 백일장을 가지다.

1994년 10년 13일 책 모아서 보내기 프로젝트 시행으로 벨엘요양원으로 책을 보내다.

1994년 12년 29일 연산동 뉴그랜드 한식뷔페에서 크리스천문학 제3호(1994.12.20.발행) 출판기념회를 가지다.

1995년 2월 18일 모아호텔에서 199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직을 개편하다.

- 1부 예배: 사회/ 한영자 회장, 기도/ 양왕용 고문, 설교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매일 기도하라”(마6:10) 이창희 목사
- 조직개편 : 회장/한영자, 부회장/ 조남순, 정선기, 허성욱, 감사/ 임춘남, 박춘덕, 총무/ 이창희, 부총무/ 하란사, 서기/류

정희, 부서기/유신자, 회계/이영애, 부회계/남현자,
 이사:시분과/김인환, 배상호, 이창, 이채곤, 임종성
 수필분과/박영희, 아동문학분과/최장길
 소설분과/임춘남, 시조분과/박정선, 평론분과/남송우

- 1995년도 사업계획 : 크리스천문학 세미나 2회(춘,추), 해변문학교실 1회(8월중), ‘95크리스천문학지 발간(11월중), 출판기념회 및 송년의 밤(12월중), 시화전, 정기모임(3개월에 1회) 및 임원회(비정기적)

1995년 8월 15일(화)-16일(수) 송정해수욕장 동성리서치타운(동성유스호스텔)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미래문학’이란 주제로 “95해변문학교실”(대회장: 한영자 회장) 개최하다.

- 15일, 해수욕장 송림에서 오전11시에 해변문학 백일장을 가지고, 오후에 박남훈 교수(문학평론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의식”, 양왕용 교수(시인)의 “시와 신앙-김현승의 경우”, 박춘덕 교수(문학평론가)의 “예언자적 낙관주의 박두진”을 주제로 특강을 가진 후 심야(23시)에 남송우 교수(문학평론가) 인도로 총편 및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다. 16일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다.

발제자: 한영자, 이창희

1996년 1월 29일(월) 서면 엔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선기 시인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고문: 심군식, 양왕용, 한영자

부회장: 이창희, 조남순, 허성욱, 사무국장: 하승무

사무차장: 손영희, 분과위원장: 임종성, 박정선, 임춘남,

남송우, 박영희, 최장길, 하창길

서기 : 이영애, 회계 : 류정희, 간사 : 남현자

감사 : 박춘덕, 백성호

1996년. 6월 10일(월)-12일(수) 부산일보사 1층 전시실과 10층 소강당에서 “시인 예수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크리스천문학 축제>를 개최하다.

- 취지와 목적 : 문학의 해를 기념하여 기독교 문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다.
- 전시 참가 작가 : 권수연, 김인환, 김정미, 김정후, 남현자, 류정희, 박춘덕, 백정자, 손영희, 송유미, 신선, 심군식, 양왕용, 이창희, 임유영, 임종성, 임춘남, 정선기, 조남순, 최장길, 하승무, 한영자, 허성욱
- 공연 : 6월10일 오후7시에 정선기 회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 동시 행위전, 연주회, 중창, 시낭송, 수필낭송, 구연동화, 독창, 드라마, 연합찬양 등이 진행되었고 아동문학가 심군식 목사의 축도로 폐회하다.

1997년 1월 28일(화) 서면 엔젤 호텔에서 97정기총회를 열고 문학기행, 해변문학축제, 연간집 발간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다.

1997년 8월15일-16일 송정해수욕장 동성 유스호스텔에서 “자연, 환경, 생태 그리고 기독교문화”란 주제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남송우 교수의 발제 강연 : “생태계 파괴와 생명 의식의 형상화”, 최원철 교수 : “생명, 그 기독교적 접근”, 박춘덕 교수의 “박두진 시에 나타난 자연관과 기독교” 등의 일반 특강이 있었다. 한영자 수필가의 “수필에 나타난 자

연”, 허성욱 시조시인의 “시조에 나타난 자연”, 최장길 아동 문학가의 “아동문학에 나타난 자연”, 임춘남 소설가의 “소설에 나타난 자연”이란 창작 이론 강의와 문인 및 독자의 작품 낭송 등을 개최하다.

2001년 8월 6일(월) - 7일(화) 거제 유스호스텔에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 주제특강: 『생태학적 세계관과 생명문학』 남송우 교수, 『독도의 역사적 의미』 박정선 시인.
- 남송우 회장의 사의표명(캐나다 교환교수)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허성욱 시조시인을 6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2002년 1월 29일 서면 영광도서 앞 골드라인(한미은행 20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2002. 8. 5.(월)-6(화)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한국크리스천 문학가협회와 공동주최로 2002년도 여름문학세미나를 개최하다. 주제: “멀티미디어 시대와 기독교문학”

- (주제발표: 허성욱 시조 시인, 오인문 소설가). 부산대학교 박재운 총장 만찬/기념사가 있었고, 작품상 시상식, 작품 낭송, “나의 작품 나의 인생”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한국크리스천문학 회원들과 함께 송정 관광 시간을 가지다.

2003년 2월 3일 대연동 채식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유환 시인을 7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부회장: 류정희, 이영애, 류일렬 사무국장: 박정선 회계: 남현자 간사: 손영희, 김정미, 신선, 조금순

2003년 4월 25일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4층)에서 『크리스천문

학』 제11집 출판기념회를 갖다.

2003년 5월 13일 부산시청 동백홀(26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제11집 합평회 및 2003 해변문학교실 개최를 논의하다.

2003년 6월 9일 오후 6:30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월례회를 갖고 금년 해변문학교실을 거제도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주제는 ‘바다’로 결의하다.

2003년 8월 4일 - 5일 거제 문화관광농원에서 『바다, 그 실존과 허무를 넘어』 주제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 주요순서 : 1) 주제강의= 정선기 시인.
- 2) 캐나다 이야기= 남송우 교수.
- 3)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의 발전을 위한 모색= 조별토의.
- 박춘덕 교수(고신대)= 미 남가주대학 교환 교수를 마치고 귀국.
- 전기웅 교수(부산대)= 『부산시인』 편집주간으로 취임하다.

2004년 4월 22일 연산로터리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 문학』 제12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다. 1부 예배(박용주 목사 인도)에 이어 시낭송= 류정희, 최원철, 서평= 구모룡 교수(해양대학교), 축사= 강인수 부산문인협회장 격려사= 임수생 부산시인협회장, 축가= 사직동교회 중창단 순으로 이어지다.

2004년 10월 25~26일(1박2일) 가을문학기행을 실시하다
코스=악양 평사리 - 화개장터 - 지리산온천(숙박) - 선암사 - 낙안읍성 - 보성차밭 - 강진등

2006년 12월 서면 롯데 백화점 9층 한정식 <가원>에서 총회를 열고 박정선을 제9대 회장 선임하다.

2007년 1월 14일 박정선 신임회장이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명, 6개월간 회장 공석.

2007년 9월 20일 부전동 적십자회관 옆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하현식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하다.

2007년 12월 27일 크리스천문학 제15집 출판기념회 및 문학강연을 개최하다. 강사: 한영자 박사(일제강점기 한국기독교 詩 연구)

2008년 1월 15일 서면 베아트리체에서 월례회 개최하다.

- 특강: 하현식 문학강좌(표현과 의미)
- 신입회원: 김부상(소설), 김정자(시조), 월례회는 격월제로 넷째 화요일마다 열기로 하다. 문학강좌는 계속하기로 하다.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제정하기로 하다. 해변문학교실 부활. 문학기행하기로 하다.

2008년 4월 9일 문학기행. 장소: 밀양 베테스다 복지센터

2008년 8월 21일~22일 해변문학교실개최, 문학지망생 13명 참가 / 거제 둔덕 유치환 생가 청마기념관, 청마묘소, 패왕성, 산방산, 방하교회, 거제수목원 방문

2008년 12월 2일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설 문예대학 개강식을 하다.

- 학장: 양왕용 박사, 학감: 김종화, 교무처장: 김종현, 교무부처장: 양운형
- 책임교수: 하현식, 양왕용, 임종성, 남송우
- 특강교수: 박춘덕 시인, 허성욱 시조시인, 박시교 시조시인, 강은교 시인, 박정선 소설가, 김하기 소설가, 정목일 수필가, 김시백 시조시인, 권대근 수필가

- 2008년 12월 총회를 열고 박정선을 제10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09년 6월 문학기행 경남 사천시 박재삼 문학관 기행, 하동 이병주 문학관 기행을 하다.
- 2009년 8월 하계세미나 및 문학기행(경북 칠곡 구상 문학관, 다부동전투지, 안동 이육사 문학관, 도산서원 답사)을 하다.
- 2009년 8월 크리스천 한여름 백일장 개최(경성대학교 신학대학)하다.
- 2010년 봄 문학기행 박경리 토지문학관 및 홍쌍리 매실농원을 기행하다.
- 2010년 8월 크리스천 한여름 백일장 개최(모두모두 농원)하다.
- 2010년 10월 제2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하여 장원 명인숙(수필) 수상하다.
- 2010년 12월 총회를 열고 박춘덕 시인을 제11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11년 4월 거제도 일원 문학기행을 하다.
- 2011년 10월 제3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백일장 개최하여(부경대학교) 장원 권갑숙(수필) 수상하다.
- 2011년 12월 총회 겸 부산크리스천문학 19집 출판기념회를 하다.
- 2012년 4월 봄 문학기행,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대구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대구제일교회, 계산 성당, 영천 자천교회 방문하다.
- 2012년 10월 13일 제4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교)하여 장원 권영숙(시) 수상하다.
- 2012년 12월 20일 총회 및 부산크리스천문학 20집 출판기념회,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시와 음악의 밤(대청동 프라미스랜드) 공기화 수필가를 제12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13년 5월 4일~24일 『가족과 함께 시의 세계로』 가정의 달 시화
전 개최(해운대 동백섬)
- 2013년 10월 9일 제5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
교), 장원 임지연(산문) 수상하다.
- 2013년 12월 7일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시 낭송회를 남포동 <까페
브릿지> 2호점에서 개최하다.
- 2014년 10월 3일 제6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
교)하여 장원 안정숙(수필) 수상하다.
- 2015년 8월 17일~18일 여름문학세미나 밀양소명수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제목으로 개최하다.(참석:14명)
- 2015년 12월 14일 총회 및 문학의 밤 부전교회 부전카페에서
신선 제13대 회장 추대하다.
- 2016년 4월 29일 통영 문학기행(청마 유치환 생가, 박경리문학관, 김춘수 생가,
이순신공원 등)을 하다.
- 2016년 6월 17일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25회 출판기념
회를 개최하다.
- 2016년 8월 26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2016년 하계 문학 세미나 개
최하다. 주제 : 김현승의 시세계 발표자:박정선(교문)
- 2016년 12월 13일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26회 출판기념
회 및 총회 개최하다. 제14대 임종성 회장 추대하다.
- 2017년 4월 21일 소록도외 순천만 문학기행하다,
- 2017년 6월 30일 상반기 출판기념회(서면아이온뷔페)를 하다.
- 2017년 8월 18일 하기 문학세미나 주제 ‘1919년과 대한민국 그리고
문학’을 개최하다.(장소:해운대문화회관)

- 2017년 8월 18일 신입사무국장으로 김종헌 임명하다.
- 2017년 12월 23일 부산크리스천문학 28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신인상:최방식(수필)
제1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으로 양왕용 수상하다.
- 2018년 4월 16일 월례회 개최하여 임종성 회장 병가로 인해 최귀례 회장대행 선임하다.(장소:서면 남대문)
- 2018년 7월 19일 부산크리스천문학 29호 출판기념회(장소:서면 남대문 식당)를 하다.
- 2018년 8월 16일~17일 지리산 청학펜션에서 문학수양회 개최하다.
- 2018년 8월 21일 임종성 회장 소천하다.
- 2018년 12월 26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0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를 하다.(장소:대연교회)제15대 박춘덕회장 추대하다.
- 2019년 2월 제 2회 부산 크리스천 문학상 시상식(수상자:안유환) 및 월례회(장소:부전교회)를 개최하다.
- 2019년 6월 24일 봄 문학기행(안동일원)을 실시하다.
- 2019년 6월 27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1호 출판기념회(장소:부전교회)를 개최하다.
- 2019년 12월 19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2호 출판 기념회 및 제3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시상식(수상자:박정선, 수상작:유산) 개최하다. (장소:부전교회)
- 2020년 6월 25일 부산 크리스천문학 33호 출판기념회 및 월례회 (장소:해암뷔페) 신인상: 최유미, 이승훈(시)
- 2021년 1월 29일 부산 크리스천문학 34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 개최하다. 제4회 부산 크리스천문학상 시상식(수상자:신선)

과 신인상 손정란, 이귀미(시), 김숙희(수필) 수상하다.

제16대 김종헌 회장 추대하다 (장소: 해운대 천지연)

2021년 12월 허성욱 제5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수상하다.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 영광도서 9층 무궁화홀 35명 참석

2022년 2월 김종헌 회장 소천하다.

2022년 2월 최귀례 회장 취임하다. (17대)

2022년 3월 3일 임원회의 오전 11시 남천동 성산교회 회장 외 5명
참석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11시 물운대 걷기대회 회장 외 12명 참석

2022년 4월 14일 12시 월례회 남천동 성산교회

2022년 5월 3일 오전 11시 30분 해운대 장지년 식당

1차 편집회의 양윤희 편집장 외 6명

2022년 6월 9일 솔내음에서 상반기 37회 출판기념식을 가지다.

기도 안유환 목사님

2022년 7월 2일 토요일 부크문 임원회의

2022년 8월 25일 월례회 남천동 성산교회 소회의실 회장 외 12명
참석

2022년 10월 25일 회동수원지 가을걷기대회를 가지다.

2022년 11월 임원회의

2022년 12월 27일 오후 5시 서면 솔내음 3층

제38호 정기총회 및 38호 출판기념회 서면 솔내음

기도 안유환 목사님

*유정희 고문 문학상 시상

*최방식 사무국장 사임

- 2023년 1월 26일 부크문 임원 및 이사회를 개최 임원 및 이사회
 시간: 2023. 1. 26. 목요일 12시
 장소: 식사 한우 참사랑 식육식당
 회의: 산성교회 *공석 중인 사무국장을 감윤옥 선생님 임명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식 개정에 대해 자유토론, 문학과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 2023년 2월 월례회 및 편집위원 회의 출간 책 소개
- 2023년 3월 봄 문학기행 성지곡 수원지 및 재능기부 나눔
- 2023년 4월 월례회 출간 책 소개 및 은혜 나눔
- 2023년 6월 29일 월례회 및 출판기념회
- 2023년 7월 1일 제2회 부크문 시화전 개막식. 시화 45점 전시
 기도: 윤춘식 목사
 축사: 부산극동방송 성영호 목사
 고신대명예교수 이상규 목사
- 2023년 7월 27일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개정안 통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1차 편집위원회 회의
- 2023년 11월 9일 성지곡 가을기행
- 2023년 11월 16일 1차 편집회의
- 2023년 12월 하반기 출판기념회(40호)
- 2024년 1월 26일 임원회의
- 2024년 2월 5일 일원 및 고문단 회의
- 2024년 2월 22일 임시총회
 • 감사선출: 권갑숙, 명인숙
 • 2024년 사업계획 승인건

- 2024년 예산 승인건
- 재정확충 방안 토의
- 문학 기행 등 행사 토비

2024년 3월 18일 이사회

- 신입회원 인준: 구애순, 이둘자
- 문학 세미나 등 토의

2024년 4월 22일 월례회

- 문학 기행 안내 및 부크문 발전방안 토의

2024년 5월 25일 문학기행

- 전남 담양 가시문학관 등
- 문학의 발자취를 답사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

2024년 6월 20일 출판기념회 (부크문 제41호)

- 기념식 및 신입 회원 소개 등

2024년 7월 11일 문학세미나

-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강당
- 근대 부산문학예술에 영향을 끼친 선각자와 작가의 시대적 역할.

2024년 8월 3일 부크문 시화전 개막식

- 동백섬 (8월 3일~8월 31일 전시)
- ‘바다 사람에게 놀들다’ 주제로 개막식 및 축하 행사

2024년 9월 30일 부크문 임원 및 이사회

- 부산크리스천문협 현판식
- 신입회원 인준건: 이기연, 김은희, 조의홍, 박상복
- 3/4분기 행사안 토의

2024년 10월 24일 월례회

- 부크분 42호 책값 분담건
- 부크분 재정 확충 및 발전 방안 토의

2024년 12월 12일 임원회의

- 부크분 42호 출판기념회, 문학상시상식, 송년회 준비

2024년 12월 26일 출판기념회 및 문학상시상식, 송년회

- 영광도서 8층홀
- 부크분 문학상(최귀례 고문)

2025년 1월 15일 임원회의

- 연간계획수립
- 2024년 결산보고
- 2025년 예산 계획

2025년 1월 23일 정기총회

- 장소: 태진한우
- 신입회원: 정선자, 이준우

2025년 2월 17일 임원 및 고문단회의

- 부크분 발전방안논의
- 25년 행사협의

2025년 3월 20일 월례회

- 장소: 태진한우
- 신입회원: 조광순, 김숙자

2025년 4월 26일

- 대구기독교문인회 문학 강연회 임원진 참석

2025년 5월 29일 대구문학기행

2025년 7월 동백시화전

- 해운대 동백섬

2025년 9월 13일 기독교백일장 및 기독교문학제

- 해운대교회

2025년 11월 일 가을 문학기행

- 미포-청사포 철로길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1989년 9월 4일 창립

1989년 : 심군식, 양왕용, 허성욱, 하현식, 임종성, 한영자, 정선기,
김인환, 박춘덕 외

1992년 : 구모룡, 김동재, 김세윤, 김인환, 김향숙, 김홍규, 남송우,
박남훈, 박윤기, 박인과, 박춘덕, 백성호, 송길원, 송유미,
심군식, 안유환, 양왕용, 이금옥, 이영애, 이창, 이창희,
이채곤, 임춘남, 정대훈, 정선기, 조남순, 주태균, 최장길,
하현식, 한영자, 허성욱, 류정희

1993년 : 김정미, 김정후, 박영희, 박재수, 박정선, 배상호, 손영희,
신 선, 유신자, 한정옥, 최훈조

1994년 : 권수현, 남현자, 이채곤, 하난사

1995년 : 김명옥, 박훈덕, 백성호, 백정자, 오학렬, 이종태, 하승무

1996년 : 김상희, 조금순, 정수자, 하창길, 허성수

1997년 : 김 훈, 박희두, 엄명자

1998년 : 김귀숙, 김지경, 유일열, 이창태, 주정하, 최상룡, 최원철

1999년 : 전수연, 김복남, 박선희, 배혜숙, 손미희, 원무현,

조영욱(경남 창원)

2000년 : 서정열, 최홍식

2001년 : 공기화, 김달현

2002년 : 서종미, 신정자, 안중덕, 이견숙, 이민화, 이은화, 전기웅,
김홍식, 나연숙(서울), 권신애(김천), 곽철근(경기 용인), 이광주,

이미숙(충남 아산) (타 지역 회원은 지상 백일장을 통하여 가입, 이하 동일)

- 2003년 : 김만웅, 이은주, 지왕근(충남 공주), 서창수, 하선옥(서울),
김정겸, 김옥기(경남 사천), 이한숙, 박용주, 최경희
- 2004년 : 김은주(대구), 남순, 민형기
- 2005년 : 전상순(충남 영동), 최귀례
- 2006년 : 김금아, 김종화, 나동광, 이옥진, 조범산, 조병옥, 한창옥,
양윤형
- 2008년 : 김부상, 김종현, 진왕현
- 2009년 : 고혜은, 김대식, 김은우, 유병기, 이효준, 최기택(재가입)
- 2010년 : 강연조, 명인숙, 모정희, 박영, 오영애, 이석문, 박경영,
정천수, 최정인, 감윤옥
- 2011년 : 박삼철, 오병상, 장문, 최명, 권갑숙
- 2012년 : 원문선, 권영숙
- 2013년 : 김해룡, 박영곤, 백성기, 정재출
- 2014년 : 강신구, 김민주, 임지연, 진용호, 최경숙
- 2015년 : 안정숙, 이재경, 임규택, 윤춘식, 황은
- 2016년 : 광병길, 강위석, 김수자, 김형석, 변도우, 정연원
- 2017년 : 김혜영, 성윤자, 송정우, 정영체, 최만공, 최방식
- 2018년 : 이선화, 조현숙
- 2019년 : 임병주, 윤평원
- 2020년 : 이귀선, 이승훈, 최유미, 전섭태
- 2021년 : 김숙희, 이귀미, 이영숙, 손정란, 김경희, 유병기(재가입)
- 2022년(신입회원) 신현숙, 이옥순, 정명진
- 2023년(신입회원) 오윤형, 정현옥, 남순(재가입)
- 2024년(신입회원) 구애순, 이가연, 이둘자, 김은희, 조의홍, 김진기,

박상복, 김복단

2024년(현재회원) 감윤옥, 강신구, 강연조, 강위석, 공기화, 광병길,
권갑숙, 권영숙, 김경희, 김금아, 김민주, 김복임, 김숙희,
김인환, 김정자, 김정후, 김해용, 김혜영, 김형석, 노장현,
류정희, 명인숙, 모정희, 박경영, 박정선, 박춘덕, 박희두,
배상호, 배혜숙, 백성기, 변도우, 성윤자, 손정란, 송순임,
송정우, 신 선, 신정자, 안유환, 양왕용, 양윤희, 원문선,
유병기, 윤춘식, 윤희원, 윤현수, 이귀미, 이귀선, 이선화,
이수일, 이승훈, 이영숙, 이옥순, 이용수, 임병주, 이창희,
전섭태, 전진경, 정말숙, 정연원, 조현숙, 최경희, 최귀례,
최만공, 최방식, 최유미, 최훈조, 한인환, 허성욱

2025년(신입회원) 정신자, 이준우, 조광순, 김숙자, 유문경

2025년(현재회원) 감윤옥, 강신구, 강연조, 강위석, 공기화, 광병길,
구애순, 권갑숙, 권영숙, 김경희, 김금아, 김민주, 김복단,
김복임, 김숙희, 김은희, 김인환, 김정자, 김정후, 김지수,
김진기, 김해용, 김혜영, 김형석, 남 순, 노장현, 류정희,
명인숙, 모정희, 박경영, 박상복, 박인자, 박정선, 박춘덕,
박희두, 배상호, 배혜숙, 백성기, 변도우, 성윤자, 손정란,
송순임, 송정우, 신 선, 신정자, 안유환, 양왕용, 양윤희,
오윤희, 원문선, 유병기, 윤춘식, 윤희원, 윤현수, 이가연,
이경옥, 이귀미, 이귀선, 이둘자, 이선화, 이수일, 이승훈,
이영숙, 이옥순, 이준우, 이창희, 이효정, 임병주, 전섭태,
전진경, 정말숙, 정명진, 정연원, 정현옥, 조의홍, 조현숙,
최귀례, 최만공, 최방식, 최훈조, 한인환, 허성욱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라 한다.

(영문명 : The Busan Christian Writers Association)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학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기독교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부산크리스천문학 발행
2. 백일장 개최 및 신인상 공모
3. 문학 강좌와 세미나 개최
4.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시상
5. 월례회 및 각종 모임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건전한 개신교 교단의 기독교인으로서 기성 문단에 등단한 자, 잡지와 신문에 등단한 자, 작품집을

발행한 자, 본회의 신인상에 수상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학인을 회원으로 한다. 단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은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며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각종 행사 참여 및 각종 수혜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회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 등을 준수한다.
2. 본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각종 회비 납입 및 공동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및 활동 정지) 아래와 같은 사람은 본회의 회원 제명 및 활동 정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1. 본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2. 2년 이상 연락이 불명일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때
4. 본회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 외 4명
3. 사무국장, 차장 : 각 1인
4. 재무국장, 차장 : 각 1인
5. 서기 : 1인

6. 감사: 2인

7. 이사: 20명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등단 7년 이상, 본회 입회 5년 이상인 자로 고문단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연석회의 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회무 일체를 집행한다.
4. 재무국장 : 본회 제반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5. 서기 : 본회 행정 업무와 기록, 문서 보관을 수행한다.
6. 감사 : 본회의 회기 중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 차장, 재무국, 차장, 서기로 구성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 연 1회,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이사회의 결의나 임원회의 요청,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인준
3. 사업 계획안, 각종 연말 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임시총회의 소집 안건
5.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회칙 개정, 명칭 변경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타 안건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 논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의 예비 심의
4. 회원의 제명 및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안 결산 및 차기 예산안 심의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계된 사항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

제21조(고문단)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고문단을 구성한다.

제22조(연석회의) 본회는 제반 계획과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 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를 가진다.

제23조(회의) 본 연석회의는 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한 안건들을 자문한다.

제7장 위원회

제24조(위원회) 본회는 필요시에 편집위원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심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둔다.

제25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둔다.

제8장 재정 및 경조사

제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수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신입회원의 입회비

3. 보조금
4. 찬조금, 후원금
5. 특별회비
6. 기타

제28조(회계감사) 본회의 재정은 연 1회 정기 회계감사를 받으며, 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원 경조사

- (1) 회원 본인의 경조사(결혼, 사망)-1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환으로 한다.
- (2) 회원 본인의 입원(2주 이상)시는 5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꽃다발로 한다.
- (3) 회원 문학상 수상, 출판기념회 등에는 5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꽃다발을 보내되 연1회로 한다.
- (4) 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의 경조사(결혼 또는 사망)시는 1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환으로 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제30조 문학상 심사위원회

1. (문학상 심사위원회) 문학상 심사위원은 7명(고문단 4명, 회원 3명)이며, 회원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회 연도로 한다.
2. (수상자 대상) 문학상 수상자는 등단 10년 이상, 작품집 3권이 상 발간한 사람으로, 부산지역의 기독교 문화과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3. (수상자 제출자료) 수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인 약력과 사진
 - 2) 개인 작품집 및 저서
 - 3) 문단 및 교계 활동 사항
 - 4) 대표 작품

제3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 본회는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을 두며 주간은 회장이 임명하고 주간은 편집국장과 편집위원을 임명한다.
 - 1) 편집장 1명
 - 2) 편집위원 5명
 - 3) 편집실무위원 약간 명
2. (편집위원의 업무) 본회 편집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주간: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 2) 편집장: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 3) 편집위원: 편집장을 도와 편집 활동을 한다.
3. 사무국장은 편집회원으로 한다.
4. 신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임기는 임원에 준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회칙 개정) 본회 회칙은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을 현의하여 임원 및 고문단연석회의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결의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회칙제정 1989년 10월 16일

회칙제정 1996년 12월 29일

회칙제정 1998년 01월 13일

회칙제정 2000년 01월 24일

회칙제정 2002년 01월 29일

회칙제정 2004년 01월 26일

회칙제정 2012년 12월 20일

회칙제정 2019년 02월 28일

회칙제정 2023년 07월 27일

회칙제정 2024년 05월 31일

■ 연회비 안내

회 장 50만원

부 회 장 20만원

고 문 10만원

사무, 재무, 편집장, 이사, 감사 10만원

회 원 5만원

■ 신입회원 입회비 안내

입회가입비 10만원 연회비 5만원 (총 15만원)

■ 납부계좌 안내

부산은행 101-2042-4502-05 부크문 모정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5년 임원조직

■ 임원조직

회 장 송정우

부 회 장 권영숙, 김혜영, 김경희, 조현숙, 최방식

사무국장 감윤옥

재 무 모정희

서 기 이승훈

고 문 양왕용, 안유환, 허성욱, 박춘덕, 류정희, 박정선, 신 선,
공기화, 최귀례

명예고문 한영자, 김인환, 남송우, 하현식

상임고문 양왕용, 안유환, 류정희, 박정선

감 사 권갑숙, 명인숙

이 사 감윤옥, 김진기, 김해용, 남 순, 노장현, 모정희, 백성기,
변도우, 성윤자, 손정란, 송순임, 윤현수, 전진경, 최만공,
한인환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주 간 박정선

편 집 장 양윤희

편집위원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순임,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주소록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감윤옥	4808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 104동 1303호 (동부올림픽타운)	mother8888@hanmail.net	010-9876-2954
강대중	46221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709 번길 15 가동 401호(서울 빌라)	lobby@daum.net	010-9815-9191
강신구	78765 부산광역시 명지오션시티 11로 22 113동 1306(명지 두산위브포세이돈)	k1945819@hanmail.net	010-9932-4810
강연조	49116 부산시 영도구 종리로 32 (국제마미뉴비치타운)106동801호		405-8336 010-2265-8336
강위석	46994 부산 사상구 양지로 3,3-310호 (대성아파트)	kws3661@daum.net	010-3868-3399
공기화	48505 부산 남구 용소로 64번길 138, 201호(삼정그린타운)	salomkong@naver.com	010-4580-2930
곽병길	46044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해송1로33 비스타동원2차 209동 701호	bkkwak8420@hanmail.net	010-6769-8420
구애순	50920 김해시 분성로 288번길 29-5	tjs20010@daum.net	010-4666-0045
권갑숙	46061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6번길 22 3층	kkabin2000@hanmail.net	010-8553-3947
권영숙	48436 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56번길 4 (대연5동)	youngsukorea@hanmail.net	010-4093-6120
김경희	47747 부산시 동래구 문화로 15, 101동 902호 (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차)	wj2778@korea.com	010-3568-6250
김금아	49360 부산 사하구오작로 138 (과정동 동아파크맨션)706호	hinsner@hanmail.net	010-5455-2565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김민주	51124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14 106동 502호 엔에이치에프@ 창원대산1단지	goldkim1575 @hanmail.net	010-6886-1838
김복단	47571 부산 연제구 고분로270 센텀 수영강 푸르지오 101동 904호	bdkim0105 @naver.com	010-2823-9747
김복임	55714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윗길 147	maiim3938 @naver.com	010-2544-3938
김숙자	47553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343번길43 연산자이아파트 109동402호	Jinribub @naver.com	010-7209-5288
김속희	49325 부산시 사하구 송학로 3번길 64호 1동 209호		010-4547-9974
김은희	46605 부산시 북구 덕천로 234번길 47, 502동 1207호	maeum5454 @naver.com	010-5695-1638
김 정	47141 부산진구 동평로 173 현성휴포레 시티즌파크 103동 803호	jjkim8 @hanmail.net	010-2836-4542
김정후	11453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200, 104동1101호 (중흥s클레스)	ccahookim @hanmail.net	010-6397-0577
김지수	47813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245번길 31		010-9150-4626
김진기	48103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468번 나길 49	Jinkekim @naver.com	010-5550-8308
김해용	46214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076-1	Duri0208 @hanmail.net	010-5499-7740
김혜영	48424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142, 105동 308호 (삼익그린타운)	khy2121 @hanmail.net	010-2670-2188
김형석	48222 부산 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20. 105동 1505호 (수영동,현대)	hs24gold @hanmail.net	010-2559-9417
남 순	48110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80, 101동 2303호 (좌동 한라아파트)	nssky99 @naver.com	010-9875-0087
남순백	47575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74번길 103동 402호 (선경아파트)	9912608 @hanmail.net	010-3480-9707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노장현	48157 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 백양관문로104 (국제백양아파트8동503호)	roh1934 @hanmail.net	010-2832-2973
류정희	47865 부산 동래구 사직로56 (사직동)	poet5042 @hanmail.net	010-5042-5906
명인숙	48097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41 (중동롯데캐슬비치)101-807	aud0113 @hanmail.net	010-4719-2012
모정희	48047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382 (재송동 센텀피오래) 105-2005	sns mama @hanmail.net	010-2309-9348
박경영	48044 부산시 해운대구 삼어로 207 104동1904호(대우금사아파트)	parkky0212 @hanmail.net	010-3356-7360
박상복	48091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117 대우 마리나107동 401호	dasann7 @hanmail.net	010-3797-0559
박인자	47613 부산시 연제구 봉수로 15, 2동 205호 (연산동 한독아파트)	mama1009 @daum.net	010-9969-3593
박정선	48080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117 (좌동롯데2차아파트)201동1904호	2050jsp @hanmail.net	010-2561-1221
박춘덕	47703 부산 동래구 금강로 131번길 41 래미안포레스티지 302동 1601호	cdparks @daum.net	010-3596-9339
박희두	48453 부산 남구 수영로 175 부산성소병원	parkhd46 @hanmail.net	010-4554-5181
배상호	49232 부산시 서구 까치고개로 160번길 37 (아미동2가 몽포배상호문학기념관)	munye-bsh @hanmail.net	010-5511-6707
배해숙	48516 부산 남구 분포로111, LG메트로시티113동1601호	poet0691 @Daum.net	010-3862-0691
백성기	49430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신변영로233 가락타운211동704호	skbaek20 @nate.com	010-3597-0169
변도우	48805 부산시 동구 초량로94-1 (췌제에코)	dowbyun @gmail.ent	010-6747-7727
성윤자	50898 경남 김해시 삼계로 239 205동 306호 (삼계동 부영아파트)	yjseong @hanmail.net	010-2810-2136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손정란	48304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41, 102동 506호 (협진태양아파트)	sjl0212 @hanmail.net	010-2441-3393
송순임	48507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47번길 125 (대연동)대천유치원	56ssi @hanmail.net	010-3557-5622
송정우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707호	jwsongtass @gmail.com	010-3051-1094
신 선	48086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 88, 1-101 (신동비치맨션)	sinsun0512 @hanmail.net	010-3836-5273
신정자	46518 부산 북구 양달로 9번길21 벽산강변아파트 112동 701호	s000920 @hanmail.net	010-9481-1153
신현숙	47868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62-12, 105동 1606호 (화신동영아파트)	shsook57 @hanmail.net	010-3243-8029
안미영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29 대동아파트 501동 802호		010-6526-1004
안유환	46296 부산 금정구 식물원로 64 (금정산에스케이뷰아파트)112동 1404호	ayh0715 @korea.com	010-3801-2305
양왕용	48104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11, 106동 1301호 (현대아파트)	poyong43 @naver.com	010-3563-2604
양윤형	48726 부산 동구 중앙대로 514 (범일동한성기린프라자)A동1611호	yunhyung7 @hanmail.net	010-3851-4428
오윤형	48035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로 133, 102동 1402호 (센텀롯데캐슬)	oyoonh2020 @hanmail.net	010-8519-8331
원문선	4806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83번길 10 (우동롯데아파트)9동 1204호	wms142 @hanmail.net	010-9222-9626
유문경	49523 부산시 사하구 대대로 539번길 14	mkyoo7252 @gmail.com	010-4001-5285
유병기	47101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곡로 67, 103동 1103호 (삼환아파트)	yubk111 @hanmail.net	010-8239-6630
윤춘식	46945 부산시 사상구 삼덕로 71길 (덕포동 404-8) 브니엘신학대학	latintimes @hanmail.net	010-4225-1664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윤평원	47707 부산시 동래구 우장춘로 108번지 12	sandolyoon@naver.com	010-9661-3208
윤현수	48577 부산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26번길45-3 101동 210호 옹호동 대광타워	yhs201@hanmail.net	010-6562-2411
이가연	49207 부산시 서구 꽃마들로 57 금호어울림아파트 101동 1003호	gelee@dau.ac.kr	010-2560-3498
이경옥	49316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11, 당리동 반도보라아파트 102동 806호	ky1159@hanmail.net	010-4571-5259
이귀미	49430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하신변영로233 가락타운 211동 704호	skbaek20@nate.com	010-3597-0169
이귀선	46228 부산시 금정구 두실로41 로얄캐슬 902호	l-jundosa@hanmail.net	010-7550-1193
이들자	48532 부산시 남구 흥곡로 360 대연파크 푸르지오 112동 1604호	ree6997@hanmail.net	010-9312-6997
이선화	49079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26 (영선동3가)	a01045548926@daum.net	010-4554-8926
이수일	49326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91번길 5, 나동204호	suil306@naver.com	010-5526-3651
이승훈	47338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238번길5 삼정그린코아 102동 1502호	qa0691@naver.com	010-4853-7074
이영숙	46058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 8번길51 이진테마빌 101동 211호	dldudtnr0626@naver.com	010-5230-0433
이옥순	49393 부산시 사하구 대대로 109 5동 203호 (신평한성임호아파트)	oksnlee@hanmail.net	010-3860-7180
이옥진	48064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가길 91 센텀마리나 101-1003	soup3927@hanmail.net	010-2527-8445
이용수	46308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5 A동105호 (부곡동 협진태양아파트)	yongsu.0521@hanmail.net	010-6387-5537
이준우	49520 부산시 사하구 대대로 473, 110동 2301호 (다대동 현대 아파트)	Photojun0077@hanmail.net	010-8507-0077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이창희	46044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1길5-6일광아파트 305호	w2820691 @naver.com	010-4858-1550
이효정	48075 부산시 해운대구대천로 103번길47, 119동 303호	milktea2021 @naver.com	010-6240-3447
임병주	48078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29 대동타운 514동 1801호	newlife3217 @naver.com	010-3425-3217
전진경	47257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96번길 11	pfjeon @hanmail.net	010-3594-5516
전섭태	48430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489-8 효원빌라 402호	setajeon @naver.com	010-2470-0766
정말숙	48081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8, 408동 1804호 (뜨란채아파트)		
정명진	48936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32번길 7 대림빌딩 503호	sora1868 @hanmail.net	010-9332-6250
정신자	48516 부산시 남구 분포로113 238동 2303호 lct메트로		010-3595-3534
정연원	49263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91 송도자이르네디오션 101동 1802호	mysky999 @hanmail.net	010-8510-5378
정현옥	48091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105동 1106호 (우동 경남마리나)	hoj5491 @hanmail.net	010-9326-5491
조광순	46772 부산시 강서구 명지 국제7로 110 더힐 시그니처 103동 1601호	rudijo02287 @naver.com	010-8459-1277
조의홍	48221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46 202동 2405호		010-2812-7397
조현숙	4808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99번길 22(경남 아너스빌) 110동 902호	shiree98 @hanmail.net	010-3853-9091
최귀례	4809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0 (해운대엑스디움)102-3002호	countrycha @naver.com	010-4283-4456
최만공	47571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80 부산센텀푸르지오 103동 402호	cmg2027 @hanmail.net	010-4260-7409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최방식	48559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26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03동 2304호	yddchoi @hanmail.net	010-5041-7380
최훈조	48057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30번길 135 재송동 안성타워맨션 407호	veryhappy0502 @hanmail.net	010-5553-6046
한인환	48432 부산시 남구 수영로 345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 113동 1503호	linwhan09 @hanmail.net	010-2635-1427
허성욱	47529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 310동 2502호(거제동, 레이크اون티)	heoswook @naver.com	010-3562-0149

2025년 회원 게시판 동정

❖ 회원 동정

- 김경희 : 세계시인대회 아카데미학술원 36차 명예 문학박사 학위 받았음
(2025. 6. 7)
- 이돌자 : 부산 문학상 우수상(2025.9.5.)
- 양왕용 : 남해의 근현대 문학인 재조명전 참가 (남해유배문학관)
(2025.11.15.)

❖ 신간 안내

- 김경희 제5시집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 청옥출판사
- 이돌자 세번째 동화책 『할아버지의 손님』가문비출판사
- 공기화 다섯번째 수필집 『모너머 고개를 넘어 부산장에 가다』 도서출판 미남
- 신현숙 두번째 시집 『꽃잎에 쓰는 편지』 창조문예사
- 윤평원 제3시집 『은혜의 품에 안겨』도서출판한국인
- 김은희 첫시집 『저녁 노을이 백미러에 보내온 엽서』법북
- 양윤형 여섯번째 시집 『소금꽃 향기』 세종출판사



편집후기

- 2025년 하반기 제44호도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잘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호에는 해운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특집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백일장과 함께 해운대교회 목사님 인터뷰(대담)이 뜻깊다.
- 원고를 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품평을 써주신 전 부산문인협회 회장 변중환 시인과
아동문학부문의 남순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 모든 회원님들의 문운이 빛나기를 빈다.

〈편집부〉

참고사항

- 부산크리스천문학이 격조 높은 문학지가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와 후원금 입금계좌는 맨 아래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산크리스천문학 제44호

등록번호 [부산, 사01034]

인쇄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일 | 2025년 12월 20일

발행처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발행인 | 송정우

주간 | 박정선

편집장 | 양윤형

편집위원 |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순임,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인쇄처 | 세종문화사

출판등록 제02-01-96

주소 | 48964 부산시 중구 흑교로 71번길 12 (보수동2가)

전화 | (051) 463-5898, 253-2213~5 | FAX (051) 248-4880

이메일 | sjpl5898@daum.net(세종출판사)

ISSN 2384-3780

※ 이 책의 무단 전재 및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값 15,000원

정기구독료 및 회비 입금계좌

부산은행 101-2042-4502-05 부크문 모정희

《부산 크리스천문학》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 원 모 집

크리스천 문인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로 오세요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학과 지성을 추구합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문학정신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마다 문학이며 신앙 세계는 곧 문학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문학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님을 기다립니다. 기성 문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작가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연락 주실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이 메 일** _ 2050jsp@hanmail.net
- **연 락 처** _ 주간 : 010-2561-1221 / 편집장 : 010-3851-4428

▪ 신인상 원고 모집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에서 신인을 선발하는 작품을 공모합니다. 당선된 분은 작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회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응모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장르를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 · 시조 - 각 5편씩
- 동화 - 1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동시 - 5편
- 소설 - 1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수필 - 2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평론 - 1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원고 보낼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주 간 이메일** _ 2050jsp@hanmail.net / **연락처** _ 010-2561-1221
- **편집장 이메일** _ yunhyung7@hanmail.net / **연락처** _ 010-3851-4428

양운형 시집

소금꽃 향기



- 2001년 월간 <한국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회원
- 부산여류시인협회 수석 부회장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 이사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장
- 영호남문인협회 부회장

시집

『가슴위로 달리는 자전거』, 『피라칸사스의겨울』
 『바람이 아름다운 계절』, 『숲으로 가는 길』
 『빙점아래 피는 꽃』, 『소금꽃 향기』

수상

- 2017년 문화예술부문 부산시장상
- 2017년 영호남문학 작품상
- 2024년 영호남문학 본상

바다는 무한의 세계에서 사람의 행위를 받아들이면서도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삶이든 문학이든 바다를 꿈꾸는 자는 대범하다고 할 수 있다. 바다라는 공간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대한 은유와 상징은 더욱 은밀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다는 즉 해양문학은 바다가 원형적 상징을 이루고 있듯이 인간의 원초적인 삶과 영혼을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운형 시인은 그걸 알아차린 것이다. 양 시인은 이번에 대대적인 바다 문학에 집중했다. 편편이 생명의 창조, 바다와 인간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다.

— 박성전(문학평론가) 해설 中

